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獨墺協定에對하야 墺「나치스」反對!

合併運動水泡에도라갓다고 極度로憤慨、形勢重大

【維也納發】 今回에 成立된 獨墺新協定은 墺太利의 後見人格인 伊太利의 意思를 全的으로 貫徹식힌것으로 獨逸側에서 이것을 보매에는 屈辱的讓步라할것으로 獨逸國內의 나치스黨間에도 憤慨하는바 濃厚하고 黨內의 動搖까지 念慮되는 情勢인데 墺太利國內의 나치스黨員의 憤慨는 더욱 激烈하야 獨墺協定條項全部에 對하야 絶對反對를 表明하고잇다 即 今回의 協定에 依하야 獨逸政府가 墺太利나치스黨에 與한 約束은 全面的으로 破棄된것으로 墺太利나치스가 從來多大한 犧牲을 拂하고 獨墺合併을 實行하야 싸워온 努力을 一朝에 水泡에 도라가게된것이라하야 墺太利나치스는 「히틀러는 우리들을 파랏다」고까지 極言하고 今後에는 非合法手段에 訴하야 나치스運動을 어데까지 繼續할 決意를 鞏固히하게되엿는바 슈슈니크政府의 態度如何에 依하여는 不祥事의 發生까지 憂慮되는 形勢이다 그리고 獨墺協定締結의 責任者인 維也納駐在獨逸大使 포파펜氏는 墺太利나치스로부터 極度의 憤慨를 사게되여 그의 身邊을 警戒하고잇다

小協商諸國間에 佛國의聲望低下

獨墺協定成立으로完全孤立 惟一한依據는蘇聯뿐

【巴里電通】 中歐에 잇어서 佛國의 勢力은 十一日夜에 公表된 獨墺協定에 依하야 重大打擊을 蒙한 模樣이다 巴里의 外交消息通의 見解에 依하면 슈슈니크首相은 오토太公의 王位復辟을 一時斷念하고 히틀러總統이 復辟에 同意할때가지 기다리기로 決意하고잇다고 新協定에잇서서는 이에 言及하기를 避하엿는데 事實은 오토太公의 即位에 關하야 獨逸側의 暗默의 諒解를 어든것이라고 觀測된다 佛國은 從來 합스부르家 復辟의 脅威를 利用하야 小協商國을 反히틀러戰線에 關係하려고 努力하야왓슴으로 此點에 關한 獨墺의 妥協은 小協商國間에잇서서 佛國의 聲望에 對하야 重大한打擊이다 불룸首相은 今回의 協定이 外交的失敗에서 生한것을 認識하고 못하나 마치 中歐事態의 重大進展에 際하야 佛國은 바야흐로 孤立하게되엿다 佛國이 何等積極的役割을 遂行치못한것은 大戰以來 今回가 처음이다 이에 佛國은 唯一한 蘇聯과의 相互援助에 依한 行動에 依賴할바게 他道가 업는 狀態에 直面하게되엿다

獨伊協定判明까지 로카르노會議延期

【倫敦十四日發同盟】 白耳義首相 방질랜드氏는 獨墺協定成立의 新情勢에 鑑하야 第四次로카르노會議를 延期 又는 中止를 考慮中이라고 傳하는데 英國政府에서도 獨墺協定의 背後에 잇는 獨伊의 諒解가 어느程度까지 緊密한가를 究明하기까지는 會議開催를 延期함이 得策이라는 意見이라고 確聞한다 大體로카르노會議에 獨伊의 參加가 實現되면 其目的을 達할수업슬것을 모르리 伊國에 極히 密接한 提携가 存在한다고하면 會議에서 協定을 짓드라도 無意味한바 英佛白各國政府는 相互外交機關을 通하야 目下獨伊協定의 眞相探索에 努力하고잇는데 會議延期說은 漸次 不可避하게되엿다

米大統領選擧戰

民主? 共和?

政綱其他環境으로보아 民主黨再勝利는確實

韓 普 容

民主黨의 進步的政策은 그 地盤的關係로보아 有利한 結果를 招來하게되엿다. 그것은 即 南北戰爭以來 從來부터 民主黨에 從屬하여오든 保守的南方農業諸州는 感情的愛着에 依한 無條件으로 民主黨에 投票하게되엿다. 이點은 現在에 이르러서도 크게 다르지안타. 다시 말하면 民主黨은 오랫동안 南方을 「固守」하게되엿고 그 政綱이 漸次「리베랄」하게되여 南方의 保守的諸州에 잇서서는 그러케 歡迎을 바들수업는 內容으로 되여잇슴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無條件無批判的으로 民主黨에 投票한다. 例를들면 前回總選擧에잇서 南方諸州가 依然 民主黨을 支持하엿는데 事實에 잇서서는 一九三二年總選擧의 가장重要한

禁酒問題에 關하야 保守的南方諸州는 禁酒法에 贊成하엿슴에 不拘하고 選擧의 結果는 禁酒反對政綱의 民主黨에 投票하엿든것이다. 利害를 떠나서 感情에 움즉인다는것은 一時的現象인것이 事實이지마는 이러한 現象은 封建的保守的社會에 흔이잇는것도 事實이다. 南方諸州는 이와가티 無條件無批判的으로 民主黨을 支持한다는 意味에서 솔리드·사우드(Solid South)라는 말까지 생겨나게되엿든것이다.

이와가티 南方에 鞏固한 陣을 가지고잇는 民主黨은 그政策이 漸次「리베랄」하게됨에 따라 北方

商工諸州로 侵入하게되엿다. 이事實은 一九二〇年以來의 北方商工諸州의 總選擧結果를보면 明瞭히 알수잇다. (千票單位)

黨	年代及候補名	뉴욕	마사추셋츠	로드아일랜드	이리노이	펜실베니아
民主黨	一九二〇 칵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二四 데븨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二八 스미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二 루-스벨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共和黨	一九二〇 하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二四 쿨리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二八 후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二 후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以上統計表에 依하야 北方工業諸州의 共和黨地盤이 漸漸蠶食되여가는것이 눈에 보이는同時에 民主黨勢力이 北方工業地帶에

侵入되여가는것을 넉넉히 알수잇다.

그러하야 前回總選擧에는 펜실베니아가 僅少한差로 依然 共和黨에 執着하여잇슬뿐이오 其他四州는 『當選投票』까지 民主黨으로 도라가게되엿다. 그리고 이番 民主黨全國大會를 펜실베니아州 필라델피아市에 開催하게된것은 이 僅少한差로 當選投票를 엇지못한 펜실베니아州民의 好感을사서 今秋選擧에는 同州當選投票(三十六票)까지 獲得하려는데 基因하는것이다.

네재로 指摘한 一九三二年總選의 民主黨有利條件은 루-스벨트 自身이 가지고잇는 武器이엿다. 루-스벨트라는 일홈의 싸오는 國民으로하여금 어느程度로는 無條件하고 好感을 갓게한다. 이것은 一般米國民이 쥬-(猶太人)라든가 캐도릭(舊教徒)이라면 꽁여하는 것과는 正反對의 心理와 가튼 作用에 依하는것이다. 루-스벨트가 조케들이게되는것은 偉人또-돌·루-스벨트(前大統領)가 잇는까닭이다. 米國에서는 아담스家나 라포레트家나 루-스벨트家라면 名家門이로 넉이고 此等名家門에는 偉人이난다는 非科學的觀念이 一般民衆에 相當히 浸潤되여잇는까닭이다. 그리고

前大統領 또-돌·루-스벨트는 共和黨이엿슴에 反하야 現在의 프랭클린·루-스벨트는 民主黨이라는것이 더욱히 有利한 點이다. 共和黨사람은 루-스벨트인까닭에 民主黨에 投票하고 民主黨사람은 民主黨인까닭에 民主黨에 投票하게되므로써이다. 그러나 今年選擧에잇서서는 루-즈벨트氏는 이미 前回와가튼 『試驗濟』의 人物이므로 前回와가튼 그러한 好奇心과 愛着心은 엷은듯하나 그러타고 루-즈벨트의 人氣가 크게떠러진것은 아니다. 더욱이 相對者가 랜든이라는 比較的

中央舞臺에 알여지지못한 一州의 知事로 政治的成功者라는 以外에는 別로히 이러타 할만한 무엇을 내여놓지못한 人物에 比較하면 루-즈벨트氏의 人氣는 依然 優勢하다고 볼수잇는것이다.

다섯재로 든 民主黨의 有利條件은 候補者의 地理的關係이엿다. 그것은 即 루-즈벨트가 東部를 리-드할수잇슴에 相應하야 副大統領候補가 너氏가 農業州 텍사스出身이 엇스므로 그가 中西部農業地帶를 리-드할수 잇섯다는것이다. 그러나 이點에 잇서서는 今年에는 共和黨側에서도 어느程度의 自信이잇는 모양이다. 即 랜든氏의 反動保守的政綱으로 東部工業家、金融業者의 中心地를 리-드할뿐아니라 그가 캔사스로 當然 中部 農業地帶는 勿論、其他

農業諸州도 리-드할수 잇다고 보는까닭이다.

今秋總選擧의 豫想으로서 最近 아메리카社會에 나타난것을 보면 뉴욕타임스紙(獨立民主黨系)는 現下의 兩黨勢力을 이러케보왓다.

▲民主黨 二三二票(廿七州)
▲共和黨 一二八票(十二州)
▲不明 一七一票(九州)

그러나 지난 正月에 갤롭박사의 리터라리·따이제스트誌의 模擬選擧의 結果는 루-스벨트 反對者가 六〇%以上이 되고 贊成者는 四十%未滿이엿다.

이것은 昨年中의 뉴딜違憲判決및 不景氣再出現에 依하야 루-스벨트의 人氣가 떠러진데도 基因하엿겟지마는 元體 리터라리·따이제스트誌의 模擬選擧의 豫測이 『當身』은 只今 루-스벨트의 뉴딜政策을 支持하는가 如何를 보고 못『노-』로 表示하게한것이므로 『노-』는 그러케 無理가잇다.

今秋選擧를 豫想함에는 그러나하면 그때로말하면 루-즈벨트氏의 相對者(現在의 랜든)가 나서지 안엇고 따라서 그의 政策은 未知數이엿슴뿐아니라 共和黨으로 될수도업는까닭이다. 最後로 루-즈벨트에게 不利하며 따라서 多少의 威脅이 되는것은 第三黨의 勢力이다. 우에서 檢討한바와가티 民主黨政綱은 共和黨의 그것에 比하야 크게 進步的이다. 그런데 第三黨은 各派는 그政綱이 더 進步的이오 共和黨보다 더 保守的인것은 엄는事實이 民主黨에잇서서는 威脅이 되지안흘수엇다. 第三黨中에 가장有勢한것은 놈만·토-마스氏가 리-드하는 社會黨이고 그外에 社會勞働黨、共産黨、農民勞働黨等의 固定的機關이잇다.

그리고 前回選擧에잇서서의 此等 第三黨의 得票는 民主黨루-즈벨트의 一千二百八十二萬票에 對하야 社會黨 토-마스氏가 八十八萬票요 共産黨 포스타-氏가 十萬票요 社會勞働黨 레이놀즈氏가 三十三萬票로 거이 問題가 되지안헛스나 今年에는 이러한 歷史잇는 政黨以外에

社會政策의 色彩가 濃厚한 個人中心의 第三黨勢力이 相當히 잇는모양이다. 即 公共의 必要를 爲하야 財產共有를 主張하는 僧侶 카프린의 社會正義全國同盟、六十歲以上의 男女에 月額二百弗의 養老金을 支給하자는 타운센드 플랜、富의 再分配로 貧富를 制限하자는 루이지아나州 知事 휴이·롱氏의 遺志(?)를 退治하자는 엎튼·심클레어運動、文明社會로 부터 貧困을 退治하자는 엎튼·심클레어氏의 所謂 EPIC案、二十五歲以下 四十五歲以上은 勞働하지말자는 유로피안協會等에 各各幾百萬의 追從者가 잇다하며 또民主黨內에서 從來 루氏를 支持하든 急進的 인프레派로 三十億弗의 農村擔保再融資法案 提唱者인 上院議員 렘케氏가 最近 루氏의 態度에 不滿을 품고 大統領에 出馬한다는 말이傳한다. 그리하야 以上 第三黨의 모든勢力이 全國的으로 合縱連衡하게된다면 米國政界勢力을 三分하야 그 一은 占領할수잇다하니 이 第三黨의 存在를 無視할수업슴은 勿論이다. 그러나

各樣各色인 이 第三黨各派의 全國的團合은 只今形便으로는 좀처럼 實現될 可望이 업스므로 特別한 突發的重大事件이 勃發하기 前에는 民主黨의 再勝은 安心하고 豫言할수잇는가한다。 (完)

第三次五個年計畫은 海軍擴充에全力

第二次五個年計畫에서陸空軍整備完了

蘇聯態度를海軍當局重大視

【東京發】 第一、第二次五個年計畫에서 陸空兩軍의 整備擴充을 完了한 蘇聯邦은 마츰내 海軍擴張에 着手하기로 決定하고 第三次五個年計畫에 잇서서는 專혀 海軍擴充에 全力을 傾注할터인데 最近當局에 入한 情報에 依하면 蘇聯海軍의 現狀은 左와 如한바 目下第三次擴充計畫을 考究하고잇는데 近近具體化하리라하야 日本海軍當局은 蘇聯邦海軍將來의 動向을 重大視하고 多大한 考慮를 拂하고잇다 現在 蘇聯邦 艦隊의 中樞를 形成한것은 四隻의 戰鬪艦으로 三萬六千噸 十二吋砲十二門 速力二十三節 모다 現代的裝備가 實施되여 艦橋及 砲火指揮所에 煤煙이 밋지안토록 煙突을 놉게하고 後方에 屈曲케하고잇다 그러나 右는 모다 舊艦이다 新型巡洋艦四隻은 六千七百噸 乃至 七千九百噸으로 五吋砲十五門 高角砲八門 發射管十二門을 裝備하고 中型巡洋艦의 砲火에 對하야 裝甲甲板 裝甲帶로서 防禦하고 速力은 冊節이다 舊型巡洋艦二隻은 全部 改造를 終了하고 五吋砲十五門 代身에 七吋砲四門을 單砲塔에 裝備하고 四吋高角砲四門、三聯裝二十一吋發射管十二門을 搭載하엿다 驅逐艦二十七隻은 千三百噸 四吋砲四門 發射管九門 速力二十八乃至 三十節이며 四吋砲二門 發射管三門 速力二十九節로 모다 一九三三年乃至三十五年의 建造이다 그리고 其外에 舊式水雷艇六十隻이잇다 潜水艦은 七十五隻으로 其中六十隻은 一九三〇年建造로 新潜水艦은 排水量九百噸乃至 一千噸 四吋砲一門 發射管八門을 裝備하고 新銳潜水艦 四十隻은 海參威에서 遊戈하고잇다

諸情勢緊迫으로 國防會議組織

二中全會에서可決

【南京十四日發同盟】 西南問題發生 其他政治狀勢의 緊迫에 鑑하야 中央은 國防會議를 決定하고 二中全會에서 右組織條令을 可決公布하엿다 右條令은 左와如하다

第一條 全國國防의 最高機關으로 國防會議를 設置하고 國防方針及 國防에 關한 重要問題를 討議함

第二條 國防會議의 組織은 左와如함
1、議長 軍事委員長
 副議長 行政院長
2、委員
 가、中央軍事機關各長官
 나、行政院各部長
 다、中央直系軍政長官

第三條 審議事項
1、國防方針
2、國防會議의 方策
3、國防의 自主的方針과 國家正에 關한 協力事項
4、國防整備의 要綱
5、國民總動員
6、其他國防에 關한 事項

第四條 國防會議는 每年一回 議長이 此를 召集함 必要한 境遇에는 臨時會議를 召集할수 잇슴

第五條 國防會議의 決議事項은 中央執行委員會에 提出하야 國民政府를 經由하야 各關係機關에 命令 施行함

第六條 國防會議의 會期는 一週間으로하고 必要할時는 延長할수잇슴

第七條 國防會議에 秘書長을 置함 秘書長은 參謀總長이 此를 兼任함

第八條 本條令은 中央執行委員會의 議決을 經하야 施行함

新職에就任하라

余漢謀氏陳氏外各將領에通電

【廣東十五日發同盟】 余漢謀氏李揚敬氏외 第二軍各將領에 十四

二中全會終了!

馮氏擧國一致를力說

【南京十四日發同盟】 二中全會는 今日第二次大會를 終了하고 午前十一時부터 馮玉祥氏司會下에 閉會式을 擧行하엿는데 席上 馮氏는 『擧國一致』는 中國現下의 必要事』이라고 『中央과 地方이 全力을 擧하야 復興의 大業을 完成하라』고 力說하고 外交問題에 對하여도 『中央政府는 全力을 다하야 國難打開의 對策을 講究하고 極力努力하야 復興케 하려한다』고 强調하야 『全國各省市는 中央의 命令을 遵奉하야 大局을 擁護하라』 이情勢를 察知하고 努力하라 最近의 國際關係는 我國에 對하야 有利하고 和平은 아직 絶望이 아니다』 라고 述하고 結論으로 左와如히 述하엿다 對外的으로는 如何한 領土主權의 侵害도 맛지안코 또 領土主權의 侵害를 容認할 協定도 締結치 안흘것이다 萬若侵害를 受하면 政治的折衝이 有效한 境遇 犧牲의 精神으로써 이에 當할것이다 이것은 못 全大會의 決定方針을 拔하야 다시 宣言하는바이다

「몬트로」會議

十五日로延期

各國代表의私的會談에서

【몬트로十四日發同盟】 海峽條約改訂會議는 四十日午後에 再開할 豫定이든바 英佛蘇土各國代表間의 私的會談이 長時間에 亘한 結果 本會議는 十五日午前으로 延期하엿다 右私的會談은 佛國代表 풀-롱氏를 中心으로 行하야지는데 同氏는 爲先 第一에 英國代表·랠렐氏 다음에 土耳其代表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을 各各 會見하고 그後 다시 英國及 蘇聯代表와 再次會見하는等 大活動을 繼續한 結果 英國은 土耳其의 主張을 容認하야 現行條約委員會의 廢止에 同意하고 또 英蘇對立의 一原因이 되여잇는 軍艦의 通過問題에 對하여도 平時에잇서서 英國軍艦의 어느程度의 海峽通過를 承認할것을 條件으로 蘇聯軍艦의 海峽

左右對立激化로 西班牙國會停會

相互間에暗殺者續出

【마드리드十四日發同盟】 革新派政府의 殺害事件에 關聯하야 마드리드警視廳當局은 警官突擊隊員十六名을 檢擧하고 嚴重取調한結果 一黨은 카스티리오中尉가 파시스트黨員에게 暗殺되데 憤激하야 復讐次로 소레로元藏相을 暗殺하엿다는 旨를 自白하엿다 一黨의 首魁모레노大尉는 極左急進分子로 카스티리오中尉와함께 數個月前부터 右翼巨頭暗殺計畫을 進行하고잇섯다한다 一方暗殺된소레로元藏相의 葬儀는 十四日午後마드리드郊外아름레나墓地에서 執行하엿는데 팟시스트黨員三萬 其他一般大衆이 參列하야 非常한 盛儀를 이루엇다 但下院議員及 政府代表는 『暗殺의首謀者』라고 俄嚴되여 마침내 葬儀에 參列하지못하엿다 葬儀에 參列한 一同은 팟시스트流의 擧手禮를 마치고 『贈會打倒』를 絶叫하야 氣勢를 올리엿는데 此等大衆은 葬儀場으로부터 市內로 擁回할際 俄然反對派와의 間에 衝突이 이러나 피스톨을 亂射하야 死者一名 重傷者三名을 내엿다 아자니아大統領은 左右兩派의 抗爭激化를 念慮하고 一週間國會를 停會한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國防國策을基幹

各省重要國策을決定

【東京電話同盟】 國策閣議를 中止한 結果 各省에서 提出한 重要國策은 文書로써 廣田首相馬場藏相에게 提出하기로 되엿고 其期日은 十五日까지로되여잇는데 只今까지 首相及藏相에게 提出된것은 遞信省의 電力國營案 航空國策 海運國策司法省의 國營官行案 國營에 關한 國策等으로 이미 閣議에 說明이 끗난것인데 더욱 外務省의 外交國策도 閣議에서 說明이 끗낫스며 他의 各省에서는 아직 提出되지안엇다 그리고 廣田首相은 右國策에 關한 文書提出을 待하야 次田法制局長官、吉田調查局長官、藤沼書記官長等에 命하야 基礎審査를 行케하고 이에 基하야 馬場藏相과 協議하야 緩急先後를 決定하기로 되엿는데 結局來年度豫算編成은 陸海軍의 國防充實에 重點을 두고 此를 基本國策으로하야 各省의 國策은 이에 附隨하야 研究考慮하게되리라 觀測되는바 近近開會될 馬場藏相、寺內陸相、永野海相等의 國防費와 財政調和에 關한 三相會議에 있어서 十二年度의 國防費의 大體의 見解가 선後에 他의 各省의 更要國策을 遂行에 要할 經費를 按配하기로되엿슴으로 陸海軍兩省以外의 各省重要國策의 決定은 八月末以後라고 豫想된다

로카르노會議延長 佛國은反對

【巴里十五日發同盟】 佛國政府는 第四次로카르노條約國會議開催延期에 關한 英國政府의 提議를 接受하고 協議한 結果 延期에 反對하기로 決定하고 十四日駐英大使에 對하야 七月廿二日부터 부랏셀에서 英佛白三國만이會議를 開催하기를 要請하라고 訓電하엿다

流行歌 無情의꿈 金福姬
도로면보로사람의新興味를演出하는멜로듸一
二八二〇四 (레코-드番號四九三四〇)
HIS MASTER'S VOICE

讓渡 店舖及物品一切讓渡코자하오니希望하시는분은直接來談하시오 京城鍾路一丁目六 愛壽堂藥局

朝報案內

돈벌기大王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番) リード式穀物膨脹機 製藥法傳授 五合의쌀이八升가되는 米菓子가되는

流行歌 첫사랑의꿈 作玉燕 唱 컬럼비아레코-드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名古屋本業男女小兒자近郊에서도…(有力な職業) 無休 自宅…(?)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旗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四丁目 カタログ進呈

辭典十冊合本 タ、の一圓 分冊은 各冊五十錢 特別景品 無代進呈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ずくつ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たのし演說辭典 文章百科大辭典 社交常識辭典 模範日記 大阪市東淀川區本庄川崎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二番

殘本處分 大投賣斷行

人生最大의悲劇 父母를차저五十年哀切한아들의呼訴
本人의生父李某는本人四歲時(距今四十七年)에身邊事情으로本人을버리고不知去處가되신後故崔某氏의收養을받아崔姓行世를하여오는바本人十二歲時에養父母마저別世하고보온즉天倫의使然이라晝夜로生父母를그리옴이甚하나生父母의其後消息이今杳然하지라本人은現在異域奉天에서多少의蓄財가잇스되擧人子之道에生父母의生死를모르고生死를不知하나實로一生의恨이라幸히生父母의消息을傳하야주시는분이게시면厚謝를進呈하겟슴니다
京城府光化門通遞信局工務課電氣係 崔振鏞宛 照會하실곳은左記兩處
滿洲國奉天木會町一七 朝鮮新聞支社 崔吉泳宛

金 白金 福 銀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 電話一三一四番 旭町 (電信略號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徒町

國產 カッピー 白粉 피
潑溂한美의感激 美的香氣 굉장한感觸 이一品이야말로 당신이 憧憬하고잇는 化粧美를 한업시表現식혀 는世界的逸品! 個性에맛는 色은七色 大型 小型
良品은빗난다 豊香園製品
東京 田端 豊香園

赤色勞組續行公判【第二日】

同居時 李載裕의 日常生活詳細審問

女被告 朴鎭洪의 生活記錄 "波瀾半生"의 陳述

共產主義의 生活、宣傳은 絕對否認

조선의 공사회를 목적으로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려하엿다는 치안유지법위반 피고 리재유(李載裕)동십명에 대한 속행공판은 십오일 오전에 경성지방법원형사부 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관여 피고들가족 약삼십여명 방청리에 열리어 김수진(金琇鎭)의사실심리부터 시작하엿다 김수진과 공성회(孔成檜)의 심리를 간단히 마친 다음 녀자피고 박진홍(朴鎭洪)의심리에 들어갓는데 피고는 어데까되야 공산주의에 공명하야 이러저러나 경찰에검거되고 도동산주의자로 방출지하에피신중인 리재유(李載裕)와 함께동거하야 그의아들까지나커도엿는가 하는 재판장의날카로운 질문에대하야 피고는 고향명천에서 보통학교를졸업한후 소화오년에 서울에 올라와 동덕(同德)녀고에입학하엿다가 학교중요문제로 학교당국에진정서를 제출하엿든것이말성이되야 소화육년에 그만퇴학을 당하엿다 학교에서 쫓겨난후 조선제면회사(朝鮮製綿會社)및 태창(泰昌)직물회사 녀공으로 다니다가 좌익서적을 동무의 권유에 따라 읽게되것이 원인으로 다소 현사회제도에 불만을품게되엿든바 소화칠년봄에 그의동무 최태룡(崔允龍)이 『R·S』협의회사건으로 검거되엿는데 휩쓸리여 예심에까지 너머가서 소화팔년십일월에 약이년만에 면소되야 나왓는데 나온지 불과 이삼개월이못되야 또 서대문(西大門)경찰에 검거되야 소화구년 오월에 석방되엿다 경찰에서 석방된후 자긔들동어머니를 도웁기위하야 팔방으로 취직하려하엿스나 신분이 발성이부터 취직이 못되고 할수업시 룡산에 잇는 그의 친척집에가서 방놀어떠니고잇슬때에 리재유가 차저와서 생활상태를 념려하여주며 그럼게 생활이 어려우면 자긔가 방을 어더먹을만한 곳을 한곳마련하여 주겟다고하야 이사건으로 검거될 당시까지 잇든 신당정(新堂町)석산봉(石山峯)에 방을 한칸 어더노코 결국 그곳에서 리재유와 동거하게되야 그의 아들을 나커되엿스나 리재유는 자긔에게 공산주의에 관한이야기를 하지도 안핫엇슬뿐아니라 만약자긔가 검거되면 리재유자신도 위험할까념려하야 다른사람과 상종하는것을 실혀하는관계로 피고가이번사건에 참가하야 심계월(沈桂月)과함께 녀자동지를 모아공산주의운동을선전하엿다는혐의는 조곰도자긔는하일이업다하야전연이번사건에는별다른관계가업는것을 강경히주장하엿다 리재유의일상생활에대한 재판장의질문에 대하야피고는 리재유는 그다지텀터한생활을못하엿스나 자긔하고동거할동안 쌀과나무는풍부히가저왓스며 그는항시곤궁하야 야경(夜警)이되야 그것으로 어든수입으로 생활을계속하엿다고 대답하야 방청석은긴장되엿다 출연하게하엿다 바지동의심리를 마친후 오후에다시 속행하기로하고오전열한시오십분휴정하엿다

"國境强盜團"에 求刑

最高十五年最下七年

【惠山】사개월간 오십여회에 처하여 함남도국경가지(甲山)혜산(惠山)등지를 횡행하면서 시국을표방하고 오천여원금품강탈하야 일세를 경동케한 일단 륙명의 강도단 리창렬(李昌烈)(二八)등에 관할 강도살인등 죄명의 공판은 십삼일 오전에 혜산지청 함흥지법에서 미전(米田)판사주심 평곡 서야(西野)검사관여 배석대정사의 관여로개정되여 동오후네시까지 전부에대한 심리를마치고 피고들모두에 대하야 각기아래와가치최고 십오년최하칠년의 구형이 잇섯다 언도는오는 이십일로결정하얏다

▲李昌烈(二八)一五年 ▲李金用(三二)一二年 ▲崔根憲(三二)一〇年 ▲朴元勳(二〇)一〇年 ▲金成默(二〇)七年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舗 普生藥房

西署管內染病

시내 홍파정(紅把町)일백사십번지에 류하든회사원 남정준(南廷駿)(二四)은 이십일전부터 설사를 시작하든중 십사일오후일곱시에 적리(赤痢)로진단되어 곳 순화(順化)병원에 수용하는일방 부근일대의 대소독을하엿다한다

捕風釣影의 搜查

迷宮에 幽閉된 大興町强盜事件

미궁(迷宮)으로 드러간지 오늘째 만다섯째를 맛는 대흥정(大興町)중국사람채소장사 두종적(杜宗積)의 집에 드러갓든 세사람의 복면강도들의 종적에대하여는소관룡산、리점서대문두서에서는물론 부내각서에서 서로다투어복잡으려고 활동하는한편 각서가모다 이재껏 용의자들만검속해노코무슨단서를 잡으려고 애쓸뿐이다 이와동시룡산서에서는 새로전임한 부전(富田)경부주임 이하 사법 고등각계의 형사들이 거지반 칠석을잇다시피하고 혈안이되여 맹렬히공덕정(孔德町)부근을 중심으로하고 활동을계속하는중이다。 그서수사대가 지난번 현석정(玄石町)으로부터 마포정(麻浦町)으로 그리고 이번엔다시 공덕정쪽으로 수사의그물을 바꾸어처노코 애쓰는것을보면 범인들이 이쪽으로다시이동되여 잠복되것이나아닌가 어제는 바람을 잡엇다가 오늘은 그림자를 나꾸는듯한 경찰의 활동은 날이지날수록 부민의 주목을 끌고잇다

各地에 黃蛾禍!

【長湍】근년희유의한발로 인하야 장단군(長湍郡)지방의인심은 큰 불안중에 싸이여잇는데 설상가상으로 근일보지못하든 노랑나비떼의 습격를바다 군민남녀로소를물론하고 두드러기병에 걸려서 상중이라는데 이황아(黃蛾)군의출처는 아직미상하나 밤이되면등비습조차 떼를지여 사방에서 란무를함으로 누구나 한번마살에 접촉하기만하게되면 고만당장에 가려운징이 발생하야 어지할바를몰으도록 신음하고잇는현상이다 이황아의떼는 농촌방방곡곡에 산재하야 그독에 걸린사람이 현재 군민전부라고하야 과언이아닐정도이라한다

【坡州】파주지방(坡州地方)에는 요사히 노랑나비라는 독종의 나비떼가 발생되여 군내주민들은 일대수라장을 이르고잇다는데 그노랑나비는 나제는 볼수업스나 밤만되면은 환한곳을따라 무수히습래하야 사람에게 그나비의가루가 닷기만하면 그즉시로 그자리가 콩알만큼 룩룩뛰어오르며 몸이가렵기시작하야 나종에는 못견디여 어린사람들은 몸부림을 할지경까지 이른다는바 그호독한나비로인하야 두드러기환자가 수천명이나 발생되여 일반은 저녁만되면 크게불안중에 차혀잇는데 그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함은 물론 온천까지 가는사람들도 만타는바 그효과

橋南町에 交通事故

십사일 오전열한시 사십분경에 서내 교남정(橋南町)일백사십번지 압헤서 신병룡(申秉龍)(二〇)이가 운전하는대양(大洋)『택시』자동차에 시내 홍파정(紅把町)일번지에사는 김씨(金氏)(六〇)라는안로인이 네살먹은 어린아이를 업고 전차길을건너가다가부딧처서 전치약이주일을 요할상처를 입엇다

豪遊運轉手 留置場行

강원도 양양군양양면 남문리(襄陽郡襄陽面南門里)칠십오번지 자동차운전수 김개동(金价同)(三〇)은 십사일저녁 고향친구인 시내 종로오정목이백사십이번지삼회 써ー비쓰 직공심상회(沈相熙)(三〇)를 차저와 종로오정목이백사십번지 림선녀(林仙女)의 내외주점에서 아홉시부터 새로한시까지 칠원각수의 술을기운조케마시고는 그집에잇든 고뎌돈을 뺏을뿐아니라 그집에있든 고뎌돈에게 폭행을하다가 드되여동대문서에류치되엿다

西鮮電氣信川에送電

서선합동전긔주식회사(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에서는 황해도신천군(信川郡) 북부면(北部面)과 로월면(蘆月面)을 영업구역에너허서 위선그곳에잇는 동양척식회사(東拓)의 농장에 물푸는동력(動力)으로 약륙십『킬로와트』를 공급하는동시에 북부면에전등 약이백등을 공급하기로 되엿는데 이여름안에는 공급을시작하게되리라한다

市內의 水道供給量

아직은 念慮업다

昨年보다 供給量이 增加된것은 人口增加와 土木工事의 關係

경성부민의수도사용량은 금년에들어서 작년과비교가 안될만큼 늘어서 일시는 경성에도 식수긔근이 미치지안흘까하는 념려조차잇섯스나 최근까지의사정으로보아 그리긔근상태에는 빠지지안흐리라는관측이 서게되엿다 한다 즉 경성부수도의공급량은 사용호수 약륙만호에대하야 하로사만오천오백립방미돌인데 작년은 팔월상순의삼만팔천팔백십사립방미돌대를 오르내리엇스나 금년은 류월초순에 벌서삼만구천오백여립방미돌로 작년의최고긔록을 돌파하고 동십이일에는 사만일천오백여립방미돌로 올라가서 동이십륙일까지는 거이련일까지 작년최고긔록을돌파한공사만립방미돌을 넘친날이 팔일간이나되고 칠월에들어 가서는 다소사용량이줄어지며 상만팔천립방미돌대를 오르내리엇스나 역시 대부분작년중의 최고긔록을 넘첫다 그중에서도 금년의 최고긔록을 지은것은 유월십륙일의 사만이천륙백십칠립방미돌이엇다 이로써보면팔월중의 혹서에들어가서어느정도까지사용량이 다소 더 늘기는한다해도 사만오천오백리방미돌의 공급량으로서는 충분히 공급할수잇스리라고 수도당국에서는 보고잇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이가티 수도사용량이 늘어나간것은 인구의 증가와 신구역에 공급이 늘어진것외에 일반토목공사들이 만허진관계도 잇다고한다。

背反女에 赤信號!

妻家에불질으고 自己도飮毒自殺

녹쓸은夫婦愛의悲劇一幕

열두해동안이나 가리 살아오든안해가 배반하다고 처가에 불을 부치고 자긔는 독약을먹고 죽어버린 성미급한 사나히가 잇다 시내 원남정일백칠십륙번지 김종호(金鍾浩)([illegible])라는 로인은 열두해전에시내 훈정정(薰井町)일백이십팔번지 리기홍(李基弘)의 둘재딸한 중선(韓重善)([illegible])과 인연을 매저 여래까지 가티살아왓는데 일개월전에 안해는 불평을 품고 서로갈리여 그의 친정에 도라가버렷다 그러나 남편은 그를 자나 깨나 이즐수 업서서 수차 차저가서 도루가리 살자고 간청하엿스나 한번 도라선그안해는 전연 응하지안햇다 그래서 마침내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십사일 오후 한시에 처가에가서 불을 커부첫다 다행히 그집 사람들이 발견하고 무사하엿스나 그는 그길로 곳 쥐잡는약을 먹고 신음하다가 그날저녁 여섯시에 시내창신정(昌信町)일번지 김진태(金鎭泰)의집에서 죽어버렷다

中部는曇天만繼續

三南은豪雨滂然

洛江下流는벌서洪水警報

仁川觀測所發表

【仁川】중부지방의 한발은그저도가혹심하야 실로그현상은참담한형편이나 무심한 창공은 유족한상남지방에만 비가나리고중부는여전히 한발이 계속되고잇다 이제인천관측소 발표에의하면 현재일본동방 태평양(太平洋)상에 칠백륙십이『미리』의 고기압이 정체되야잇고 조선해협(朝鮮海峽)에는 칠백오십이『미리』의 저긔압이잇서 남조선에는 작일부터 호우가나리고잇고 만주(滿洲)남방에 미미한 저기압이잇서 북부지방에도 약간의비가 나리고잇슴에불구하고 중부는 의연한발로 비올가망이 전연업다한다 발서락동강(洛東江) 연안 하류(下流)에는 발서범람(汎濫)의 우려가 잇다는데 비는 오늘로써곳칠곳하나 금조륙시까지의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한다

▲釜山 一三〇미리▲蔚山 六二미리▲大邱 一六미리▲全州 一〇미리▲木浦 三七미리▲淸州 七미리▲秋風嶺 一〇미리▲中江鎭 一五미리▲新義州 一미리▲仁川 一미리

黃海地方旱魃

萬餘町步廢畓

【海州】황해도지방에는 잇다금 일적천금의 자우가내리지안홈것이 아니로되 류월초순경부터게속되는 근년에듬은대한발(旱魃)은 날로심하여가고잇서 이로인하야 농작물에미치는 영향은피해정도가심한 평남(平南)과함남(咸南)을능가하야 전조선최고기록이란 참담한현상을보이고잇다 황해도농무과(農務課)에서는 방금도내농작물에대한 피해상황을 조사중인데 이에의하면 아직도 이앙(移秧)을 맛치지못한 면적이 제일문제중에잇는 신천군로월면(信川郡蘆月面)의 구백여정보를 필두로하야 황주(黃州)해주(海州)등의과라 군내의것을 합하면 실로이만륙천여정보에 달하는터로 이중 일만륙천여정보는 모밀(蕎麥)등의대작(代作)을 장려중이나 전긔신천군로월면의 구백여정보를비롯한 일만여정보는 대작조차할수업는처지임으로 폐농하는수밧게업다고한다 이일만여정보의폐농에의한 피해액이얼마나한수에 달하는가하는정확한수자는 알수업스나 도농무과의지금의예상액을보면 벼(正租)이십만석이 감소될것으로추정하고 한섬에대하야 십이원의단가를노면 이백사십만원이란놀라운거액에달하야 농어황해의대이상을이르키고잇다한다

◇寫眞은入京한 (上)東京留學生蹴球團 (下)同白友庭球團一行

留學生蹴球

十七日發載寧에

東京留學生 蹴球俱樂部員 一行十五名은 十四日에 大邱에서의 對戰을 마치고 今十五日 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 列車로 金在弘氏引率下에 入京하야 市內太平通 一丁目 奉三旅館에投宿하엿는데 一行은 十五日에京城OB팀과 對戰한後 十七日午前에 京城을떠나 十八日載寧、廿一日、安岳、廿三日 甕南浦、廿五日 平壤等地로 轉戰한다음 解散하기로 되엿다

白友庭球團

十七日藥專과對戰

東京留學生으로 組織된白友庭球俱樂部一行十一名은 途中大邱와 水原에서 戰運不利하야 連敗하고 昨十四日午後十時三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來京하야 公平町典洞旅館에 投宿하엿다 一行은 今十五日藥專과 對戰하고 十七日午後四時부터 藥專과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十八日엔 中等校選拔軍과 對戰할豫定이라한다

女子庭球代表伊勢에

來八月四日부터 열리는 第四回伊勢神宮全日本女子中等學校庭球大會에 出場할 京城女子高普及海州女高에서는 다음과가튼 日程下에各各 壯途에오르게되엿스며出場選手는 다음과갓다

▲京城女子高普=八月一日京城出發 韓貞順 林惠玉組 金鋼洪 李春瑞組

▲海州高女=來三十一日海州出發 崔貞淑 山邊組

開城庭協主催 個人庭球戰

【開城】來八月二日午前十時(日曜)開城庭球協會主催로 白水洞水岩山코ー트에서 第一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를 擧行하기로된바斯界選手들은 左記規定下에 만히參加하기를 바란다한다

一、申込=(1)期限 七月三十一日迄
(2)方法 官製葉書
(3)場所 開城東本町同會
(4)申込金 每組一圓
二、賞品=優勝者에겐 優勝盃及副賞 一二入賞에겐 往復車費提供

遞信軍을擊破코 海州庭球優勝

開城高青主催大會

【開城】開城高靑年會主催第三回全朝鮮庭球大會는 既報한 豫定과가티 지난 十二、三日兩日開催되엿는바 京鄕各地에서 十餘組四十名의 名選手들이 參加하야 熱誠을다하야 一大熱戰을 보혓스나 모다 惜敗하고 最後로海州庭球團과 京城遞信局과決勝戰에 對時케되엿는데 海州팀 金永俊 趙舜一兩君의 孤軍奮鬪로 優勝하얏다 이리하야 同日 六時에 會長林尙權氏로부터 優勝旗及副賞授與式이 잇슨후 無事終了하얏다

【海州軍】【遞信軍】
× (李錫三 李鳳善) 1……4 (松田 大友) ○
○ (金永俊 趙舜一) 4……1 (元大奎 朴鍾燁) ×
—第二라운드—
× (尹相元 金天命) 2……4 (李正國 孫觀星) ○
○ (金永俊 趙舜一) 4……1 (松田 大友) ×
—第三라운드—
○ (金永俊 趙舜一) 4……3 (李正國 孫觀星) ×

大邱서 一對一 無勝負

留學生蹴球團

【大邱】東京留學生軍歡迎蹴球戰은 十四日午後四時二十分부터 大邱公設運動場에서 全植暇氏審判下에 大邱軍先蹴으로 開戰한바 兩軍자못파인·프레이를展開하여 千餘觀衆으로하여금 熱狂케하드니 前半戰에 一對零으로 全大邱軍이 『리ー드』하엿스나 後半에 元氣를回復한 留學生軍이 또한 一골을어더 結局二對二無勝負로 마치엇다

留學生2 (2 0 : 1 1) 2大邱軍

【留學生軍】		【全大邱軍】
朴蔫	LW	白益壽
尹鱗崚	LI	李燦雨
朴仁哲	CF	金喜守
金大源	RI	朴鳳根
金明福	RW	李英培
金容瑞	LH	文鍾碩
金鄰山	CH	李桂傑
李熙洙	RH	金妙元
朱燦輔	LF	洪鍾七
金光善	RF	林鍾厚
崔孝成	GK	孟鏞海

運動界集會人事

▲全朝鮮아마추어拳鬪聯盟新任理事會는 十七日午後四時三十分 同聯盟事務所에서開催

▲金善周君(留學生白友庭球團引率者 中大生)入京次來社

▲柳海範君(同마네저、早高生)同上

▲金元鉉君(同委員 法大生)同上

名勝日附印 圖案을改正

체신국 에서는 부산(釜山)공주(公州)、신의주(新義州)의각우편국에서 사용하여오든 명승일부인(名勝日附印)의 도안을 개정하야 오는 이십일부터 사용하기로 되엿다

◇新藥落成 無料診察 校洞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獨房入院室完備 電光一七五二

天氣予報

槪況 低氣壓은 上海海上과 南朝鮮과 滿洲에잇는데 其勢力은 弱하며 高氣壓은 日本州、東海上으로부터 南日本에 퍼저잇다 滿洲는 개인편이만흐며 朝鮮은 大槪 흐렷스며 南朝鮮은 비가오고잇다 釜山에는百耗以上에 慶南가잇섯다 日本內地도 흐린편이 만흐며 來日도氣壓配置는 變하지안흘터임으로 흐린편이만흘것이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흐리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九度〇
同 最低 二〇度五
今日 最低 二〇度七
同 正午 二六度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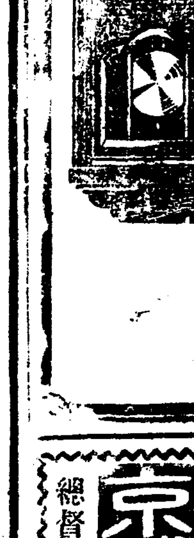
混合列車顚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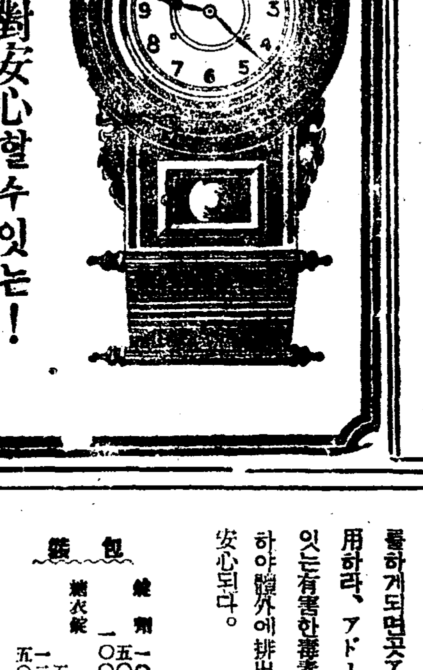
십사일오후여섯시 삼십오분경에 함북경성군(鏡城郡)내회문(會文)역 어대진(漁大津)간에 청진(淸津)발성진(城津)행의 혼합렬차가진행중에 탈선하야 전복하엿스나 다행히 승무원과 승객에는아무 이상이업섯다

マツダランプ
마 쓰 다 람 푸
マツダ眞空管
두가지자랑꺼리
照明向上二割를더하는 新マツダランプ
感度分離에明澄한 マツダ眞空管

元造製 東京電氣株式會社

Meiji
絕對安心할수잇는!
明治の掛時計
正確 時間 低廉 價格





總督府前 京城金弘塤內科醫院 內科チストマ토질十二指腸虫채독科專門 電話光三一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一一五九

流行期切迫!
여름은黴菌의繁殖이盛하야飮食物이腐敗키쉽고 또한寢冷等으로 배탈나기쉬워 赤痢와腸チフス コレラ等에걸니기쉬운때이다 이季節이야말로飮食物에細心한注意를하지안흐면、萬一腐敗된것을먹든지、흑은消化器가弱하야 消化不良하게되면곳アドース錠을服用하라、アドース錠은腹內에잇는有害한毒素와黴菌을吸取하야體外에排出함으로써가장安心된다。

傳染病
「夏から秋への衛生」冊子 無代進呈
包裝 錠劑 一〇〇錠 五〇〇錠 一〇〇〇錠 顆粒 一五〇 二〇 五〇〇 五〇〇
アドース錠 아 도 ー 스

販賣元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大連市山縣通 奉天加茂町 京城府西小門町

에몽므에洗粉!
二ードー洗粉 니ー도
그윽한여름밤! 목간은조용도하다 은근한二ードー芳香이 감을고감도는어玉肌

田中齊株式會社

二好水白粉
發賣元 京城 二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一七二番

◆氷河中에잇는 엘베레스트 世界最高峰이며 네팔國과 西藏國境에잇다 點線은 登攀루트

壯快無比한 山岳登攀의 實際 (三)

崔圭用

이것은 京城附近의 山을 例를들면 冠岳山은 그層片境의 單位容積이 적으므로 登攀이容易하나 北漢山 諸峰은 一個岩이 直立케 되고보니 登攀에 極難이잇다.

塊狀 火成岩에는 層狀岩과 如한 秩序잇는 節理를 볼수 업다 急激한 冷却을 바든 安山岩과 玄武岩 直線上에 柱狀節理(Columner, Joint)를 構成함이만타.

光州 無等山 山頂(瑞石標高一一八七메틀)는 柱狀節理의 標準이며 金剛山 萬物像等地도 이節理일것이다 이柱狀節理는 垂直岩隙이 만흔故로 比較的 登攀이 容易하다.

層狀岩은 顯著한 平行層節理가(Stratification) 그現狀이다 造山作用에 起因한 褶曲으로 傾斜된 斷層(Fault)이 往往히 巨大한 岩面에 露出되다 層岩狀은 主로 層의 橫斷面으로 오는側 이것을 順層(KoPfseit)이라하고 主로 層面으로부터 形成된 側을 逆層(RueKseite)이라한다.

岩層은 모다 規則的 傾斜와 方向(水平面이 層과 交錯하는線의 方向)을 가지고잇다. 또한가지 알기쉬운 順層 逆層의 區別은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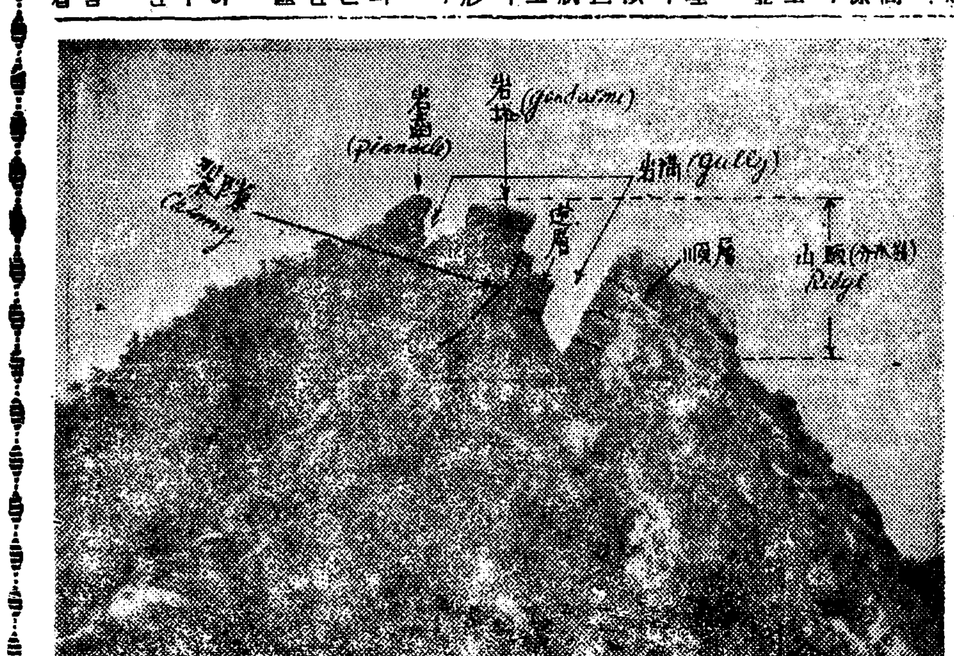
逆層은 그層線이 總히 外向하얏스므로 홀드 가어렵고 三十度以上의 傾斜에는 더욱困難한 登攀이 될때가 數多하다.

그러나 岩層線이 傾斜面보담 急한岩場은 오히려 登攀하기쉽고 홀드의 條件이良好하다 順層에잇서서는 그層線이 全部內向이니 良好한 홀드가되다.

岩腹에는 橫으로 흔히선반(Schicht Bond)이잇다 이선반이 山腹의 垂直平面과 水平的으로 交錯되어 잇는곳은 步道가 될수잇다 例를들면 北漢山 白雲臺山頂에 미처오르기前에 俗稱견단바위우에잇다 더욱이層狀岩의特徵은 岩層이 橫으로 移動하면 그層境에는 반드시 岩隙(친니)이 形成되어잇스니 이것이 侵蝕作用의 擴大附加에딸아큰岩隙과 岩溝를 맨들고만다

다음 片狀岩類는 古生代地層의 下部에서 地表에 露現될때까지에 一大褶曲을바더 그層의 傾斜가 强하며 內部의 分子排列은 大端히 弱하고 削剝되기쉬운 것이므로 이片狀岩은 큰獨峰이 드물다 岩石은 그形態 如何에 딸아 登山者에게 極重要한 것이니 登山者는 各種岩石에 여러가지 稱名을 부치엇다. 이제 그名稱을 大略記하려한다.

相當한 幅으로써 크게 屹立하며 直立에 각가운 岩壁을 胸



이상한상자

童話 (1) 宋昌一

엇던조고만산골에 순남이라고 하는 아이가살엇습니다 순남이는 마음이 엇지착한지 동리사람치고 누구하나 순남이를 칭찬하지안는사람이업섯습니다

그러치만 불행하게도 가난하여서 남들이 단니는 서당에도 못가고 날마다 산에가서나무를 하여오지 안흐면안될 딱한형편이엇습니다

어떤무더운여름날 나무를지게에다 잔뜩진머지고 산을나려오는데 건

순남이는 외롭게흐르는 땀을씨치라고 그리크지안혼 강으로갓습니다

이강에는 오래전에 동리사람들이 힘드려노흔 나무다리하나가 노여잇는데 지금에는 다파랑하여서 한사람도 이다리로건너단니지안헛습니다

순남이가강을 훨훨건너고 막강물로뛰어드려가려할때 다리가끈어지는 요란한소리가 들녀왓습니다

바라보니 위험한줄모르고 건너가든 로인한사람이 그만물에 빠저 떠나려가고잇섯습니다

바레서김을매고잇든 농부들은 이것을보고도 모른척하고 일만 하엿습니다

「사람살려주!」

물에빠진로인은 물바그로 솟아오를때마다 살려달라고 웨첫습니다

이것을본 순남이는 위험한것도 모르고 급한 물결속에 뛰여드러 그로인을 구해냇습니다

그로인은 순남이아페 업드려서 무수히 절을하며

「이런 착한 아이가 아직도 세상에 잇섯구나! 저ㅣ 고약한 농부들은 보지도 안는데 칭찬하다!」하고 혼자 중얼대엿습니다。

로인은 순남이의 은혜를 기념하기위하야 조고만 나무로만든 상자를 등에 질머젓든 자루속에서 끄내주엇습니다。

「이상자는 보기에는 변변치 안치만 돈쓸일이생길때 가만히 상자를 흔들엇다노흐면 밋혜 돈닙구멍으로 금돈한닙식이 떠러질터입니다 상치안트록 조심하게 가지시요」이말을마치자 로인은 천천히어데로떠나가버렷습니다。

상자를 바든순남이는 나무짐을지고 집으로도라오는길에 소경거지한사람을 맛낫습니다

순남이의 발소리를들은 소경거지는 두손을벌니고

「나으리 한닙만적선하십쇼! 배곱파죽겟습니다 네나으리!」하며 허공을어르만졋습니다

순남이는 가련거지를 엇주고 소경거지의가엽슨모양을 나려다 보앗습니다

「아! 불상도하다 소경된것도 가엽슨데 또 게다가 밥어까지 먹으니……」

갑작이 순남이의무슨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돌앗습니다 순남이는 조끼주머니를 만저 보앗스나 일전짜리한푼도업섯습니다

「엇지하나!」

순남이는 궁리하든끄테 로인이주고간 조고마상자를 생각하엿습니다

「로인의말과가티 돈이나온다면 이런경우에 써야올흘거다」

이러케 생각한순남이는 자게 예전든상자를 나리워 가만가만 흔들어보앗드니 밋헤뚤닌구멍으로 금돈한닙이 떠러졋습니다

금돈한닙을 바든 소경거지는 꿈이냐 아니냐하고 깃버날뛰엿습니다

「여보십쇼! 이돈을 정말주십닛까? 네?」

「정말드리고말고요 어서바더두십시요」

「아이구참 고마우양반도잇습니다 잘쓰겟습니다」

소경거지는 허리를굽혀절하며 엇절줄을몰랏습니다

하면서 집으로돌아오는순남이는 매우상쾌하엿습니다 상자속에서 나오는돈으로 그리구 차하지안케지낫습니다 상자를 흔들기만하면 금돈한닙식이 떨어지는줄을 순남이가모르는바는아니지만 본래욕심이업는지라 하로한닙박게는 떠꺼내지안헛습니다

라디오

十五日(水曜)

◇午後六時卅分 童謠兒童劇(一) "달나라" 二景

配役 英順……金順姬 京子……吳貞根 사냥군……韓東熙 어미토끼……李玉珠 새끼토끼……金仁洙 구름……朴容世 꽁기……金健成 물……崔淳根 달나라王……張性煥

指揮 버들피리會 效果 太成均 伴奏 버들피리伴奏團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一)「대롱과生活」 李一

◇同八時 講演「高麗盃이야기」 佛專 朴允進

◇八時三〇分 째스音樂 一、키쓰 風雨 二、블루-쓰의 뻬드 三、쪽스‧트롯트 코펜하-겐 四、슬로-트롯트 우리들의 룸-무- 五、탕고 라쿰파르시 六、쪽스‧트롯트 따이나 七、同 니가사끼

◇同九時 音樂「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 "櫻草" 柳寶成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講座 山本修二

◇午後零時五分(東) 佛敎音樂 獨唱 樫原國立 合唱 佛敎音樂協會聖歌隊 伴奏 小松清

◇同六時(東) 이야기 松永正雄

◇同七時三〇分(東) 趣味講演

◇同八時三〇分(東) 長唄 都賜之助外

◇同八時五〇分(東) 舞臺劇 市川三升外

十六日(木曜)

◇午後零時五分 하와이안기타- 一、카‧아노이…킹作曲 二、미키‧말리…카할리作曲 三、「깔리노파이-」…카미作曲 四、와일라나말리이…카미作曲 五、마히나알스… 六、하와이안쿠-라‧메들리… 七、호놀룰루의달… 八、카메하메하…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冷水와保健 李在鶴

◇同六時三〇分 童謠兒童劇(二) "달나라" 二景 配役—

달나라王……張性煥 指揮 버들피리會 效果 太成均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二)"植物採集" 李德鳳

◇同八時 講演 "東西貿易의" 金庠基

◇同八時三〇分 달거리外 一、달거리 二、적수단신 三、매화타령 四、리별가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락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李漢紅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그女子의半生」一景 九曜…張河淑 밀리…朴永多 以珠…白英嬰 觀洙…朱泉玉 작크…張甫祐 演出 張石海 效果 李메리

◇同九時三十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白鷗詞 金花香 金蘭珠 大笒 金永根

第二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零時五分(東) 레뷰

◇同六時(東) 이야기 松永正雄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野村修德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二分(東) 寄席 劍戟物語 谷夫郞 神田立花亭서中繼

十七日(金曜)

◇午後零時五分 긴念佛外 一、긴念佛 二、자진念佛 三、변調난봉가 四、방아타령 五、경복궁타령 六、漢江水打鈴 田紅桃 金錦心 姜錦洙 細笛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무엇이든지決心이第一" 黃信德

◇同六時三〇分 管絃樂 DK管絃樂團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昆虫採集" 李軒求

◇同八時 講演 "伏이야기" 徽文高普 權惠奎

◇同八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八時四〇分(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南漢山城 二、唱劇調 宮歌 朴初月 鼓手 丁元根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라디오‧스캣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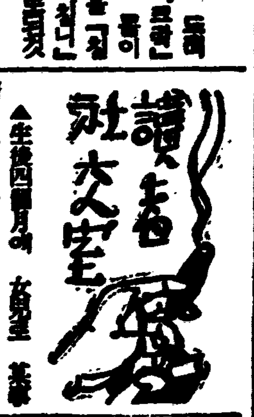
◇同六時(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浪花節

◇同八時(名) 浪花節

◇同八時三〇分(東) 歌謠曲

◇同八時四〇分(東) 管絃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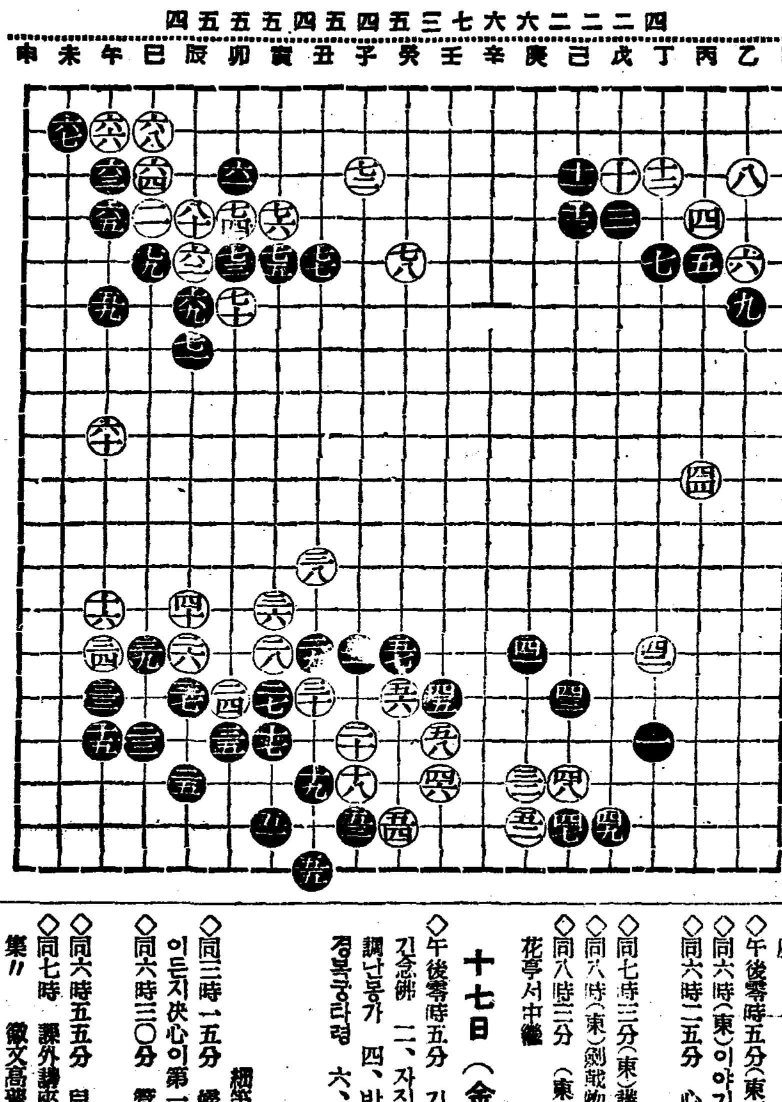


圍碁對局譜 ＝5＝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先 擂秉郁



蔡極文氏評曰 黑은 午未四五耳角을 完結하고 白은 寅卯三三邊陣을 構成하니 互相對峙에 別無差等이다 時局形便도 均衡으로 難解하니 優劣續實은 第先으로 可히 辨斷할지라 手腕如何를 逐次一覽이어다

曆

七月十六日(木) 舊丙子年五月大(廿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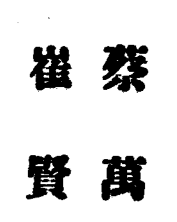
己亥‧木‧井‧寒

●夏至(二十一日 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보리방아 [十一]

小說 蔡萬植 作 崔貫郁 畵



면장은 커다란 사무상앞에 회전의자에 대롱대롱 매달려안저 결재서류를 뒤적어리며 도장을 꾹꾹 찍고잇다

그는 면장(面長)이라는 면장 보다도 나정이를 면해다는 「권장」이라고 날름이 면장면장 하는만큼 키가 적엇다

그러나 그는 키가 적은것을 조곰도 마음에 걸려하지아니하엿다 도리어 친구들이 키적은 것을 조롱하면

「조선은 소국이라 키적은사람이 속을차린다」

이 속담을 인용해서 점잔스럽게 되받아 씨우군햇다

사실로 그는 속이며 하는짓 이 매치고 모저 앙큼하니 영악햇다

사십이 넘엇스되 잔주름하나 생기지아니한 쿨쿨하고 되바라진 얼골이나 꼬집어도 뜯어도 가리적되 새깔하니 도렷도렷한 눈이 미삼들 정력과 야심을 뭉처노는듯이 뵈엿다

그러나 그는 키적은 고통이 꼭 하나잇섯스니 면장실의자기 자리에 안저잇슬때다

그는 보통 두발이 마루바닥에 닷도록안저야 회전의자를 좀 나추어야할린인데 그리하면 사무상이 럭에가 바치게되어야 이 칭피할뿐아니라 일도 하기가 불편하고 더욱이 사람을 대할적에는 도모지 위엄이 서지 아니하게된다

그래서 한 꾀를 고안해낸것이 즉 회전의자를 훨씬 돌려 노퍼가지고 발은비록 대롱대롱해도 사무상위로 윗몸통이는 웬만큼 솟아보이게 한것이다

오늘도 그럭게 하반신을 카무프라주하고안저 결재서류에도장을 눌느면서 태호가 작변에 가물로 흉변이들고 또 곁해서 보리흉변까지 들어 녀롱의 농량 대일것이 업다고 궁상을 피어가며 죽 늘어노는이야기에

「응 그래서……」

「허! 그러면가?……」하며 건숭으로 코대답을 하고잇는판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태호가

「――그러니 면에서 내어주는 저리농량에서 나락을 두섬만 장리로 주어야 살겟다」

고 말을 맷자 면장도 마주마 도장을 놓는 서류봉지를 칩사 바구니에 집어너이고는 고개를 들어 사무상 건너에안즌 태호를 마술로보면서 자기 키보다도 커보이는 한숙선을 척 펴가지고 오셧이 부채질을한다

「응? 나락 두섬을 달나구?……」

「응 두섬만 꼭 주어져야 허겟수만……」

태호는 어떠케 해서든지 조곰이라도 우슴지도아니한때 웃는 표치를 면장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는 면장과는 나하도 귀보를 맛나혀요 또 다가다 세교가잇는 소위 밤이(勝名)하는 정인의 끄트머리라 맛 허우를 하기는하지만 그래도 태호편이

「――주어져야――」

라고 노펴주는말을 섞거 쓰는 것이다

면장은 태호가 무슨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안는것처럼 우둑허니 바라다보고 잇다가 갑작히

「자네 옷이 그게 무언가?」

하고 아주 걱정스럽게 뭇는다

이말이 왜「새옷을 입지아니햇느냐」는 나물하는것은 빤한속이다

태호는 숫이 제절로 뒤로수로 올라가면서

「글쎄여서……처 정말은 이러케 누-러컴네 개찬험들 알엇더니……히」

하고 게면쩍게 웃는다

「그래두 재미업지! 더군다나 자네는 진흥회원이지……이러케와 구가서 못스까?」

「허허!」

면장은 음전스럽게 걱정을 하고 잠시 까딱까딱 생각을한다 그래 태호가 짐짓 민망해하면서

「못쓰것스면 차라리 회에는빠지구 말생각이듸?……」

하니까 면장은 얼른 고개를내 흔들면서

「그리서는 더 못쓰지……가만잇자 시간이……」

하고 시계를 끄내보다가――

「네시가 다 되엿는걸……집으루 도루가서 바꾸어입구 올 새두 업구만그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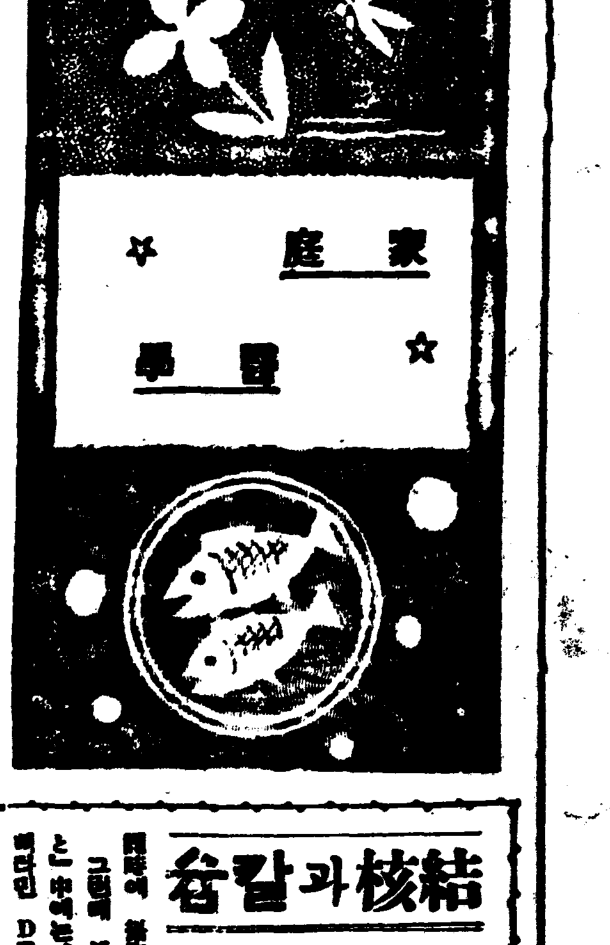
「그럼 어떠케허까!」

「할수업스니 오늘은 그냥 서허구 이담에는 아예 그러케 입지말소 내가 꼭난 란밥이여!」

생각지아니한 난판을 맛낫다 가 다행히 무사히 피어는 낫스나 그것때문에 정말 요긴한 이야기가 후지부지 될가버서 태호는 속이 조엿다 그래 다시 이야기를 내이려고 입을 달막어리는데 면장이 그눈치를채엿든지

「그러구 아까 말하든 나락은 거 안되것네」

하고 아무래치도 안케 가다루를 치려하다 아까 태호의 옷을 잘못한것은 그 복선(伏線)이엇든것이다



最近에注目되는 結核과血液과의關係

◇……病竈에集結하여菌을 壞滅식히는白血球의作用……◇

結核에 直接效果잇는藥이업는가、療法이업는가――하는말은結核病인는구먼지 一時는 願하는바이며 더욱 經過가조곰이라도 조치못하면 갓득히 이런生覺이 甚하게되는것이다。

그러면 現代에醫學은 이것에 對하여 엇더한解決을주느냐하면 結核病의原因인 結核菌은 他病細菌과는달라 膠子囊이라고 부르는頑固한

臘樣皮膜에덥히여

잇슴으로 이것을 侵透하여直接菌을 殺滅식히는것은 藥劑의힘으로만은 거히不可能하다고말하고잇다。

그러나、結核菌은血液中의白血球에는比較的影响한菌인고로白血球를增殖식히여喰菌作用을旺盛식히는것을諸器官의組織細胞의機能을금히여 全身에侵潤한結核菌의毒素를解消식히는것이 가장自然에適合한有效한結核療養의 조흔方法이된다

이白血球가如何히結核病竈에서作用하느냐하는데對하야지금까지專門家의사이에種種研究하여왓스나最近長崎醫大竹內博士가詳細한研究를發表하엿는데그것에依하면、

結核病竈에는特히

多數의白血球가 集結하여잇슴으로 이것을白血球性病竈라고도하고 이病竈이적은狀態의時는(例하면鼷鼠)動物은 結核菌에對하여 甚히抵抗力이弱하고 또結核의勢力이弱할수록 白血球의集結이多數인것을 認定할수잇다

따러서 白血球의集結이 多數인것은 그만치結核菌에對한抵抗力이增大되여잇는것이며 白血球는 侵入이感은病竈를 包圍하여 結核菌을 消失식히고만다

이러한白血球는 侵入한結核菌에 集結하여이것을 喰菌할것으로 이作用은 衰弱한 組織細胞를 更生식히는 賦活作用과가리結核에 對한抵抗力을 形成할것을 現在結核治療法과의 關係라할 만치되엿다

이意味로부터 新生이란 식히여 結核과 治療가 自然促進되는것이다

白血球가現著히增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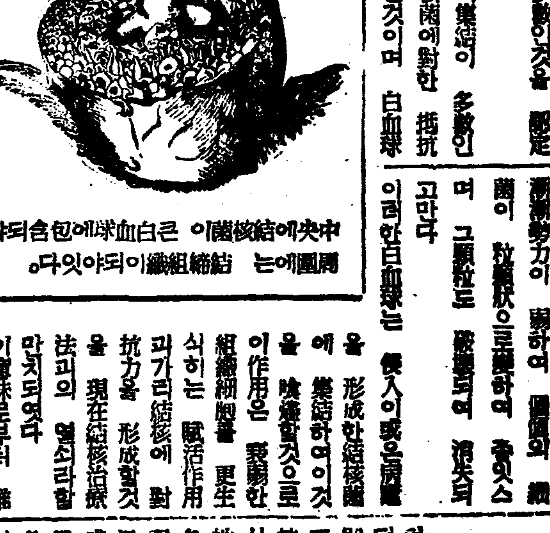
하여잇서 中에는服用前 一五、二三이 服用後에는 七二、二一된것이 四倍에 達하엿다는報告가잇다

또는 錠劑わかもと는 中구리고괸은活菌의 消化酵素를 助長하여 다시 全身의 營養을 旺盛하게하여 活潑하게하고 消化와 食慾을 增進식혀 抵抗力을 增加식히는것이다

結核과 칼슘

結核에 잇서서 칼슘의 必要가잇다。

그러면 칼슘劑—例하면 「錠劑わかもと」에는 비타민D를 含有하여잇슴으로、이것을 服用하면 칼슘이 體內에 吸收되어 抵抗力을 增大하며、結核의 治癒에 效力이 잇다。



結核의病竈大想像圖

結核菌이中央에잇는白血球에包含되어잇다 周圍에는結締組織이되어잇다。

幼兒의結核은 대개潛伏性입니다

★이러한幼兒에게는注意

結核死亡者를年齡으로보면、男子는二十歲로 二十四歲、女子는十五歲로二十歲까지의사람이 第一多數를占하고잇습니다만은 그經路를보면、二三歲의幼小兒期에걸인潛伏結核에依한者가 約八〇%라고합니다。그리고그感染率은、生後六個月에벌서 百人中 二人으로十人、一個年以內의 幼兒로 百人中 三人으로十五、六人은 결核이抵抗力의弱한 幼小兒期에 걸려잇다 이것을보드래도、如何히結核이 抵抗力의弱한 幼小兒期를 노리고잇는지알수잇슬것이다。

發病

幼小兒의結核은、大人과달라、直接肺臟을 害치안코、肺門部의氣管支淋巴腺에 潛伏하여가、여기서오래동안潛伏하고잇다、體力의衰弱된때、麻疹、感氣와消化不良、痲疹等의病에依하야抵抗力의衰弱된때에 活動을비롯고소肺와肋膜等에 빠저나가게됩니다。

그럼으로 이肺門淋巴腺에 潛伏되고잇슬동안에 退治하지 안되지만 이潛伏性結核으로도가게됩니다。

그리고 이藥에는、삐타민B、리진、히스치진等의 發育促進素도含有되어잇슴으로、이것을먹으면、結核菌에 도걸리지안는 튼튼한體質을 만들어 發育도促進시킴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에、わかもと本舖榮養과育兒의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로부터 三百錠入、千錠入의二種이 一日分錢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 廉價로 發賣되고잇습니다。

療法體驗談

肋膜炎에 腹膜炎도併發

(神奈川) 黑田秋子

저는 昭和八年三月에 腹膜炎에걸엿다、그런데다가 肋膜도낫버서 入院하엿다、한두個月쯤지나 他人과가티 일할만큼되얏、퇴으나기때하엿다、또 三個月쯤지내서는、發汗이나고、食慾도나지안코、每日熱이 三十度五分쯤식되야、醫師에게 診斷식혓드니、腹膜과 肋膜이 再發하엿다、하기에、오직 恐怖뿐이엇다。

(中略) 어머님親舊의 親友가와서하시는 말이、自己의 夫도肋膜이낫버서 「錠劑わかもと」를 먹엇드니 特效를보앗다하기에、服用하엿드니 얼마안되어 發汗과 熱이 퍽減하엿다、처음에는 그러케別생각가업시 服用하고잇엇다。(中略) 그後繼續服用하고잇다。그後分으로는 食慾이 늘어 元氣도 完快되엿다。

適當

한榮養을취하면 養히 낫지만、「錠劑わかもと」의榮養이 消化를 도와 結核患者에게 適用되는 것은、生物學的이라、榮養的이어、抵抗力을 增大하기때문이다。

◇發汗이나고、저녁때에 조곰熱이 나며 감기가 잘든다。
◇顏色이 蒼白해진다
◇身體가 말르고、食慾이 減하여진다
◇疲困하기쉽고 元氣가업고、食慾이 減해진다。

이러한 初期의 徵候이니、이때에 注意하여 卽時로 治療를하면 回復이 쉬운것입니다。

掛圖寄贈引換券を 御活用下さい

小學敎育助成을위해 優秀한敎授用 掛圖一百萬枚를 小學校에寄贈

「わかもと」二瓶마다 「掛圖寄贈引換券」이 一枚式 드러잇스므로 이것을 各小學校에 寄附하시면 그引換券 十枚에對하여 掛圖 一組를 寄贈합니다。

定州地方紹介版

史上에 빗치인定州는 洪景來의 千秋의 恨을품고 戰하든곳이며 近年에는 甲午甲辰戰役에 日本軍의 大勝捷地로서 天下에 알리워진곳이다 最近 令有에至로 發展하는 資本主義社會의 갈등속에 미근 定州는 特히 地理上重要地點에 處하야 平北南部의 重要大都으로 産業의 發展과 文化의 向上이 寔로 놀날만한 形勢로 進展되얏스며 人材의 輩出은 古今을 通하여 有名한 地方이다 그러나 定州에 新聞支局設置의 歷史가 잇슨지 十五六年間에 一次도 定州의 諸般狀況을 滿天下에 紹介치못하엿슴을 遺憾으로 생각한 弊支局은 今般奮然的으로 定州地方紹介版을 發行하여 내地方發展에 一助라도 될가하는 報鄕主義下에서 敢히 此版을 發行하려고 着手한바 郡民有志諸氏의 積極的後援下에 順調롭게 進行되여서 今般의 定州紹介版으로써 貫徹的으로보아 全朝鮮에서 斷然最初의 成功을 보게되는 光榮은 郡民諸賢의 厚意인것을 感謝하여 마지아니하는바이다

定州支局 金正明

沿革

本郡은元來高麗朝에잇서서는 隨州라고 稱하엿지만 其後에定遠 烏州等으로 改名한바잇엇고 李朝太宗大王十三年(西紀一四一三年)에 隨州라고 改名하엿다가 其後世宗大王十二年(西紀一四三〇年)에 定州라고 稱하게 되엿는데 一時는 定原이라부른 때도잇으나 再次定州라고 改稱하고 東部 西部 南 東州 高古介 德達 伊彦 阿耳浦 五山 葛池 古邑 馬山 海山 西院 雲田 大明의十六面에分하야 州治를行하얏다 日韓合倂後 郭山郡의 一部를倂合하여(大正三年三月一日)此를 十九面에分하엿다가 昭和十年三月一日面廢合을 斷行하야 高峴 東州 新安을 高安面으로 德達 阿耳浦 伊彦을 德彦面으로 南西를 南西面으로 臨海 海山을 臨浦面으로 合하여 現今에는 一邑十二面으로 行政하고잇다

◇位置◇

—經度의極點—

極東	大田面西江洞	一二五、二七
極西	安興面好峴洞	一二四、五七

緯度의極點

極南	葛山面艾島洞	三九、三一
極北	高安面龍浦洞	三九、五〇

地勢

本郡은 平安北道의 西南端에 位하여 東은 大寧江支流加蘇江을隔하야 博川及泰川郡에接하고 西는 東來江의 流로界하엿스며 南은 黃海에 面하엿는데 其一部는 淸川江을挾하여 安州郡에 對하고 北은 高峴嶺 太白山脈의 餘脈으로서 東北部에 山岳이 起伏하여 地勢는 大陸性 高原을 形成하엿고 西南은 平野가 展開되얏다 全郡을 보기드믄 沃土가잇서 本郡은 農産物이 豊富하다 東西百里 南北

◇氣候◇

平均氣溫	約十度
最高極溫	四十一度 (大正八年八月八日)
最低極溫	(一)三十三度 (昭和二年一月廿一日)
平均年降水量	約千百粍
平均年降水日數	九十四日
平均年蒸發量	約千百粍
平均年日照時間	約二千四百時間
平均霜雪季節	
初霜	十月十日
晩霜	四月二十一日
初雪	十一月十七日
晩雪	三月二十五日

—人口—

邑面別	戶數	人口
定州	二、一一〇	一〇、六一八
高安	二、六五三	一五、一七五
德彦	二、九二七	一六、八〇四
馬山	一、八〇二	一〇、〇一三
大田	一、四一六	七、五八三
古德	一、六八一	九、五二〇
葛山	二、五五七	一三、三四七
南西	二、二七八	一二、七一〇
臨浦	二、三七七	一三、三八四
郭山	一、五六七	八、一四一
觀舟	一、一五三	七、〇七九
安興	一、二八五	七、一七三
玉泉	一、九九九	七、五八九
計	二五、〇九七	一三九、二六六

◇定州市街全景

—各官公署—

(昭和十年度調査)

定州郡一 定州警察署一 新義州地方法院定州支廳一 定州稅務署一 定州郵便局一 郵便所四 驛四 機關區一 保線區一 平北農事試驗場一 穀物檢査出張所三 定州邑事務所一 面事務所一二 警察官駐在所一七 小學校一 普通學校一五 簡易學校三 定州郡農會一 學校組合二 水利組合二 漁業組合三 金融組合五 朝鮮商業銀行定州支店一

交通及通信

—各驛의貨物數量及 乘降人員—

◇定州驛

貨物發送數量	二〇、八三八屯
貨物到着數量	四六、二八九屯
乘車人員	一二七、一〇九人
降車人員	一二八、四七三人

◇郭山驛

貨物發送數量	六、四七五噸
貨物到着數量	八、八六七噸
乘車人員	七一、八六八人
降車人員	七二、二四五人

◇古邑驛

貨物發送數量	一一、八五七屯
貨物到着數量	一二、六八六屯
乘車人員	七七、五六二人
降車人員	八一、四〇八人

◇雲田驛

貨物發送數量	一〇、一七三屯
貨物到着數量	一〇、二二七屯
乘車人員	五二、九五五人
降車人員	五三、五二二人

(以上昭和十年度統計)

▲定州郵便局

◇通常郵便物

引受	一四五九、四六七通
配達	一四二九、九八九通

◇小包郵便物

引受	三六、八三六個
配達	八一、七二二個

◇郵便爲替物

振出	三〇三五〇八一五錢
拂渡	三五二一七二二二四錢

◇電報

發信	一七八〇四通
着信	一六七九〇通
中繼	三一〇六八通

◇電話通話度數

市內	七七〇、七九六度
市外	九、四八一度

▲郭山郵便所

◇通常郵便物

引受	一九〇、六六六通
配達	二五七、九〇五通

◇小包郵便物

引受	六〇〇個
配達	一五二〇個

◇電報

發信	三四六三通
着信	四、六三八通

▲古邑郵便所

◇普通郵便物

引受	二三五、四一六通
配達	三七〇、三七七通

◇小包郵便物

引受	五二九個
配達	三、〇四一個

◇電報

發信	四、一六九通
着信	五、九二五通

(以上十年度統計)

(雲田 淸亭郵便所는略함)

—教育—

定州郡은 全朝鮮에 地方보다도 子弟教育에先覺하여 新文化를 먼저 輸入한文化地이다。이제定州郡의 一邑十二面에比한 初等學校施設을보건데 公立普通學校 一五 小學校 二 私立學校 一、私立學校 六 簡易學校 三 書堂 七七 以上으로서 이에收容하는兒童數는 一萬一千卅四名인데 이제未就學兒童數를調査하여보건데

六歲	四、六〇九名
七歲	五、九七七名
八歲	四、七五六名
九歲	四、〇四九名
十歲	三、七六九名
十一歲	四、六二七名
十二歲	三、八四〇名

以上總計를合하면 三萬一千六百卄七名이다 其中에서一萬一千卅四名이就學한兒童이니 남어지二萬五百九十三名이라는 大多數의兒童이文盲의 苦杯를맛보는 悲慘한地境에 處해잇는것이니 엇지識者로하여금 慨歎을禁케하랴 當局에서는 一日速히 學校設置及學級增設等을 斷行하여 文盲線上에서 울고잇는 可憐한 兒童들에게 就學의길을 開放하여 주기를 一般郡民은 熱望하고잇는것이다

宗教

▲基督教

明治三十二年(一八九九)에 西洋宣敎師의 布道로서 當時 劉尙道 崔寬屹 金時煥 崔羅林等人이 信奉을 始作하여 各地에 敎會가 建設되엿는데 現下敎會數는 三十處이요 敎徒數가 八千餘名에 達한다

▲天道教

距今四十餘年前 己亥年間에李讓洙氏가 鄭基南氏에게서 東學을 바든것이 定州의 天道敎創設의 始初이다。現下 十餘處의 布敎所에 五千餘信徒와 敎內各種團體가 健實히 일하고잇다

▲佛教

日本內地人敎會三處에 六百八十一名의 信者와 朝鮮人敎會 五個處에 八百六十名의 信者가잇다

金融機關一瞥

◇定州金融組合

組合員數	三、一七四名
出資金	二四、四八九、五四錢
預金高	一〇九、七九六、六八錢
同延人員口數	一、六五三口
貸出高	三五二、八一四、二八錢
同延人員口數	三、二二四口

◇定原金融組合

組合員數	六四八名
出資額	一六、〇〇〇圓
預金高	一四一、八八八圓
同延人員口數	二、四七四口
貸出高	一二八、四八七圓
同延人員口數	七五〇口

◇郭山金融組合

組合員數	二、七二四名
預金高	一二七、一九〇圓
同延人員口數	一、九〇六口
貸出高	三七一、〇八二圓
同延人員口數	三、二三七〇口

◇雲田金融組合

組合員數	二、八二六名
出資額	二一、〇〇〇圓
預金高	一五四、〇〇〇圓
同延人員口數	五、一七四口
貸出高	[illegible]
同延人員口數	一二、五八三口

◇淸亭金融組合 「昭和七年에古邑에支所設置한」

組合員數	一、八三三名
出資額	二一、九八四圓七〇錢
預金高	六八、〇二一圓六九錢
同延人員口數	三、五一六口
貸出高	一三九、五四二圓一一錢
同延人員口數	二、〇八六口

(以上今年五月末現調査)

各界人士橫縱談

社會史上으로본 定州의發展相

金偉濟

定州의最古地名은 隨州이엿던 邑誌에 但히高句麗時에廢址尙存이라하야 卽今의五山附近에서 城址를可驗이나 그러나 年代、地域、人口等도로지可考할수업슬뿐만아니라 各姓氏의 族譜를보면 畢竟李朝初에 實邊法을 立하야 移民奬勵한 그以後의移住民들이며 高句麗時代住民의子孫은 一人도업는것이 史實이다 高麗中葉以前까지는 人稀地廣하야 自然移住民과若干의土着民이잇기는잇섯스나 麗末國初에 大量의移民政策으로因하야 自然淘汰를當한것이分明하니 此가卽千古의有恨이되는것이며 定州城南門은 그雄奇壯麗함과 市街의偉觀으로 그 [illegible] 나 日當戰跡으로보아 東洋史上에光輝잇는 門標임에도 不拘하고 約二十年前에 郡行政의無謀한處斷으로 撤毀되는同時에 城內唯一의景致인 延薰樓까지 撤毀하엿스니 이아니 定州社會의羞恥이냐? 定州가古來로 關西에有名한것은 他道他地에類例가업는 文人科擧大科(及第者)二百九十二員 小科(進士)一百八員이 輩出한緣故이니 當時에生存한文官八十一人의 族譜를 記錄한 定州鄕案所에會席하엿든것은 그時代를 가장잘紀錄한것이다 現下定州社會의實相으로보면 內部空虛의感이 不無하니 定州邑이 西鮮文化의 重地이며 官營事業으로는 農事試驗場이잇고 또農村靑年訓練所가잇서서 定州邑의 體面을 維持하나 그러나 民間施設로는 文化經濟의 아무것도 (무엇보다도 公會堂及中等學校의施設이急務)보잘것이업스며 人物로는 在京活動의人物뿐이니 譬컨대 몰락한古家文人이外富內貧한것과 가튼것이다 그러나 古今을 對比하야 文化發展史上에 조곰도 遜色이업는事實을擧하면

一、舊時代에는 淸北十九州의士林都會所가잇서서 春秋로聯絡히 科擧를열엇는데 卽今에는 特히 五山高普校가잇서서 全鮮的으로 만흔人材를養成하고잇다

二、舊時代에는 三藥傑七義士六文章等幾多의 碩學名儒가輩出하엿는데 近時에는 李南岡先生가튼偉人이나섯고 또李光洙外多數한 著名의文士가나서 方今中央各界에서 活躍하고잇다

三、舊時代에는 公都訴訓長의墨印이면 平北十九州를呼令하야 士林風이 堂堂하엿는데 現時에는 方應謨氏가 朝鮮日報社長에在任하여 公筆의 權威를 잡고잇다 (寫眞은金偉濟氏)

定州의教育問題

篤志家의發奮을企待

鮮于熇

定州의 敎育問題를말하기前에 먼저 定州에對한 一般的不備와 不滿을 말하고십다。그어느것에하나이라도 現代에處한 郡民으로의 滿足이라고할바는 一個도업다고해도 지내치는말이아니다。現代人은 都市를憧憬한다 都市의背景이 農村이것보다 都市가農村의振興과 衰退를 左右하는關鍵이다 故로 都市의 施設이 不備不足하면 自然其郡民의 生活을 萎靡케된다。이제 定州로서 定州郡民이살기에 適當한 施設이 너무도업다。現代人은敎育을바더야하고 또한 敎育을주어야한다。都市는 醫療機關도完全해야하고 保健上으로 水道도必要하다。體育訓練과 一般的競技로보아 運動場도必要하고 公衆을爲한 講演會와 音樂會와其他適當한 會合을할 公會堂도緊急한 施設이다。以上것만으로도 아직은 定州에업다。이것이 定州人士의 恥辱의一이다。定州公普가 一千三四百名을 收容하고넘치는 兒童은 私立新安學校로 넘어간다。여기에도 三百名以上을收容할수업서서 그남어지는 敎育을바지못하고잇다。이新安學校를完全한學校로만들必要와 責任感이잇다。그것이 또한 目下의 當面問題이다 定州에는 三十餘年의 歷史를 가진 五山高普가잇서 자랑할바이나 한탄할歷史를 가젓다 그는너무나 自慢할가업다 그럼으로 定州邑의 發展과 子女敎育에잇서 밧고추는 事情이 너무나적다。平北第三位의 一인定州가 中等程度인 敎育機關을 一個도 所有치못하엿다 그아말로 名實共히 貧弱한都市요 衰退하여가는 郡邑이다 年年이 向上하는 南北의 敎育界은 [illegible] 金錢도 [illegible] 나와서 大學府가 建設되는 壯快한 消息을 우리는 보고듯는다 이 [illegible] 한 定州를 爲하야 한가지 두가지의 施設을 하여줄 篤志家 어느때 나오려는고? 이땅에 偉業을세우고 이땅에 恥辱을벗기고 이땅에 偉人이될 志士와 篤志家를 우리는 企待하고차는바이다。

旭日의勢이든 農民運動回想

金春億

定州에 農民運動이 始作되기는 己未直後이엿다 當時靑少年들은 新風潮에 眼目이 半開되여 『아는것이힘』이라는 標語를 부르지즈며 校門을두드리엿다 當時定州에는 農林實情에 通하고 現實을明察한 農民運動의先驅者 金公善 宋錫浩氏等 메메분의 發起로 小作會라는 名稱으로써 階級戰의 第一陣을列하엿스니 이것이 定州農民運動의嚆矢이엿다 該會는 德彦面 沉香洞에서 始하야 漸次附近에同志를 糾合하여 友誼團體를 組織하여가지고 郡聯合體를만들엇다 그리자 多年間無法한 惡地主에게 抑制되여오든 小作人들은 一齊히 小作會의旗幟下에 集結하여 小作爭議를일으키게되엿스니 箇中에는 痛快한 勝利를한적도 數三次만이아니엿다 其後京城에 朝鮮農民社가 創立되고 地方에 郡農民社가 組織되자 農民은 如水히 其旗下로 定州郡農民社 旗幟下에 集中되엿다 그리하여 農民大衆의 [illegible] 本格的으로 [illegible] 坊坊谷谷에 農民과夜學이 設立되엿고 大衆集會가 頻繁되며 民共生組合이 設立되여 [illegible] 定州農民運動은 [illegible] 定州農民의 全盛期엿다 그러나 [illegible] 이와가티 旭日昇天의勢로 發展되든 定州의 農民運動도 一大試鍊期에 逢着하엿스니 社員의 一部分子가 離脫하야 全定州農民社라는 看板을 別設하게 되엿것이다 (사진은 金春億氏)

樂土의建設에 一層邁進키를

定州郡守 田島泰秀

이번朝鮮日報社에서 우리定州郡紹介版을 發行하게된것은 本郡으로서 참으로 깃븐일인同時에 社會民衆을 爲하야 相當不斷의 努力을하는同社의 熱誠에 對하야 滿腔의敬意를表하는바니다 저는赴任後아직오래지 아니하야 郡內事情에도 通치못한點이 적지안습니다 따라서 말할만한 抱負도업습니다 마는 面積五十七方里 四萬町步에 達하는 膽漠한 田畓、海岸線三十二里 渺渺한바다 물을바라볼때에 天然의 資源이 豊富함을 生覺하고 蒼生十四萬의 이淳朴之風과 質實之氣에 接할때마다 前人의 功德을 感謝하야 더一層郡民의 福利의 增進을 圖하는바가잇지아니하면 안되겟다고 스사로 마음에 맹세하는바임니다 近時上下가 다高唱하고잇는 農山漁村의 振興은 勿論이요 敎育의 擴充、水利交通의 整備及 水道의 設置等 生覺하야보면 郡으로서 하여야할 緊急한일만하드래도 決코 적지안슴니다。그래서 그어느일이든지 다 相當한 困難이잇는것은 勿論이올시다。그러치마는 困難이잇다고 이것을 이기지못하야 中途에 挫折하는것은 振興更生을부르짓고 至誠奉行을 信條로 삼는男子가 할일이 아니올시다。願컨대 全郡官民이 서로손을 잡고 協力一致하야서 物心兩面에 亘한 樂土의 建設에 邁進하기를 바라는바이올시다。

特殊團體及組合

關西私學의最高標幟 五山高普의發展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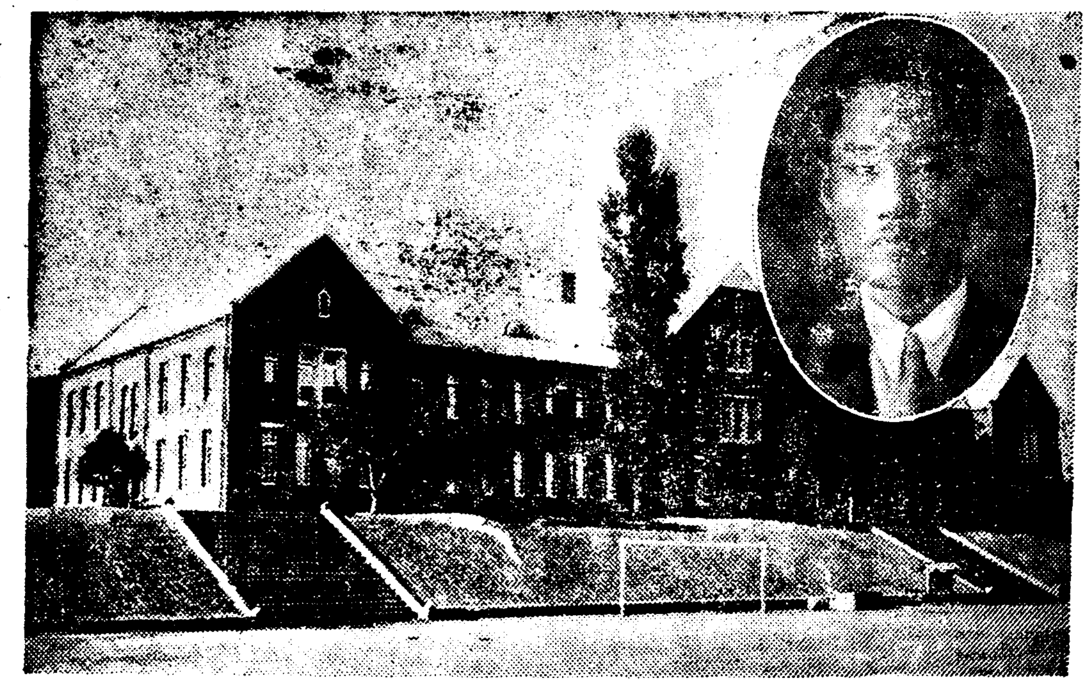
—時急한學級增設과大講堂問題—

定州가가진 關西에 잇서서의 私學의 最高機關인 五山高普는 二十이넘는教職員과 六百에갓가운生徒를擁하야 날로隆盛하는校運을마저 朝鮮教育에잇서서 한줄기燦然한光彩를 나타나인다。이五山高普는 世상이아는바와가티 故南岡李昇薰先生에 依하야 創設 또育成되엿다 처음부터 宣教會의손이나 어떤獨實한財團이잇서서 經營되엿든것이아닌 五山高普가 오늘의盛運을맛는데까지에는 잣실로 세상사람들의 想像을버서나는 艱苦와波瀾曲折이 자허엿섯다。

己未大火災에잇서서 學校를 여섯달동안이나 門을閉하고 永久히그存在를喪失하려던 現在의宗教界의人 金昶濟氏의獻身的努力과 朴龍源、承晳薰二氏의 盡瘁에依하야 이險難되엿든 五山은 暗黑을 우에서 다시기운찬前進을위하야보엿다。그뒤 高普의昇格을위한 財團法人期成에잇서서 全關西의 士女가힘을모흘때 故吳致殷氏의 學校를위한 絕大한 熱誠과 故吳熙源氏 吳鳳濂氏 李鏡觀氏의 協力은 모도 五山을 위한 빗나는貢獻이엿다 戊辰年에 藝價가 奏請하야學校가 負債에싸혀 財政的苦痛속에 빠졋을때 崔昌鎬氏의 巨金의寄附가잇엇고 博川의 關西에잇어서 李寅煥氏의 美擧、그리고 지난번 大火災에잇서서 朴龍雲氏의 特志 이모든빗나는 行蹟들은 모도五山의基礎를 오늘의磐石우에 노흔 根本動力이엿다

이리케 五山의創設以來 學校와休戚을가치하야 오늘에미츠두 분에 朴基煥先生과 趙晩植先生한분은敎務에 한분은財政과 經營에잇서서 學校의現在와 將來를위하야 晝夜그熱을바치고 그誠을바치어 오늘에이르럿다 財團의幹事인 李寅煥氏의 學校를위하는勇苦 또한十年이하로가티 오로지學校의 進運을위하야 꾸준한努力을 繼續하야온다。이만훈이들의 五山을위한 眞實한奉仕와犧牲이라게서 五山高普는 洋洋한前途의 光明을向하야 날로生長하는途程에잇다 現校長 朱基瑢氏는 본래五山의 出身으로서 昭和八年에 校長으로 就任하엿다。그는마츰 南岡先生別世後의難局을 맛게되얏고 겸하야 지난번火災에맛내여 最大의 逆境에 逢着하얏섯다 그러나그는그 沈着한計劃、그果敢한實行에依하야 드듸여 빗나는再建을 成就하게된것이다。

五山高普는 지금도 時急한問題를가지고잇다。하나는 學父兄및一般社會의 年來의宿願인 學級增設問題、하나는 校內의集會에使用할 約一千二百名收容의大講堂建築問題。學級增設은 入學難이 激甚한 朝鮮의現實에잇서서 時間을다투는 焦眉의問題이니 어떠케해서던지 이것만은年內로 實現되기를바란다。大講堂建築은 現在의五山에잇서서 그必要를絕對로느기게되는것인바 建坪二百坪 延坪四百坪에 內容設備까지하야 五萬圓으로 豫算된다고한다。이것이 決코적은돈이 아니나 有志人士의 發奮如何에 잇서서는 그러케問題되는바아니다。우리들은 이두宿案이 하로밧비實現되야 五山高普가 現在보다 더아름다운 外觀及施設로서 우리定州의一隅에서 朝鮮敎育의 久遠한使命을 眞實하게遂行하기를빈다。



◇寫眞은 五山高普校舍全景과 現校長 朱基瑢氏

三千組員擁護한 同仁水利組合

本組合은 大正九年에 創立하여 三百三十五萬三千五百三十五圓의 巨大한工費로서 大正十三年에竣工한 優秀한水利組合이다。事務所는 雲田驛前에잇스며 本組合의 設立前收穫은 反當一石二斗이던것이 設立後는 反當三石五斗九升이라는 三倍의收穫을 보게되엿다 現在組合員數는 三千三十四人인데 組合員의 負擔額은 年復年 輕減되여가는 現狀이니 組合員이 맛는惠澤은 多大하다 뿐만아니라 組合이生긴以後 農事技術에 全力을 다하니만큼 定州近方의 農民은 農事技術이 熟達하여 全鮮的으로 其名聲이嘖嘖하다

西海岸漁業界巨陣 艾島漁業組合

—艾島의史的考察—

艾島漁組를 쓰기前에 艾島(쑥섬)를史的으로 紹介하려한다。艾島는 本是 無人島이엿섯는데 距今二百餘年前에 金、李、宋、魏等四姓이 渡來하여 石灰採取로 生計를 삼으며 此島를 開來島라고 일홈하엿다 當時는嘉山郡에屬하엿든바 大正三年에 區域變更과 同時에 定州郡에 移屬되엿섯다

組合의沿革

大正二年 十二月에 設立하여 昭和二年에 專任理事 金鳳龍氏가就任하며 組合員의 事業助長을爲하여 努力한結果 昭和五年에 區域을 變更하여 [illegible] 海洞 大田面漁業組合等을 合倂하여 今日에 至하엿다

組合位置及區域

事務所 定州郡葛山面艾島洞 出張所 定州郡葛山面光東洞 區域은 葛山面 德彦面 南西面 古德面 大田面一圓

組合의事業

現理事 金鳳龍氏 就任以來 各種事業을 指導하여 其成果는 果然刮目할바만하다。이제 그事業의 種目은 이러하다

漁業資金貸付 委託販賣 共同購入 養殖 魚附林 共同保管倉庫設置 漁船漁具設備 共同井戶設置 優良漁船建造貸付 生命保險利用

金理事의活躍相

金理事 氏는 定州邑出身으로 일즉이平壤高普를나온才士로 定州人士의 崇望을밧는 靑年活動家이다 多年官界에 從事하다가 昭和二年에 本組合理事로 就任以來 艾島發展을爲하여 十年을하로가티 奮鬪한 艾島의恩人이며 艾島의建設者이다。氏가艾島에 就任以後 艾島는 産業 文化諸方面에 面目을 一新하엿스니 實로氏의功績이라아니할수업다

◇艾島鮫鱇網漁業者一覽

張學健	李汶基	金寬弘	由善河
魏擧一	李春鳳	李秉俊	魏寶一
李長福	金文平	方載鉉	金大興
金貞俊	朴應權	朴德裕	李長讚
魏道一	宋致淳	方一彩	李昌善
朴德興	禹鐘疇	方錫均	方禹仲
朴春鳳	宋在均	石泰淸	
金永河	白泰允	金永煥	石泰淸
金仲憲	金鳳寶	申寬濟	李昌俊
魏承一	姜日善	朴德守	金俊煥
李寶成	李希俊	魏龍一	金進錫
魏聖河	白源文	方錫律	金昌守
朴昌涉	李昌植	金春世	李唐祉
申龍寶	金貞獻	崔容吉	宋炳奎
金泰甲	金鳳寶	金哲守	金基弘
宋致奎	宋明雄	林龍甲	林龍各
金源吉	金淳星	魏信一	宋炳均
全善濤	金鼎濤	魏鳳一	金 振
李根河	李應周	金春甫	李永培
金鳳瑞	金汝圖	金三濤	林昌烈
魏龍瑞	李應學	魏昌濬	獨孤寶
金京煥	李雲淸	李寶俊	獨孤振
吳在鳳	承鎭模	卓國昊	毛爾京
毛爾寬	卓三增	卓貴軍	金善浩
鄭昌武	朴成福	金淳寬	白樂濂
張應明	鄭宗浩	李成官	邊君彬
林吉孝	方道鉉	金持明	

平北唯一의 農事試驗場

本場은 明治四十二年 義州에種苗場이라는 일홈下에 設置하엿든것을 大正十二年에 定州로移轉하엿고 昭和七年現在의 場名으로 改名하여 今日에至한것이다。職員은 高橋場長以下書記一人 技手八人 地方技手四人 農手四人이 잇서서 勤實히 服務하고잇다。事業의 槪要를列하건대 畜産部 作部 化學部 園藝部 蠶業部等을分設하고 各種農畜産物의 改良增産을 圖하며 其他北斗會를 發刊하며 指導하는外에 定期講演 臨時講習會等을開催하야 當業者의 實地指導를 꾸준히 行하는結果 平北의 農事界는 年復年 本場의 惠澤에依하여 更生의 幸運을맛볼수잇는것이다

躍進途上으로것는 定州邑의現勢

定州邑은 平壤-新義州間에處하여 郡城 朔州 泰川을 通하는 關門으로서 物貨의 集散이 殷盛을 極하고 商工業은 이에 버한다 天惠의 沃野는 穀十六萬石 苹果三十六萬貫以上을 生産하고 其他 精米業을 것지는 玄米 七萬石은 日本內地 滿洲等地와의 取引이 頻繁하다 邑의人口는 一萬一千餘를 突破하야 무서운形勢로 增加하고 잇스며 邑當局은 各種施設을 創業하는中 公設市場新設과 方今工事中의 達川江洪水 防水堤工事는 八萬圓의 工費로서 今年度에 着工하엿고 明年度에는 十八萬圓의 工費로서 上水道工事를 着手하려고한다 또 不遠한將來에 道立病院 中等學校等을 誘致하려고 邑當局者는 盡力을不惜하는狀態에잇스니 躍進途上의 定州邑의 前光이될것이다

內外에聲價노픈 定州名産苹果

定州의氣候風土는 果樹栽培에 適當하여 벌서 二十六七年前부터 林檎의栽培가 되여 朝鮮에서 第三位를占하는 名産地가되엿다 이제定州果樹組合의 調査에 依하면

面積	二百八十六町七反
株數	六萬七千四百八十六本
栽培人員	百九十三名
年産額	三十五萬七千五百貫
販路	鮮內 日本內地 滿洲國

아직도 苗木을多數 植木中이아프로 매우多望할것이다

祝 定州地方紹介版發行

定州郡

定州邑

同仁水利組合

平北農事試驗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定州支店

新義州電氣株式會社 定州支店

艾島漁業組合

定州納淸亭鍮器株式會社

平北鐵工株式會社

私立 五山高等普通學校

定州警察署

定州金融組合 / 郭山面長 金相棐

定原金融組合 / 臨浦面長 李秉淳

郭山金融組合 / 南西面長 崔孝祥

雲田金融組合 / 德彦面長 鄭光鉉

淸亭金融組合 / 高安面長 金鼎屋

安興面長 金憲淳 / 葛山面長 金宅濟

觀舟面長 金基珍 / 大田面長 趙春煥

玉泉面長 金永彬 / 馬山面長 林昌文

定州의重鎭人物

定州의活動大家
昌健醫院長 李昌健氏

氏는 故南岡李昇薰先生의 愛婿로써 五山高普를 거처서 大正十五年에 東京醫專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昭和三年까지 二個年間을 研究를거듭하다가 昭和三年四月부터 定州邑內에서 昌健醫院을 開業하게되엿다。氏는故南岡先生의 敎訓을바더 德望가잇고 稟性이 仁慈하야 一般에게 尊敬을밧는 人格者이다。氏는內科에 特長한 妙技를가지고 外科特技를 發揮한 名聲으로서 一般貧者에게는 無料로 施療하야 其聲價가 藉藉하다 또 X光線의 設備도 完備되엿다。氏는現今定州의 醫療機關不備를 痛感하고 輔仁醫院長 盧輔根氏와 合力하여 大病院出現을 期하여 方今準備에 紛忙中이다。氏는 現定州邑會議員으로써 邑民의 利益을 代表하여 邑民共存共榮을 爲하여 寢食을 不顧하는 狀態이니 氏를 邑議員으로 가진 定州邑民은 幸福스러울것이다 現本社定州支局顧問으로서 定州言論界의 羅針을 操縱하고잇는 定州의 重鎭人物이다 (사진은 李昌健氏)

模範的教育家
五山高普學監 金起鴻氏

關西의 最高學府이요 半島民衆의 至寶인 五山高普가 今日의 隆盛에 達한것은 故南岡先生의 心血의 結晶이라고 一般은 皮相的觀察을하기쉬우나 事實에 잇서서는 其裏面에 儼然이 潛在한 同校校監金起鴻先生이라는 存在가 잇合으로써 今日의 燦然한 歷史를 保持케된것이다 일즉이 氏는 古德面一隅에서 出生하여 裕足한 家庭에서 漢文을 修學하다가 大正八年度에 五山高普가 烏有에 歸하자 校舍를 일허버린 同校學徒들은 假校舍에서 修學하며 敎員들은 粟飯도 업서서 굶는때가 만흔것을 目睹한 氏는 毅然히 奮起한바잇서 이런때에 내의 財産을 敎育事業에 提供하여 이땅에 英才를 培養함이 뜻잇는 人間이 取할길이라 決心하고 卽時 집으로 돌아가서 爲先 敎員들이 먹을 糧食을 牛馬에 실어보내고 니어서 南岡先生과 合力하여 氏의 財産의 大部分을 五山高普에 喜捨하여 드듸여 財團法人을 完成하게된것이다 氏는 當年三十九歲의 溫厚寬大한 人格者로서 現五山高普校監의 職에 在하여 晝夜不顧 五山의 發展을 爲하여 盡力하는 이 社會의 模範的人物이다 (사진은 金起鴻氏)

定州唯一의名望家
海陸商會主 許璡氏

氏는 定州實業界의 長老格的人物로 天質이 仁厚寬容하여 門下의 小作人等에게로 恒常厚德을施하여 一般으로부터 德望家의名譽이 藉藉하다。氏는今年三十三歲의 血氣旺盛의 靑年紳士로 일즉이 財産家에태어낫스나 安逸의生活을 貪하지안코 校門을나오는卽時로 몸소算盤을들고 大規模의商業을 開拓하엿스며 한목도便易수잇때가 업는勤勉家이다 現在에도 海陸商會라는 大貿易商을 經營하여 定州財界를 籠罩하시기고잇다 氏는公共事業에 金品의喜捨를 앗기지안으며 特히敎育事業에 置重하며 五山高普評議員으로 活躍을하고잇다 氏는定原金融組合評議員으로 定州財界에 君臨하는 同時에 定州邑의花形邑會議員으로서 萬餘邑民의意思를 代辯하여 邑民의幸福增進을 爲하여는 民衆의先頭를 行進하고잇는 定州의中堅的巨物이다 (사진은 許璡氏)

艾島文化의開拓者
艾島漁業組合長 李秉憲氏

絶海孤島쑥섬(艾島)의 文化開拓者로 一般島民의 尊敬을밧는 現艾島漁業組合長 李秉憲氏는 六十九歲의 老齡에도 不拘하고 紅顔白髮의 늙은 氣風은 靑年을 凌駕할 活動力을 所有하엿스며 氏의 溫厚寬大한 性品으로 艾島民으로부터 艾島의 아버지라는 稱讚을 밧는것도 無理가 안이다。氏는 일즉이 農家에 태여나서 二十餘年을 漢文을 專修한 漢學者로서 三十五歲時에 艾島에 移來하며 當時艾島에는 敎育機關이라고는 全無狀態에 잇合을 痛歎하고 卽時書齋를 設立하여 漁民의 子弟들에게 漢學을 가르치게 되엿스니 이것이 艾島의 歷史가 잇슨後最初의 敎育機關이엇다。氏는 敎育事業에만 힘쓸뿐아니라 艾島民의 經濟生活에도 留意한바잇서 日韓合倂當時艾島는 博川郡에 屬한 國有地로 島民의 生活을 切實히 늣기고 私財數千圓을 消費하면서 活躍하야 島民漁業組合長으로 公職에 盡力하여 島民의 生活安定을 圖하며 二十餘年을 擔任하여 오든 艾島漁業組合長으로서 艾島漁民의 經濟生活을 擔當하는 一方 平北水產會議員과 島內의 敎育事業에 繼續 勞力하는 主權的人物이니 島民은 氏의 功績을 永久히 記念코저 今秋에 氏의 頌德碑를 建立하려고 準備에 奔忙中이다 (사진은 李秉憲氏)

開墾으로成功한
盧福吉氏

氏는 當年四十八歲의 壯年實業家로서 二十一歲時까지 田土에 뭇쳐잇다가 穀物貿易에 投身한 人士이다 距今八年前에 古邑東部里에 米穀商會定州支店을 引受하여 가지고 米穀貿易을 經營하는데 年貿易額이 五十萬圓에 達하는 巨商이다 氏는 일즉이 土地事業에 經驗이 豊富하여 二年前에 龜城郡西山面에 山林地帶인 土地 百餘町步를 買受하여가지고 此를畓으로 開墾한바 年秋收六千餘石을 得할 肥沃한 沃土를 만드럿다 開墾한畓은 天水畓으로 由上에 作畓하엿으나 旱魃을 不知하는 良畓이 되엿으니 참말로 西鮮地方에 最初事이며 該土地로 因하여 數百戶 千餘農民生活의 保障을 엇게되엿으니 社會的見地에서 氏는 훌륭한人物이다

着實[illegible]儉한
模範的人物 李明龍氏

氏는 自手成家한 現在 七十將近인 老人으로서 赤手로 四五十萬圓의 巨資를 모흔 成功의 人인데 氏는 致富術을 물으면 안먹고 안쓰는데 잇다고한다。氏는 一平生 六十餘年을 通하야 自家에서 一日三食을 하는外에 飮食店에 出入하는것을본 사람이 全然업다 氏의 着用은 全部 木綿으로 自家에서 生產하야 製造한 全部土產品뿐이요 한번도 外來品을 着用한일이 업섯다 七十이 將近한 氏의白髮은 世苦에 부대김을 自識하다 그러나 그의氣力과 心肚는 아직도 壯年과가티 每日 事務에 奔忙하고 一時도 餘暇업는 生活을 繼續하는 모든것에 잇서 模範的人物이다 氏는 志氣一貫으로 何事에던지 枉曲變心하는 일이업고 定한事에 結末을 맺고야마는 굿센뜻을 가지고잇다 또한 商業으로 成功을햇고 農理에도 先覺者다 氏는 [illegible] 人望이놉고 企待가크다 그는實로속 日 우리社會에 重鎭이요 事業家다 그는 現邑會議員인 長老요 元老다 이 貧弱한 定州社會가 이 元老를 所有한것은 큰 幸福이라고 아니할수업다 氏의 長男은 十餘年間歐米에 留學하엿고 氏의 本性을 본뜬 次男은 靑年實業家로 將來우리社會에 企待가 만흐며 責任感이 强한 實業家다 將來氏의 큰 活躍을 企待하는 同時에 이 家庭의 三父子를 通해서 事業이 企待된다 (사진은 李明龍氏)

穩健着實로成功한
太陽商會主 金泰浩氏

氏는 品性이 正容하고 溫順하여 한번보매 學者風이 흐르고잇스나 一旦實業에 着手하면 期於히 成功을하고야마는 意志的人士이다 氏는 當年三十六歲의 壯年實業家로서 일즉이 京城五星學校를 卒業하고 大正十三年度부터 穀物貿易과 米穀造業을 經營하게되엿는데 現今 定州城外洞에 太陽商會를 大規模로 經營하여 年數百餘車의 穀物을 貿易하고 잇는 定州의 重鎭的巨商이다。氏는 農業朝鮮의 農村啓發運動에도 貢獻한바 多大하니 昭和四年부터 三嘉水利組合評議員等 要職에 在하여 農村生活改善에 盡力하는中이다 또氏는 定州에 屈指하는 財産家로서 저有名한 島는 大部分이 氏의 所有인데 氏는 島內에 開墾事業과 植木事業을 勵行하여 島民의 生活安定을 劃策하고잇는 篤志家이다 (사진은 金泰浩氏)

立志傳中의一人
定山醫院長 姜學龍氏

氏는 二十歲가되도록 田土에서 農事生活을하다가 勃發하는 向學熱과 成功心에 호미자루를 집어던지고 상투그대로 學校門을 두드리고 螢雪의功을 싸흔結果 大正十年에 京城醫專을 卒業하고 至今 郭山驛前에서 定山醫院을 經營하게된 立志傳中의 人物이다 氏는 義俠心이 充溢하여 學生時代에는 三一運動에 連座되야 三年間執行猶豫를 바닷든일도 잇스며 現今身分은 醫師이나 恒常農村問題에 關心하여 疲弊한 農村의更生策을 不絶히 研究中이니 最近穀物協會의 叺貨統制로 農民이 受하는損害가 莫大한것을 目擊한 氏는 私財와時間을 虛費까지하며 當局에往來하면서 스스로 農民의 前衛部隊로서 農民의利益을爲하여 奮鬪하나니만큼 一般農民은 氏의 美擧를 感謝하여 마지아니한다 氏는 現郭山面協議員 學務委員等 公職에 處하여 地方을爲하여努力하니 實로民衆의代表格的人物임이 確然하다 (사진은 姜學龍氏)

定州의德望家
輔仁醫院長 盧輔根氏

輔仁醫院長 盧輔根氏는 大正八年에 京醫專을 卒業하고 爾來開業하엿는데 短刀直入的性格과 公私의區別을 嚴格히하는 恒常命精한 眼目으로 事物을 對하되 溫厚寬大함으로 世人은 敬仰하여마지안는다 氏는內科에 造詣가 깁흐며 內科하면 輔仁醫院을 聯想하리만치 內科에 權威的存在이다 氏는 醫術本來의 使命을 爲하야 五十代의 氏가 밤이면 醫學書籍과 싸흠을하고잇슴뿐만아니라 新學說、新藥品은 누구보다도 먼저 備置하는點으로보아 氏의 醫學的存在를 窺知할수잇다 氏는 醫師라기보다 定州의代表的人物이다 氏는 名譽를 極히미워한다 그러나 定州社會의 一動一靜에 氏의足跡이 嚴然함을 볼때에 氏의 社會에對한 功勳의큼은 숨길수업는 事實이다 氏는 또한 未來의 定州를爲하야 遠大한 抱負를가지엿다고하니 定州社會의 尊仰과 企待가 큼은 當然한일이다 現在定遠協圓長、定原金融組合長 及 其他數多한 公職者로서 不斷한 活動을하는 定州의代表的人物이다 (사진은 盧輔根氏)

印刷界元祖
金亨萬氏

定州印刷業界의 始祖 定州印刷所는 大正五年四月에 當時前邑長 金泰茂氏의 先覺的指導下에 定州印刷所라는 看板下에 開業하게되엿스니 이것이 定州印刷界의 嚆矢이다 其後昭和二年에 氏의 長子 亨萬君이 引繼經營하게되엿는데 商術에 非常한手腕을 가진 氏는 事業을 擴張하여 二臺의 最新式印刷機에 十數名의 從業員

刀圭界의新進
金昌鎰氏

氏는 當年廿八歲의 少壯醫師로서 今月上旬에 定州邑城外洞에 開業하엿다 氏는 일즉이 平壤醫學專門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多年間 道立平壤醫院에서 熱心으로 研究를 繼續한 結果 各科를 通하여 其技術이 練熟되여잇다 氏는 特히 小兒科、內科、耳鼻咽喉科 皮膚科等에 造詣가 深奧하여 當地에서 開業當日부터 一般의 期待가 크다하며 特히 設備가 完備하여 太陽燈 其他醫療機械가 俱全되여 잇슴은 小都會地에서 보기드믄 現象이라 아니할수업다 (사진은 金昌鎰氏)

赤貧으로致富한
貿易商 劉成祚氏

早失父親이라기보다 遺腹子로서 偏母膝下의 赤貧한生活에서 四十前에 十餘萬의 致富를 보게되엿다 氏는 十七歲時부터 家業을 세우기 爲하여 僅少한 資本으로 古德面新市에서 小規模의 雜貨商을 始作하야 氏의 明敏한 商術이 成功의鍵을 주엇스니 當時 定州一帶에는 在來式朝鮮酒만을 釀造하여온데 高價이엇으로 一般의 需要가 적어서 氏는 平壤某釀造會社와 取引하여 安價의 平壤酒를 移入하여 巨利를 보앗스며 歐洲大戰好景氣時期에 石油貿易으로 大利를 得하는等 氏의 商略은 巧妙하엿다 氏는 商業에 利得한것 古德方面에 土地를 買收한것이 後日 同仁水組 蒙利區域에 編入되면서 地價가 六七倍暴騰함으로 因하여 一躍 巨富가 되엿든 幸運兒이다 現今 雜貨 肥料 農具等의 貿易商을 經營하는남어지 古邑內代表者로서 實業界의 重鎭人物이 되엿다 (사진은 劉成祚氏)

兒童敎育事業에 盡力하는남어지 少年運動의 指導者로서 朝鮮少年軍三十五虎隊長으로 活躍中이다 또氏는 篤實한 基督敎人으로 定州敎會의 要職에 處하여서 敎會事業에도 貢獻이 不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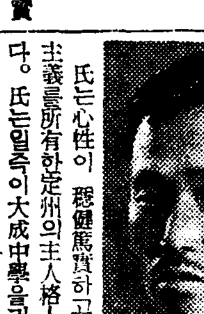
醫界의人氣者
朴天圭氏

氏는 今年五月에 古邑驛前에서 朴天圭醫院이라는 看板下에 開業하엿는데 開業은 日淺하나 氏의 技術이 非凡한것을 알게된 一般市民은 氏의 醫學的力量을 無條件으로 支持하게되엿것이다。氏는 五山高普를 마치고 京城帝大醫學部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 學才이다。卒業後 그는 平北道立新義州醫院外科에서 勤務하다가 昭和九年부터는 滿洲國 黃海病院의 主任醫로서 多年間 勤務하다가 邑에 開業하자 人氣는 百퍼센트이니 定州刀圭界를 豫想할것은 明若觀火이다 (사진은 朴天圭氏)

青年定州의重鎭
·納淸亭精米株式會社社長 朴文圭氏

平北甲富朴文圭氏는 일즉早大를 卒業하고 累百萬의 財產管理에 汨沒하는 一方 定州納淸亭精米株式會社社長으로 活躍하는 青年實業家이다。氏는 富豪階級獨特의 浩蕩性은 차저볼수도업고 溫健着實의 性格에 明敏且組織的頭腦의 所有者로 事業界에 精進함은 世人의 敬仰의的이다。定州納淸亭精米所의 手工業的非現代性과 數百職工의 前借金으로 因한 代代孫孫의 奴隷性을 痛歎한바잇서서 萬難을 排除하고 勞働組合의 基礎를 鞏固시키는 一方 株式會社를 組織하야 職工의 前借金을 淸算한結果 奴隷에서 自由에로 解放할뿐不啻라 現下資本主義企業界에서는 想像도不許하는 製品 每斤에 五錢乃至十錢(年產二十萬斤)의 割戾金을 支拂積立하야 會社運轉資金에 充當될때에는 會社를 勞働組合에 讓與한다는것이니 數百職工과 定州社會에서 活佛의 稱을 바듬도 偶然한일이아니다。氏는 遠大한 抱負로 社會에對한 關心과 事業慾에 불타고잇다 氏는 社會的經驗의 蓄積과 盛水不漏의 組織的頭腦로 社會事業界에 進出은 勿論 社會事業에의 百年大計를 着着實現化할 程度도 不遠할것이니 定州社會의 絶對한 囑望과 企待가 큼은 不認할 事實이다。吾人이 企待가 絶對한 反面에 氏는 氏獨特의 組織的頭腦로 社會的 飛躍의 大計에 餘念이 업다하니 定州社會를 爲하야 氏自身을 爲하야 祝福할바이다。(사진은 朴文圭氏)

社會機關의重樞
定州百貨店主 鮮于爀氏



氏는 心性이 穩健篤實하고 圓滑主義를 所有한 定州의 主人格人物이다。氏는 일즉이 大成中學을 거처서 信聖學校在學時에 明治四十三年 氏의 十八歲時 百五人事件에 連坐되여 囹圄에 呻吟하다가 上海南京等地에 亡命하여 그곳에서 金陵大學에 修學한바잇고 多年間 實業界에 從事하다가 距今十年前에 歸國하야 文化事業에 奮鬪하며 耶蘇敎長老로서 宗敎界의 重鎭이다 氏는 再昨年부터 和信定州連鎖百貨店을 經營하는데 氏의 明哲한 頭腦로써 運轉되는 百貨店은 旭日昇天의 勢로 發展한다 氏는 定州社記者團委員長 體育會長等 定州社會機關의 重職으로써 明日의 躍進定州를 劃策하고잇다 (사진은 鮮于爀氏)

敏活活動家
鄭光鉉氏

先天的으로 快活한 性格을 가진 氏는 十六歲時부터 全朝鮮을 跋涉하면서 實業行商을 繼續하다가 多年間 實業界에 從事하다가 昨年에 德達面長에 就任한 當年四十六歲의 壯年活動家이다 氏는 二十五年前에 歸鄕할 身分으로 投機事業에 近似한 水產業界에 出馬하여 數萬圓의 利得을 보앗스며 또 西海岸에서 처음으로 乾蝦製造事業을 發明하여 一般漁業者를 驚嘆케한 新界先覺者이다 氏가 昨年德達面長에 就任하엿는데 面廳合으로 三面이 合하니만큼 名稱問題가 紛紛하엿스나 氏의 獨特한 政治的 外交的手腕미테 諸般事業은 順調로 解決되엿다 氏는 面內道路新設 面位置移轉等事業을 完了하엿스며 아프로 潮尾浦에 開港을 設하고 地方發展에 專力하고잇다 (사진은 鄭光鉉氏)

杏林界의權威者
五山醫院長 趙震錫氏

定州杏林界의 權威인 葛山面五山醫院長 趙震錫(三五)氏는 昭和二年三月에 京城醫專을 卒業하고 新義州道立醫院과 京城醫專附屬病院에서 多年間 臨床實驗을 實地的으로 研究한다음 昭和五年十一月부터 五山高普의 校醫로 在職하면서 千餘中小生徒의 健康을 爲하여 不斷努力하는 남어지 附近一帶에 이르러는 五山醫院을 開業하고 蘇生케하는 活佛의 役割을 다하고잇다 氏는 溫厚多情한 性格의 所有者로 多年間 不遇한 患者에게 慰安과 恩惠를 施하여 五山醫院을 찻는 患者는 日復日 增加하여가고잇다 (사진은 趙震錫氏)

社交界의花形
承鎭杓氏

氏는 四十二歲의 壯年實業家로서 多年間 商界에 從事하든中 大正十四年五山高普가 財團法人으로 되기 前後하여 自己의 事業도 不顧하고 五山高普의 財團完成을 爲하여 四年間을 不眠不休 西奔西走한 篤志家이다。昭和四年부터는 定州驛前에 丸安運送과 興業商會라는 精米所를 經營하는 同時에 平北鐵工會社監査役、平北穀物協會定州支部長等 實業界의 重職에 잇서서 定州實業界에 功獻이 不少하며 官民間社交界의 花形으로서 潑剌한 活動家이다 (사진은 承鎭杓氏)

商業에七顚八起한
協成商會主 高學臨氏

氏는 赤手空拳으로 數十年을 辛酸한世態와 싸워나아간 結晶으로 現今은 大精米所의 主人으로 定州實業界에 重鎭的地位에 處한 立志傳中의 人物이다 氏는 十八歲時에 校門을나서자 出生地인 觀身面을떠나서 二十歲時부터 無一分의몸으로、郭山에서 或은 穀物仲介人으로 或은 滿洲粟小賣人으로 가진風波를 겪는中에 己未年 好景氣時節에는 數萬金의 利益을 보는때도 잇섯스나 運命의 作戲이엿든지 同年秋에 失敗를 보게되엿다고한다 氏는 不得已 郭山을 떠낫다가 距今十二年前 氏의 三十一歲時에 定州에 來到하여 穀物仲介業에 着手하게되엿는데 氏의 꾸준한 活動과 先覺的商術은 드듸여 成功의 길을 열어주엇스니 現今은 協成商會라는 精米所를 經營하는데 年貿易高가 數百餘車에 達하고잇다 氏는 또期米株式方面에도 眼目이 敏捷하여 年年히 莫大한 利得을 봄으로 一般은 氏를 가르처 經濟博士라고 稱한다 (사진은 高學臨氏)

運輸業의覇權者
朝運營業所代表 崔秦峻氏

氏는 定州運輸界의 巨頭로서 多方面의 事業을 經營하고잇다 氏가 今日의 成功을 보게된데에는 무슨일에든지 着手만하면 初志를 貫徹하는 구든意志와 大膽性을 具有한것이다 氏는 多年間 穀物貿易을 經營하다가 大正七年부터 鐵道局承認 丸山運送部를 經營하게되엿는데 大正十五年부터 鑛山에 投資하여 一時에 數萬圓의 利益을 보게되엿다 昭和五年부터 朝鮮運送株式會社定州代行業所代表者로서 定州運輸界의 覇權을 掌握하고잇스며 昭和八年度에는 定朝 定泰兩線의 路線權을 獲得하여가지고 平安貨物自動車部를 設立하고 莫大한 收入을 보고잇다。氏는 現今에도 鑛山에 投資하여 成功의 一步인 大金山主으로 出世할것이 明瞭하다 氏는 定原金融組合評議員과 定州邑會議員等 公職에 在하여 定州發展策을 爲하야 貢獻하는바 多大하니 定州社會에 업지못할 核心的人物이다 (사진은 崔秦峻氏)

不運에서成功한
鑛業家 韓明煥氏

氏는 不運한環境에서 나서 辛酸한 世苦에 시달리기를 무릇 數十餘年에 四十事業의 今日에와서야 成功의 榮冠을보게된 立志傳中의 人物이다。氏는 少青年時代를 貧困과 싸우며 或은滿洲로 或은中國으로 流浪의 客이되여 애꾸진 世態와 씨름하여가면서 世相의 쓴(苦)經驗을 싸어가지고 十餘年前에 歸鄕하여서 經驗을 唯一한 資本으로 定州邑內에 鑛工所를 始作한바 이것이 順調로 發展되는 남어지 鑛業界에 投身한바 苦盡甘來라고 好運은 逢着되여 短期間에 致富가되엿다 그리하여 昨年부터는 鑛工所도 讓渡하여버리고 純全히 鑛山家로서 投身하게되엿다 氏는 性品이 溫厚하여 日常社會事業에 對하여 篤志를 품고잇스니 不遠한將來에 우리社會事業에 喜消息을 傳할것이다 이제 氏의 經營하는 鑛山一個所를 紹介하건데 如左하다

鑛山名稱 遺山鑛業所
位置 平北寧邊郡泰平面遺山洞
登錄番號 登第九二六一號
開鑛月日 昭和八年六月
面積 七十萬坪
年產金高 一、三二〇〇瓦
含有金量 每噸(二〇貫)十萬分之四
坑夫使用量 年一〇〇〇八名
交通狀況 滿浦線妙香山驛에서北鑛通行 定期自動車途中冷井에서 四粁地點에在하다
施設 豊富한水力을 利用하여 二百封度搗鑛機十本을 設備製鍊中인데 鑛石의過剩으로 方今二百封度十本을 加設中이다 今後鑛石의 性質에依하여 보ー미機械를 加設할方針이며 靑化製鍊의 化學的設備도 完備되여잇다 (寫眞은 韓明煥氏)

郭山唯一의人格者
永淸商會主 金國瑞氏

氏는 郭山社會의 元老로 當年五十二歲의 風采凜凜한 人格者이다 氏는 일즉이 道技手로 奉職하다가 大正七、八年 好景氣를 觀望한 氏는 鑛山家로도 活躍하얏다가 貿易界로 轉向하여 便達한 商略을 發揮한것이다 數次의 失敗도 업는바아니지만 氏의 政客的手腕은、儼然히 郭山再起의 役割을 하여 左右하는것이다 實業界의 牛耳를 두고 現今永淸商會를 經營하는데、穀物部와 釀造部를 두고 二十餘名의 手下人을 다리고 勤實이 活動하고잇는데 氏의 性品은 溫厚寬大하여 部下로부터 慈父의 對接을 밧고잇다 氏는 產業方面에도 注意가 深甚하여 現今平北第一大規模의 養鷄場을 道의 指導下에 經營하고잇다 氏가 郭山社會에 物心兩方面으로 寄與한바 不少하야 果然郭山社會의 恩人임으로 今番氏의 嚴親逝去時에 郭山人士가 總動員하여 社會葬으로 式을 擧行하게까지한 郭山의 重鎭이다 (사진은 金國瑞氏)

한 靑年紳士로서 五山高普를 나온以後 多年間 氏의 故鄕인 德彥面事務所에 勤務하면서 面行政을 爲하여 盡力한바 多大하며 또 氏는 天禀이 慈善心에 富하여 部下 小作人에게도 厚德을 끼치여 郡民의 稱譽이 놉고 現德彥面協議員 淸亭金融組合評議員等 公職을 帶하고 農村發展에 盡力中이다

勤儉着實한
金學謹氏

氏는 定州郡臨浦面 農村의 出身으로 少時에는 家業을 補佐하야 農業에 勤實하다가 距今二十年前 氏가 十六歲時에 定州邑에 移來하여 理髮業으로 勤勉生活을 하다가 不幸이도 身病으로서 年餘를 病席에서 呻吟中에 失職狀態에 빠진것을 有志方在胤氏의 懇請的後援下에 昭和五年부터 金成商店이라는 看板下에 小規模의 食料品商을 開業한結果 氏의 勤實一貫信用主義를 唯一한 信條로 꾸준히 活動하게되엿다 當時定州에는 相當한實力을가진 同業者가 三四店이 對立하여 積極的商戰이 展開되엿스나 氏의 上達한 商略앞에 敗戰을 當하엿다 現在에는 邑內에 支店까지 設置하고 十餘名의 從業員을 두고 平北一帶에 販路를 把持하고잇스니 年販賣高가 五六萬圓에 達하니 實로 幸運을 一身에 모으고잇는 前途洋洋의 青年實業家이다 (사진은 金學謹氏)

內科에造詣기픈
定州醫院長 李益鈕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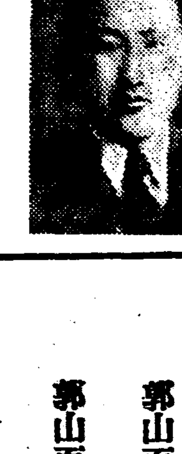
氏는 龜城出生으로 快活明朗한 性格의 所有者로서 恒時笑顔으로 初對面者에게도 조흔印象을준다 鏡城高普를 優秀한 成績으로 마치고 다시 醫專을 大正六年에 卒業하고 黃海道立醫院에서 實地研究를 싸어가지고 大正九年에 龜城郡公醫로 被任되여 郡民에게 仁術을 施하는 一方 龜城面協議員 平北道會議員(民選)等公職에 在하여 地方發展을 爲하야 盡力한바 크다 昭和四年에 定州郡公醫로 轉任되여 定州醫院이라는 看板下에 開業하엿는데 氏는 內科에 精通한 技術을 가젓스며 特히 外科에 造詣가 기퍼서 好評을 得하고잇다 再昨年에 二層洋屋으로 醫院을 新築하고 莫大한 費用으로 렌도겐科까지 併設하여 內容을 一新하여서 大病院으로서의 偉容을 整齊하고잇는 氏는 四十七歲의 多福者로서 財產으로는 十萬長者이요 膝下에는 六兄弟의 健全한 아들의 아버지이다。

豪俠한青年
金成守氏

氏는 當年三十一歲의 豪俠快活

熱情的活動家
丸加印刷所代表 盧泳根氏

丸加印刷所代表者 盧泳根氏는 實年徹底의 遺原하고 圓滿한 性格의 所有者로 定州社會의 만흔 囑望과 企待를 一身에 지고 三十壯年의 熱情的活動家이다。우리定州에 大小事가 잇슬때마다 氏가 先鋒이 아닌때가 업섯스며 氏의 熱情的 努力은 圓滿한結果를 짓고야말어서 公益을爲하야 自己犧牲을 甘受하며 無慈悲한 批判과 公人으로서의 徹底한 行動은 私利에 汲汲한 現代人에 一大警鐘이 아닐수업는바이다。氏는 赤手空拳으로 丸加印刷所의 刷新的經營을 圖하야 平北에서 爭覇하는 今日의 大丸加를 完成하야 獻身的 實力充實을 圖謀하고 잇슴따름이다。事業家로서의 氏에게는 定州社會의 今日의 需要보다도 明日의 指目的活動과 커다란 社會的足跡을 企待하고잇는바이다 엇컨대 氏는 青年定州의 代表이며 事業定州의 重鎭임에는 異議가 업슬것이다 (사진은 盧泳根氏)



以下는 六面에

祝 定州地方綜合發展

定州邑 海陸商會
定州邑 大陸商會
定州邑 定州百貨店
定州邑 平安堂藥房
定州邑 雲興商會支店
定州邑 金盛商店
定州邑 太陽商會
定州邑 後松商會
定州邑 安興商會
定州邑 定州醫院
定州邑 定州齒科醫院
定州邑 輔仁醫院
定州邑 昌健醫院
定州邑 三省醫院
定州邑 丸加印刷所
定州邑 大和印刷所
定州邑 定州印刷所
定州邑 李明龍
定州邑 金夢駿
定州邑 朴文圭
定州邑 高學臨
定州邑 盧光根
定州邑 趙時漢
定州邑 鮮于基聖
◉朝鮮運送定州代行營業所
高安面 洪淳亨
高安面 趙始淵
德彥面 方尙鎭
德彥面 金成守
南西面 文鳳彬
定州邑 金鎭成
郭山面 定山醫院
郭山面 金國瑞
郭山面 朴禹俊
安興面 李根宅
安興面 金龍濟

養蠶界의先覺者

後松商會主 趙昊淵 氏

平北蠶業界의 先覺者로서 일즉이 大正七年度에 斯業에 着眼하여 蠶種製造 桑苗生產 販賣等 實로 平北道內에서 第一位를 占하고잇다。 이제 氏의 經營하는 蠶業의 規模가 얼마나 大한것을 數字上으로 紹介하려한다。 氏의 經營하는 蠶種工場의 昨年統計를보면 製種枚數 一萬五千枚에 그產額이 [illegible]에 達하얏고 桑苗는 每年 五百萬本式을 植付하여 好成績을 得하고잇스며 蠶繭取引도 年數三千貫式을 實現한다니 氏의 事業이 큰것을 推測할것이다 蠶種工場에는 繁忙期에는 每日 三百餘名의 男女職工이 就業하고잇는 狀態이니 農村救濟事業의 功勞者라고할수잇스며 또氏는 後松商會라는 精米所를 經營하는데 業績이 大端히 良好하고 氏의 快活한 性格은 果然 一般으로부터 大實業家의 稱을 밧기에 足한이잇다 (寫眞은 趙昊淵氏)

理財手腕敏活한

開原公司主 洪淳亨 氏

氏는 定州郡高安面 出生으로 中央大學經濟科를나온 秀才이다 京城을中心으로 朝鮮內各地에서 十餘年을 實業界와 鑛山方面에서活躍하다가 大正七年에 멀리 滿洲開原으로가서 開原公司라는 穀物商을 經營케되엿스니 氏의 經濟界의 先眼的手腕은 氏의事業에 有効하게 利用되여 現在에는 百萬의 巨富를보게되엿다 朝鮮內의 穀物商으로는 開原公司를 넘우도잘알고잇다。 氏는 冬節에는 開原에서 事業에 奔忙하고 夏節에는 故里高安面에 歸來하여 令息 思杓君과더부러 土地開墾事業에 沒頭하고잇스니 不遠에 好成績을 볼것이다 氏는經濟界人物인同時에 敎育事業에도 留意하여 現五山高普의 理事로서 敎育事業에 對한 物質的援助도 不少한바잇다 (사진은 洪淳亨氏)

林檎栽培의先覺者

雜貨貿易業者 金夢駿 氏

朝鮮에 잇서서 商業界의 幼稚를未脫한 明治三十四年。當時十八歲의 少年의몸으로 將來商界의 發展을 豫測한氏는 定州邑內에서 雜貨及海陸物產貿易業에 着手하여 二十餘年間을 꾸준히 活躍하여 累巨萬의 富를 어덧스며 남달리 明晳한 頭腦를 所有한 氏는 定州의 氣候風土가 果樹栽培에 適當함을 覺하고 벌서 二十餘年前에 果樹를 植木하여 他人의 模範이 되엿스며 多年間 定州果樹組合의 重要幹部로 歷任하면서 斯界의 發展에 努力한結果 定州林檎은 全朝鮮에 有名하여진것이다 共存共榮의 偉大한 理想을 抱負한氏는 地方發展을 爲하여 多年間 定州郡學校評議員으로 敎育事業에도 努力하엿스며 現在 定州邑會議員으로서 萬餘邑民의 意思를 代表하여 邑進定州의 運轉役을 다하고잇는

壯年紳士實業家

大陸商會主 崔啓善 氏

大陸商會主崔啓善氏는 四十五歲의壯年紳士로서 善州農業學校를 卒業한 篤學이다 多年間官界에 獻身하다가 大正七年부터 實業界에 投足하여 穀物雜貨貿易商等 多方面으로 活躍하든 定州의 優敎한 實業家이다 昨年부터 定州邑內에 大陸商會를 開業하고 大規模의 工場을 新築하고 蕎麥精米 蕎麥粉 唐麵 精白米等을製造하여 西鮮一帶의 麵店及各商店에 直接販賣하는데 年販賣高가 八萬餘圓에 達한다 氏는專혀 技術에留意하여 極上의製品을 生產하느니만큼 消費者의 好評이 藉藉함으로 方今數十名의職工이 晝夜無休의狀態로 操業하고잇으나 製造品이 品切되는때가잇는現象이니 아프로의發展性이 더욱 企待되는바이다(사진은崔啓善氏)

藥種商界覇權者

平安堂藥房主 權商德 氏

氏는 本籍을 京畿道揚平에두고 일즉이 京城本町에잇는 藥品醫療機具貿易商回天堂에서 過去十餘年間을 藥品에對한 實地經驗을 싸하가지고 昨年七月에 來定하여 定州邑本町에 平安堂이라는 商號를가지고 藥種商을開業한것이다 氏는 顧客을本位로하여 親切叮嚀한남어지 氏의機敏한 商術은 開業劈頭부터 一般의 人氣가 集中되여 業績이 日就月長의勢로 發展하여 開業一年에벌서 定州商界에 重鎭的 地位를 占하엿스니 氏의 活動力이 얼마나 猛烈 한가를 可히 짐작할것 이다 業況을 察하건대 內外國產品은勿論 理化學機械等을 販賣하는데 平北南部地方의 各病院은勿論一般 [illegible] 相當한販賣高가잇다 氏는 아직 三十代의 血氣旺盛한靑年으로 氏의 아페는 成功의 榮이 企待되고 잇는幸運兒이다(사진은權商德氏)

最初의青年面長인

安興面長 金惠淳 氏

氏는 定州有史以來最初의 青年面長이다。 三十歲前에 面長으로 出世하기는 定州有史以來最初事일것이다 氏는 昨年二十九歲의 青年으로 安興面長에 就任한新進面長으로 名聲이높다 氏는日本大學社會科를나온 英才로서 일즉이學生時代에 大衆之光等雜誌를 發刊하여 文化運動에 貢獻한바잇으며그리고社交에能하여 在學時代에 學生會等의 會長을歷任하기無慮二十六次이엿으니 氏의 抱擁力을 可測할수잇다 氏가歸國後 即時 郭山消費組合理事로서 多年間經濟運動에 沒頭하다가 昨年에 面長에就任하게되여 方今面政에 全精力을 다하는中이다 將來計劃으로는 安興面은 硅石의 產地로서 有望性이 豊富한 地方이니만큼 該地에市街地를形成한後에 安義洞에 簡易驛設置運動을 實行할方針이라한다 氏는專혀 民衆을爲한事業에 熱中하니만큼 一般은 氏를 民衆의 代辯者로 推戴할氣勢를 보이고잇다 (사진은 金惠淳氏)

當代의風雲兒

鑛業家 李根宅 氏

當代의 風雲兒格인氏는 일즉이 早達하여 十六歲時에 平壤崇實事[illegible] 殷參事等을지내엿스며 年前百五人事件에 連座하여 [illegible] 其後郭山을 中心으로 經濟商會라는 經濟機關을 設立하고大規模의 協同組合運動을일으킨 先覺者이다 氏는郭山社會의 元老的功勞者이니 二十餘年前이미 烏江山의 民衆들이 아직愚昧하든 其當時에 氏는敎育의 必要를 먼저깨닷고 郭山近方에 三四十處의學校를設立하고 民衆의啓蒙運動에 沒頭하엿스며 또民衆의 精神生活統一을爲하여 基督敎를 信奉하는남어지 氏의손으로 建設된敎會가 四五十處에 達한다 氏는 三一運動의 起하자 上海로亡命하여 그곳에서 發行하는 ×× 新聞의 幹部로서 活動하엿스며 十餘年前부터는 歸國하여 鑛山에從事하는데 其成績이 良好하며 現在州選出平北道會議員의職에 在하며 平北百六十萬大衆의 意思를 代辯하여 活躍하는 當年五十三歲의 熱情的活動家이다 (사진은 李根宅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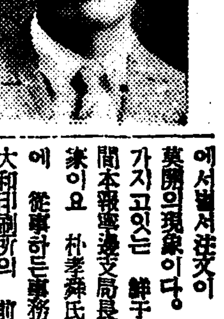
熟達한少壯醫師

金王錫 氏

氏는 三十一歲의 刀圭界의 少壯醫師로서 優秀한成績으로 京城醫專을 卒業한後 京城帝大病院外科에서 二年間을 勤務하면서 熟達한技術을 修得하여가지고 昭和九年부터 淸亭市에서 開業하엿는데 氏는性品이 溫厚沈着하여 患者에對할때에 親切하게 治療함으로 大能가功을 [illegible] 뿐아니라 氏는利己心보다 博愛心이압서는것이 仁術이라고하며 實業의 模範을爲主하여 淸亭을中心으로 遠近各地의 人氣는 淸亭에 集中하고잇다 (사진은 金王錫氏)

勤實한實業家

大和印刷所主 白樂銀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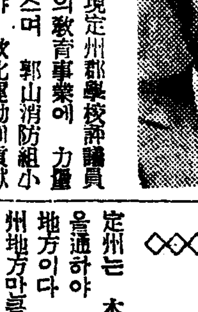
氏는 昭和二年에 新義州高普를 卒業하고 多年間 博川郡廳과定州稅務署에서 勤實히 服務하다가 平北中心地帶定州에서의 印刷業의 有望性을 늣기고 官界生活을 自退하고 巨大한 資本으로 今年六月에 大和印刷所를 開業하게되것이다。三臺의 最新機械와 二十名의 從業員을가지고 廉價主義를 標榜하고 氏는 溫厚篤實하고 親交에能하여 開業日은 日淺하나 平北各地에서벌서 注文이 殺到하여 服業界의 現況이다。氏의 開業關係를 가지고잇는 鮮于海星氏는 多年間 本報定州支局長으로 잇는 博學家이요 朴孝森氏는 多年間官界에 從事하든 事務家임으로 躍進하는 大和印刷所의 前程에는 光明이 잇슬것이다 (사진은白樂銀氏)

眼科界의泰斗

淸眼醫院長 金鎭成 氏

六代醫家에태여나서 代代로可憐한 病者에게 仁術를施하여 活佛의稱號를엇는名家이다。氏는祖業을繼承하야 幼少時부터 醫術을研究하여 十六歲時에는벌서堂堂한醫員으로 行世하게되엿다。氏는當時 眼科를專門하여 宣川 郭山等地에서 開業하다가 大正三年에醫生의免許를 得하여가지고 距今七年前에來定하여 開業하게되엿는데 氏의獨特한技術은 果然百發百中의 效果를나타내임으로世稱 氏를神醫라고한다。氏의高名한 醫術를探知한 平北一帶의眼疾患者가 每日數三十名이來訪함으로 入院室까지完備하고 治療에萬全을期하고잇다。勿論設備가 完全한 大病院에서도 治療치못하는眼疾이라도 氏의施術下에 完差하게되는 前例가非一非再이라고한다(사진은 金鎭成氏)

郭山代表人物 朴禹俊氏



氏는 性格이 豪放快活하며 重厚寬容한 卅六歲의壯年紳士로서 郭山社會의重鎭的人物이다 郭山에서의大小公事에 氏의參與치안는 곳이업스니 果是郭山의代表的人物이다 氏는現定州郡學校評議員으로서 定州의敎育事業에 力量을傾注하고잇스며 郭山消防組小頭의職에在하야 敎化運動에貢獻이多大하고 郭山金融組合評議員等 數多公職을가지고 地方發展을爲하야 心身을 消費하고잇는 前途有爲의人士이다 (사진은 朴禹俊氏)

齒科醫의權威인

定州齒科醫院長 朴扶榮 氏

定州를中心으로한 龜城朔州寧川博川等四五郡에 在來齒科醫師가 업음으로 一般이 밧는 苦痛이實로莫甚하든中 突然朴扶榮氏가 來定하야 昭和九年에 定州齒科醫院을 開業하엿스니 此는實로郡民의 熱望的期待에相副한 한이 沙漠에서 生命水를맛난것과가티 奮闘하엿다 이것이定州가 開設以來 齒科醫師로서의嚆矢이다 氏는일즉 培材高普와京城齒科醫專을 拔群의成績으로 卒業하고 同校附屬醫院에서 臨床의經驗을硏究한 當年三十歲의新進醫師이다 氏의卓越한 技術에는 이미 自他가 共認하는바이나 氏는 德義가잇고 重信이仁慈하야 赤貧患者에게는 無料施療와 投藥으로 遠近僻地에서 患者가 連絡不絕하야 郡內齒科界의 巨大한存在이니 氏의將來는 實로囑望이크다하다 (사진은 朴扶榮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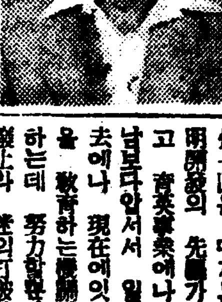
唯一의勸業模範家

三豊野人 金昊銓 氏

今日의成功을 보게되는 葛山面金昊銓氏는 少時부터 二十七歲時까지 四書三經을 通達하여 漢學者라 稱하엿스며 二十八歲時부터 家事에 從事하여 勸業模範家라는 稱譽이 藉藉하든바 距今二十五年前 氏의 三十六歲時에 地方發展과 產業增進을 自覺하고 德彥面及葛山面間에 介在한干潟地四個所를 漸進的으로 開墾하기를 于今三十年間을 不眠不休의 勞力과 莫大한 物質을犧牲하여 今日까지 幾百의 積功으로 良田五番數百餘町步를 得하게되엿다 現今氏가 開墾한區域內에는 三四百戶의 農家가 安逸한生活의基礎를엇게되엿스니 氏의一生에남겨노은 偉績일것이다 數年前에 附近住民들은 氏의功績을讚揚하기 爲하여 記念碑를建立하게되엿스며 氏의長子宅濟君은 現葛山面長으로面政에沒頭하고잇스니 一家를擧하여 地方發展에貢獻하고잇슴이 歷然하다 (사진은金昊銓氏)

農村運動重鎭 金義壽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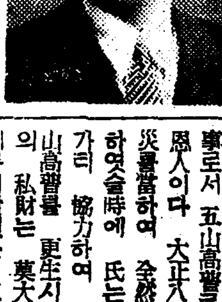
氏는 先天的으로 仁慈厚德하고 愼重篤實하여 人格과財產이 兼備한 當年 三十二歲의 青年



紳士이다 氏는 臨浦面出生으로 五山高普를거치고 日本留學을맛치고 歸鄕한後 專혀 農村運動과 敎育事業에 重責하고잇스니 昨年氏의 慈堂의 回甲宴費用五百圓을 五山高普에 寄附하엿슴은 아직도世人의 記憶에새로운 것이다 氏는多年間 眞信學校長의 職에在하여 實地로敎育事業에 熱中하여 私財를기우려經營하고잇는篤志家이다 氏의公共事業에 對한犧牲的熱誠과 大衆을

郡民崇拜의的

五山高普理事 趙始淵 氏



氏는當年三十九歲의 公益心이豊富한紳士이다 일즉이五山高普를 거처서 歸鄕後는 專혀 農村運動에沒頭하며 農村啓發에 貢獻이多大하다 氏는現五山高普의理事로서 五山高普로서는 엇지못할 恩人이다 大正八年五山高普는火災를當하여 全然 無望의頂에達하엿슬時에 氏는 金起瀚氏等과 가티 協力하여 財政的으로 五山高普를 更生시켜노앗스니 氏의 私財는 莫大히 消費되엿스나 氏 기를이말콧든 五山學校에는 再生의恩人이라고아니할수업다 거룩한뜻의 所有者로서 定州社會에 興한 利益은 一筆로記錄키難한 狀態이다 氏의 社會에對한 奉仕心과 高潔한人格은 一般郡民의 崇仰의的이되엿다 (사진은 趙始淵氏)

名勝古蹟

—開聖記蹟碑—

[illegible] 李朝太祖大王께서 高麗元帥로서 元兵을 擊破한 戰功을세우고 도되여 朝鮮國王이되섯다。其後王하여 [illegible] 李朝肅宗大王께서 本郡 [illegible] 聖蹟이 잇섯슴으로 人民等을 記念碑를 建立하고 [illegible] 을 列記하엿다。 (定州邑內北將山下)

—聖蹟碑—

定州邑城外洞에잇는 [illegible]

—社倉遺址—

[illegible] 古邑驛에서 西北二十里인 葛山面 五山에잇다 距今百年前 [illegible] 德彥三面의 社倉米와 出納을 目的으로 建立한곳으로 定州社倉三個所의 하나이다

—長城遺址—

高句麗時代에 [illegible] 止하기 爲하여 德彥面立岩에서 江界郡 [illegible] 까지 築城하엿든것

—忠義壇—

[illegible] 川江東麓에잇다。辛未十二月十八日 洪景來가嘉山、博川에서 敗入定州城할새 다음해正月에 官軍이來到하여 [illegible] 同年四月十八日에城을 陷落하엿다。當時洪景來에게 戰死한 六義士(韓白林許諸金)와 官校十八人合計三百二十八人의 忠魂을 祭祀하기爲하여 [illegible] 本邑人이 建築하여 其魂을 慰勞하엿다

—大陣峴—

高安面松亭洞에在하여 距今百十 [illegible]

—玉壺洞藥水—

[illegible] 郭山驛을 距하기約四十里의 地點에在하여 [illegible] 數百年前에 發見된名藥水로서 多量의 炭酸을含有하여 消化力을增進시김에 效果가顯著하다。每年夏期에 遠近各地에서 [illegible] 客이 數三千名이나 다녀가고잇스며 交通이便하니만큼 今後 만히 利用될것이다。

—表節祠—

表節祠는 馬山面新五洞에잇는데 洪景來亂時에 七義士와 [illegible]

—石窟菴—

郭山驛을 距하기 西北方으로 約十里、觀舟面舟洞 [illegible] 山中에 介在한 天然的石窟로서 形狀이 [illegible] 高四五米 [illegible] 約十平方米나 되는데 石窟面에는 三尊佛四天王이라는 彫刻이잇다

—何日里浦—

雲田驛을 距하기 東方으로 約十里되는 大寧江岸에在하여 明治三十五年 日露戰爭 [illegible]

—納淸亭八景—

[illegible] 十里 馬山面에在 [illegible] 江水가 [illegible] 만혀스나 [illegible] 을모아서 [illegible] 다 納淸亭八景의 牧牛山의 [illegible] 、淸溪의 [illegible] 月白米山의 夕陽漁夫의 [illegible] 의 舟遊、加塵江의 [illegible] 紅葉以上을 八景이라하여 [illegible] 와 아울러 有名하다

文化의發達과 基督敎의功獻

牧師 趙時漢

甲午以前에는 [illegible] 文人才子를 만히 輩出하엿스나 定州인데 지금은 基督敎가 四十年前부터 輸入되여 現在三十餘處의 敎會가잇고 一萬餘平의 直하는 敎徒로 其役割은 자못크다 朝鮮全般은 莫論하고定州一圓을 따저본대도 이社會文明開發의 先驅가 基督敎가되엿고 育英事業에나 慈善事業에도 남보다압서서 일하여나갓다 過去에나 現在에잇서서 無盡兒童을 敎育하는機關과 文盲을退治하는데 努力할뿐아니라 早婚의 廢止와 迷의打破와 野蠻眼習을 矯正하는데 基督敎는 先驅가되여왓다 男尊女卑의 惡道德을打破하고 男女平等의 自由를 謳歌하고 女子敎育을 先唱하여이 社會의文明 이家庭의向上 이家庭의 平和를爲하여 努力하여왓다 基督敎는 이社會文化의母요 平和의神이다 留置場이나 監獄이 人을改過遷善케못하고 또한 心理의變化를주기어렵다 敎化의 母요平和의神인 基督敎가아니고는 그役割을하기어렵다

外地에서活動하는 定州出生人物

定州는 本是小京이라하여 古今을通하야 數多한人材를 胚胎한 地方이다 現下朝鮮에잇서서 定州地方만큼 人物을 만히가진地方이업스니 이제 外地에서 活躍하는 知名人士의 一部만을 紹介하려한다。(無順)

玄相允氏 中央高普校長
金興濟氏 普專講師
金道泰氏 徽文高普敎員
白樂濬氏 延專敎授
方興郁氏 朝鮮日報社取締役
金相福氏 崇仁商業學校長
金鎭植氏 崇仁商業學校敎員
白鳳濟氏 中央高普敎員
金 億氏 詩人
李石薰氏 詩人
白 奭氏 永生高普敎員
徐 椿氏 朝鮮日報主筆
李光洙氏 小說家
方應謨氏 朝鮮日報社長
白麟濟氏 醫博、京城醫專敎授

金善欽氏 每日申報發行人
白重彬氏 天道敎靑年黨監事
金鎭八氏 天道敎中央宗理院
承寬河氏 天道敎靑年黨首
劉相敎氏 露西亞亡命中
李根厚氏 中央高普敎員
方鍾鉉氏 城大研究室
白鵬濟氏 中央高普敎員
崔芝馨氏 朝州道立醫院
桂燦謙氏 博川郡守
洪仁錫氏 光州法院判事
崔龍善氏 漢美熙長醫院長
卓昌河氏 辯護士
金仁明氏(女) 藥劑師
鮮于赫氏 上海實業家
韓京淳氏 醫博 京城西大門町

開業

趙鵬日氏 濟眼回醫院長
盧義根氏 朝鮮日報整理部次長
白受鉉氏 京城醫專病院
金德俊氏 辯護士
鄭翊采氏 中國天津實業家
趙顯濟氏 惠山鎭道立醫院
林昌善氏 城大醫學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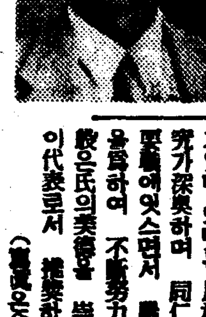
(以下는紙面關係로略함)

漢醫學界巨星 文五釆氏

氏는幼少時부터漢學을 專攻하야 十八歲時에는 醫學에뜻을두고 漢醫學을修得하여가지고 二十四歲時부터는 獨自研究를加하면서 南西面上端洞에서 開業하엿다。氏는特히 小兒의의症(肺炎及 氣管支炎)及婦人의月經不調 受胎不能에는 多年間經驗에依하여 零落엇시治療를하는데 死境에陷하엿든 小兒의病도 氏의主治下에完差한例가 枚擧키難하며 現代婦人病의 流行病이라할수잇는 月經不調로 多年間呻吟하며 苦悶에까지 波及되여 成胎[illegible]하는女子는 氏의神秘한藥材를 服用하고 受胎한婦人이 多數하다 그러니만큼 氏의醫院을訪問한 婦人 小兒가 隣郡各邑村에서 連日 五六十名에 達하여 이른施療하기에 眼事奔忙의 現狀이다

定州實業界의彗星

同仁水利組合長 金信稷 氏



氏는定州實業界에서 活躍하는前途有望한 篤實家로서 大衆指導에 特殊한 素質을가진 可謂政治的人物이다。氏는京城高等工業學校應用化學科를 마치고 卒業後六個年동안은 普校訓導로 在職하엿스며 其後四年間을 大阪等地에서 商業界에 對한 研究를거듭한남어지 再次歸國하여 雲田驛前에 養信商會라는 穀物貿易商을經營하는데 規模가 宏大한 것은勿論이요 氏의科學的商略下에 業績이 順調로 進行되여 果然定州實業界에 鬱屈的地位를 가지고잇다 또다른 農村問題에 恒常研究가深奧하며 同仁水利組合長의 要職에잇스면서 農民의生活安定을爲하여 不斷努力하는니만큼 一般은氏의美德을 崇拜하여 郡民이代表로서 推獎하고잇다 (寫眞은金信稷氏)

著名商店紹介

鍮器製造業界覇座 納淸亭鍮器會社

우리의 日常生活에 不可缺의鍮器는 納淸亭의 特產으로 他地方의 追隨를 不許하는 燦然한 千古의歷史와 傳統으로써 斯界의覇座를占하고 잇슴은 贅論을 不要하는 周知의事實이다 그러나 其製造工程이 封建的家內工業形態를 離脫하지못하엿고 或經營의 散在한 數十餘戶主의 無理한 競爭은 該業의月益衰退를 招來함에 따라 近三百餘戶의 生活安定에 一大危機를 주엇스니 이는社會的重大問題로 이地方의疲弊와 朝鮮特殊產業의 沒落을 加速케한바 되엿다 이에 昭和九年度에 淸元勞働組合[illegible] 相當한 資金以外에 年額資金 [illegible] 給付키로하고 十餘年後에는 會社經營權을 讓渡하는代償으로 淸元勞働組合은 職工의 賃金 事業統制를 保障한다는것을 骨子로한 契約이 締結되여 從來經營者의 九割以上을 網羅한 十五萬圓資本金의 株式會社가 創立되엿다 同社는 朝鮮特殊產業의 唯一한 機關으로 全朝鮮良大生產額의 約七割을 占하야 從前年產額의 倍以上이 增加되여 三十五萬圓을 突破하야 實現코저함이니 同社의 發展과 아울러 淸元勞組의 將來를 祝福하야 마지안는다 同社社長 朴文圭氏는 早大出身의 三十歲青年實業家로 定州社會各層의 企待와아울려 將來가 囑望되는분이요 專務 卓昌浩氏는 法曹界에 名星이요 平北官界에 龍變된 卓昌洞氏의伯氏로 頭腦가明晳한 自手成功家로 理財에卓越한者이다 兩氏累代表로서 同社는 圓滑하게 發展하려니와 良心잇는 企業家로 하여금 勞組關係에 有終의美를 거두소서 同時에吾人은 淸元勞組의將來를爲하야 付託하노니 勞組員은 自力의 利益과 勞組의發展을爲하야 아니特殊產業振興과 地方發展을爲하야 銘心하여야될것이다 아직大衆的訓練이 不足하고 共存共榮의 意識이不足함을 再認識하고 團結과 努力 協調와 自制로써 十餘年後朝鮮의鍮器는 淸元勞組가 提供하야주기를 渴望하는바이다

◇寫眞…納淸亭鍮器會社社屋全景

定州商界의權威 和信連鎖店

벌서 數年前이다 定州中央要路에 聳立한 三層大建物이 잇스니 이것이 和信連鎖店定州百貨店이라고하는 鮮于燻氏의 經營商店이다 開業以後二年餘에 其業績은旭日昇天의勢로 發展의發展을加하야 斷然定州商界의 모든人氣와 販賣網을 獨占하여버리고말엇다 누구나 이商店에드러가보면 店內의活氣가 넘치고잇는것을 볼수잇다 그야말로 어느때나 顧客이上下層에끗칠때가업다 筆者의보고듯는대로 全朝鮮和信連鎖店中에 定州連鎖店의 成績이其中良好하고 順序라고한다 何如間에 店主의말을 드르면 처음豫想보다 四倍나지내친다고한다 上下層에 整備된 百貨와 食堂製服部等을 合하야 벌서年八萬圓以上에 實高가 잇다고한다 이것은定州에서 처음보는 現狀이요 隣邑에서 보지못할 實로놀라운일이다 此는氏의 非凡한手腕과 平時에 蓄積된人望과 氏의信用의 今日에 擧을 만드른것이라고評한다 氏의事業은 [illegible] 昨年에도 又今年에 增築을하야 大規模의 百貨店으로 擴張하엿고 도다 도그는 今番和信連鎖店 開業當時에 全朝鮮에서 最多數로 特等이三人이나 當選되엿 지잇다

西鮮穀物界覇王 古邑 三合精米所

古邑驛前三合精米所의 業蹟을 紹介한다。大正十年十月十日에 白樂正 李鍾昌 白周鉉 金起鴻 徐春培 洪濟九 李秉圭 李鍾武氏等의合資로써 安來製造 穀物貿易 肥料販賣 滿洲粟 材木等을 取引하게되엿는데 業蹟은 日就月長하며 現今은 雲田 路下 南市 龍川等地에 支店을두엇다 古邑發展은 三合과 密接의關係가잇다고할수잇다 이제 本支店의施設을보건데

本店 精米及穀物倉庫 三三三坪
本店精米高 年二百車
支店精米高 年二百車
本店員 十三名
支店員 三十名
本店職工 二百名
取引先 東京 大阪 博多 [illegible]

和信連鎖店

五山消費組合

和信連鎖五山消費組合은 故南岡李昇薰先生 生存時에 中間商人搾取排除를 目標로 昭和四年四月에 設立하엿다 創立時 組合員은 不過三十名(當時五圓均一出資)이든것이 現在는 二百五十名(現在十圓均一出資)의 組合員을가진 大組合이되엿다 昨年四月에 組合長 李寅洙氏와專務 桂成燦兩氏가 合力하야 和信連鎖店을 引受하여 五山消費組合과 兼營케되엿는데 百貨를 取扱하는데 年販賣額이 三萬餘圓에 達하는 好成績을 保持하고잇다 販路는 附近一帶에 王者的地盤을 가지고잇스며 五山高普의 用達을 兼하여보고잇다

丸加印刷所

平北印刷界覇座

창업實業家 盧泳根氏의經營으로 大正九年設立以來 飛躍的發展을 遂하여 平北印刷業界를 斷然리드하고잇다 平北一帶에 互하며 丸加의商品이 進出치안는곳이업시 販路를開拓하여옴에는 驚嘆할바이다。現在二十餘名의 熟練 職工으로 電氣모타발동機四臺에서 每日五六萬枚의 能率을내여 年四萬餘圓의 賣上高가잇다고한다。丸加의生命은 印刷의鮮明製品精選 發送迅速인바 印刷技術의 卓越보다 品質이優秀하다는 定評은 世人共知의事實이다 그밖에 營業種目의 一部를 紹介하면 印刷 文房具 帳簿 和洋紙 更紙 邦紙 板紙 其他各種紙物 同原紙賣하고 其他各種附屬品 高級事務用品一切等이다

運搬業界總本營 平安貨物車部

定州定期運搬의 物產運搬의 重大한 從事하고잇는 平安貨物自動車部는 昭和七年五月에 運輸界의 先覺者 崔東俊氏가 經營을 擔當하여가지고 十餘臺의自動車를 購入하여다가 營業을開始하엿는데 距今三十餘輛에達하는 活況을 묘하는 이 自動車를 購入하여다가 每日運搬業務를 營하는데 專務金元燮氏는明晳한頭腦의所有者로서 平安貨物車部發展의 支柱的役割을다하고 잇다

朝運株式會社 定州代行營業所

定州運輸界의巨頭 朝鮮運送株式會社定州代行營業所는 代表者崔泰鉉氏擔理下에 四十餘名의 從業員이 勤實히 努力하고잇는데 業蹟은 如左하다

(以上十年度統計)

發送小口 一八一六噸
同 車扱 七八五七
到着小口 二三五二六
同 車扱 七五三一

定州貿易界 本營"海陸商會"

定州貿易商界의 總本營海陸商會는 距今一年前에 定州實業界重鎭 許龍燮氏의 經營으로 滿洲粟 陸產物 海產物 精白米等을 貿易하는데 年賣上額이 五十萬圓에 達하며 取引範圍는 東洋的으로 뻐치고잇다 三年前에 古邑에支店을設置하고 大大的으로 活躍하고잇어 其成果를 올리고잇다

祝 定州地方紹介版發行

古德面 金起鴻
古德面 劉成祚
古 邑 白周煜
葛山面 金昊銓
葛山面 李秉憲
葛山面 金春億
雲 田 金信稷
雲 田 雲南商會
古 邑 三合精米所
古 邑 古邑百貨店
古 邑 朴天圭醫院
葛山面 五山醫院
淸 亭 至誠醫院
雲 田 和信連鎖店
葛山面 五山消費組合
郭 山 三和商會
臨浦面 金義壽
觀舟面 金文度
天道教定州宗理院
定州邑 鴨江寫眞館

定州邑內 素麵製造 自轉車商 朱鳳明商店
古邑驛前 新興商店
定州邑內 定州木工所 李根洲
郭山驛前 ㊁荷主運輸組 金□□
定州邑內 石油 穀物 金昌商會
朔州郡南西面 昌興金山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定州支所
定州邑內 萬味屋
定州邑內 裁衣堂
定州邑內 平安製□社

稀有의鰮漁凶으로 二十餘工場遂閉門

가을時期에再起를準備할뿐

漁港元山에致命傷

【元山】 고래하든 여름정어리는 해류의관계로 원산마일대에는 회유의몰어옴나어 잡도 못보게 되고 그절이 그절이지라 이제는 절망상태에 날으렷다고한다 그리하야 준절이후 만반의작업준비를 갓추고잇든 원산어항내의 이십칠처유비 공장에서는 요지음에 이르러는 불득이 공장문을 다쳐버리지 안홀수업는 현상에 이르러 이에 종사를하든 천여로동자들도 혈줄을 잇스며 회통여과 어항처처에차여잇는 상련이가든 장작(火木)과 소꿈 동도노한 점자(苫子)새기거치통 농촌부업들에 헐이기까지 정어리공장의수요가 업서대타격을 밧고잇다고한다

이외가리 글록에 연괴조치을여몽로 각공장에서는 불득이금후 가을정어리를 바랄수밧게 업다는데 궁하절에 여차히 불어가 엇섯슴으로 가을마저 또한 잡히지안홀가하여 우려를마지안는다고한다

金銀商들과結托한 金密輸事件綻露

關係者數名을檢擧

【平壤】 평양서에서는 십이일밤 부내 모처에서한 권관에서 신사동의 인들 수명을 검거하고 취조중인데 어자들은 부내 금은상들과 결탁하고 대규모의금괴밀수를 하든것이 판명된모양으로 아프로 전후자가 만히검거될모양으로 매우 주목되고잇다한다

大浦金融組合 評議員合流會

【大浦】 강원도대포금융조합의의사 불신임사건 부정처사 실임조건을 열거한 진정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그엄정한처단을 기다린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칠일에 처음으로 평의원회를 소집하엿든바 평의원중 한사람만이 출석하고 그외는전부 출석치아니햇스므로 회의는 드듸여 유회되고말엇다는바 이갓흔사태를보아 사건해결전에는다시소집할희망이업슬뿐더러 만일 진정이 여의치못할때에는 평의원들은 전부 사임까지 단행하기로 [illegible] 조합원들을 [illegible] 동중에잇는 본조합의 장래를위하여서 일반은 감독당국의 제단을 크게주목한다고한다

釋王寺의盜難事 金相鎰遂送局

【元山】 함남□□□□ 안변 석왕사(釋王寺)에 배입하여사건이 발생하야 세상의 이목을 놀라게하고 불문에 오점을 남긴사건은 세인의 긔억에 새롭거니와 수일전에는 다시 안변서사에서 활동을개시하야 갑부 전상호(□□□□)(二□)를 붓들어다 엄중취조한결과 지난 십삼일에 입건서류와함께 어부□□□로 원산검사분국에 송치하얏다 그런데 그는 오전검거시에도붓들리여와서 배임죄로 사전검사의 취조를 밧다가 긔소유예 처분을 바든자인데 이번에 다시 새로운사실이 발각되여 그와가려 피체된것이라는데 일반은 그의 취조에 따라도다시확대되지나안흘까 주목하고잇다한다

覆面强盜續發하는木浦府內 青年團이警戒에動員

—犯人依然杳跡—

【木浦】 루보=자난삼월이십오일을비롯하야륙원십일창고칠개월간 련속적으로 목포부내에 복면강도사건이 발생하야 경찰의 철야 경계망도 결국 수포에 도라가고 일반부민의 불안은극히 심각하야지므로 유지측에서는 자경단이나 청년단으로하여금 경계에 출동하도록 요망하엿든바 복면통흉 혈안(血眼)으로 범인체포에 활동하든 목포경찰서의 전서원은 사건 발생이후 한동안음을 엇지못하고범인은 의연오리무중에 사라지바림으로 할수업시 지난십일부터 청년단원을동원을 바리번인제포의 경계망은 가일칭 확고하야 엄중한 활동을 계속하고잇는바 일반부민은 다소불안을 노케되다하며 범인의 체포는아프로 시간문제라고한다

三種所得稅 高城稅務署管內

【高城】 고성세무서(高城稅務署) 관내에서 제삼종 소득세 부과는 저간에위원회를 개최하고심사를 종료하여엇는대 그실황을 탐사한바에의하면 세액은 오만구천여원으로 전면에비하야 배액에달한다하며 인원도전면 납세인원도 삼배인칠백삼십삼인으로증가되여다한다

出廷被告十九名의 國有林盜伐事件

最高十個月、最下罰金刑言渡

通川森林令違反事件

【元山】 통천산림보호구(通川森林保護區)의 산림주사를 표정에 수차향응하고 수만원어치목재를 도벌하야 팔아먹은 통천군학일면 패천리(通川郡鶴一面沛川里) 박승태(朴承台)(四七)등십구명에대한 삼림령위반동회수회도박 배임에관한언도공판은 지난십사일 오후세시반부터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문(文)판사담임과 사전(寺田)검사 간여로 피고 박승태등 십구명의 출정리에 개정되여 판사로부터 다음과가튼 언도가 잇슨후 동네시에 폐정하얏다는데 이제그들의 범죄내용을 들어보면 전긔박승태등 십구명의 목재상들은강원도 통천군에 주재하는총독부산림주사 김동권(金東權)(三二) 소전원일(小田原一)(三七)등에게 수회에궁하야 증회(贈賄)와 향응을하고 전긔산림보호구관내의 수십만정보에 울창하게 들어서잇는 전고에부월을 넘지 안흔 삼림에서 한사람이 수회에 매처수백원내지 수천원어치 목재를 도벌하야 먹엇다는 것인데 그중멋사람이 한번에 수십원내지 수백원씩을하고 도벌을 평장히하다가 통천서에 알려진바되여 지난정월에 관계자사십여명이나 피검되여 취조를받다가 지난삼월에 원산검사국에송치되여 사전검사의손으로서 준엄한 취조를받고 죄상이경한 이십여명에게는 략식명령으로 석방한후 남어지이십명만 공판에 회부되여 그동안 두차례의 공판을 첫치엇는데 그사이에 전창인(全昌仁)은 미결중에 사망하얏다는바 그들은 모다그지방에서 큰목재상을하는사람들이라고한다

◇言 渡

朴承台(四七)懲役十個月罰金五百圓
竹和今鶴氏(三?)罰金二百圓
韓昌鎬(二?)罰金三百圓
徐載日(三四)罰金二百圓
張亨俊(三九)罰金二百圓
金麗浩(三三)罰金三百圓
李完海(二四)罰金二百圓
李華伯(三二)懲役六個月罰金百圓
金鐘寶(三三)懲役八個月
李應用(三五)懲役六個月罰金百圓
張景烈(三一)懲役六個月
林元植(三九)懲役六個月
金基南(三四)懲役六個月罰金百圓
韓文源(二八)罰金三百圓
金錫璜(四九)懲役八個月罰金二十圓
金東鎬(三?)罰金二百圓
金永吉(二四)懲役六個月罰金百圓
金東權(三二)懲役八個月、罰金五十圓
小田原一(三七)懲役六個月
(懲役十一名에는 各未決拘留四十日通算)

都計諮問府會 八月初로延期

【平壤】 시가지계획령에 긔초할 평양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사회의조문후 평양부회에 자문하기로 되여잇섯스나 최근의 정보에의하면 팔월초순으로 연기하게될모양이다

부당국에서도 제이번전소설렴비 삼십만원의 긔채와 추가예산계상에관한 부회를 금월중에 소집할의향을 지엇섯스나 삼십만원을가결하여도 금년중에완성은가망이업스므로 고교(高橋)부윤도부회를 급속히 소집코저하지안는태도이어서 결국도시계획안자문과동시에 제안할의향인데 일반부민이주시든이번부회도 팔월초순으로미끄러질터이라한다

部落民數百名殺到 列車防害者奪還

岐陽驛附近에서騷動

【平壤】 십이일오후아홉시경진남포를출발하여 평양역으로향하는 렬차가 기양(岐陽)역부근에다다럿슬때에 술취한 사람이 렬차를 방해햇스므로 긔관수가 붓잡아 긔차에실고 오려할때에 부락민수백명이 긔관수를 포위하고 못다려간다고 야단을하고 그남자를 탈환해갓다

평양에서는 용서할수업다하여 어데까지던지 추궁할 작정이며 이때문에 긔차는 오분간이나늣저젓다한다

兩農場作人亂鬪 二十餘名重輕傷

金、金海兩農場에서引水問題로

安岳郡大遠面不祥事

【安岳】 황해도안녕수리조합구내 안악군대원면(安岳郡大遠面)김농장소작인(金農場小作人)대 김해농장(金海農場)소작인들사이에물싸홈이 버러젓다 가물이심하야 안녕수리조합 저수지에 물이말을지경이어서 단수되지도 수십일후인 지난이일 오후비시경안악군대원면에 소재한 김농장소작인과 안악군안악면신해리(安岳郡安岳面新海里)에 소재한김해농장소작인들의 유화전이 이러나 중경상자 수십명을 내엇든데 그원인은 대원면긔간을흘러서 신해창으로 드러가는수로 제일배이십사호 저선조정수문을 김농장소작인들이 간년관개(間斷灌漑)를하는데 가물에 밧작밧작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보고는 참을수업서 서로 물차홈을 한모양인데 안녕수리조합은 저수지도 상당히커서 상당한물을 가지고잇스나 이가물에는 엇절수업서서 수십일전 저수지로부터는 단수를하고 수로에잡혀든물을 발동긔로 수문을열어서 간단관개를하는데 남의수로를막고 시간이지내도록 물대다는리유로 김해농장 소작인들이 곤봉을들고 김농장사무원 최경옥(崔景玉)씨를 란타하고 수문을열고 야단을치는것을 김농장소작인들이 도한몰려들어 서로 곤봉으로 편싸홈이 낫다 급보를접한 소관주재소에서는 안악본서의 응원을어더 공의송영찬씨를 대동하고 급거하야 극력만류하고 즉시로 부상자들은 최경옥외 김해농장 소작인신이명을 응급치료하고 사건의진상을 방금 조사중인데 이물싸홈의 원인된 방외 주모자가되엇든사람 명식 소환하야 동주재소에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少年時代社主催 兒童問題座談

宣川支局後援

【宣川】 선천군신천면소년시대사(少年時代社)에서는 그간만난을 무릅쓰고 소년잡지 소년시대(少年時代)제일호를 발간하엿다는바 해사에서는 그를자축하는의미로 사계의 유지명사를 초청하야아동문제(兒童問題)좌담회를개최하기로 착착준비중 일반인사는 만히참여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地方人事

▲吉利基美氏(元山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社元山支局來訪
▲韓鍾俊氏(廣東醫院長)開業人事次本社高城支局來訪
▲平原保(馬山殖銀支店長)大邱殖銀支店轉任人事次本社馬山支局來訪
▲中村(馬山殖銀支店長)新任人事次 同上
▲李新千氏(靈巖郡守)新任人事次本社靈巖支局來訪
▲吳世尹氏
▲金泰僕氏(錦白郡守) 新任人事次本社錦白支局來訪

愛慾의彼岸 【56】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이 건호라는 청년은 영호를 륙거리면서、

「살 가망은 어지오? 두 룽을어 다 죽는 목숨인데 의사를이 엄원을 해서 수술이나 하여보면 혹 살 도리도 잇다고하니、어되 돈이 잇어야 아나하오? 세간어라고 모두 들들겨팔아야 십원이 나올까말까하고。입원하자면 야중에는 어쩌갓든지 당장 보증금 삼십원은 잇어야 한다고 하니、백사지에 돈 삼십원이 어듸서 나오? 그렇다고 두 목숨이 다 죽는것을 그냥 보고안젓을수도 업고。그러니 생각다못해서 샹회로찻지오。어듸 한칼 월급을 마래돌려주실수업슬까 하고。이거 도모지 염치업는 말슴이외다마는 세 식구를 살려주시는 셈처고 한 삼십원 돌려주서요。설주사가 하시라면 될듯도시프니」

하고 운주의 눈치를 보아가며。

처오네 계집、자식 죽고 사는것을 내가 어찌 다 아는냐고。밥벌이나 떨을 안 보고서 돈이무슨 돈이나고。퇴직금이라니무얼 잘한일이 잇기래 퇴직금이 무슨퇴직금이냐고。그동안 십년 가까이 먹여살려준것만해도 고마운줄 모르고 그런다고—글세 세상에 그럴 말시법이 잇서요? 돈이면 다제일인가요? 내가、그야、변변한 사람이야 못되지오、잘한일이야업지요。참말 설주사가 나를보아주시지아니햇스면 벌서 쫏겨낫서야 올치요。설주사 은혜는태산가튼줄알지오。설주사가트신양반은、젊으신 양반이시지만、세상에 드므신 양반이시지오。그러키로니、그러타하기로니 이놈인들 놀고밥만 어떠먹은것은아니지오。나룰내어좃고라도、퇴직금으로라도 돈사십원만 돌려달라는데、그것을 아니 해주어야

「염치업는 줄은 압니다。이달에는 벌서 보름스동안이나 놀고 무슨염치로 월급을 달라고하겟서요? 그러치만 나도 이대 일을 근십년 보앗스니 퇴직금 주시는줄 알고 삼십원만 돌려주서요」

하고 애걸하는드시 고개를 숙우리다。

운주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시는바와 가티 내가 무슨 힘이 잇서요? 내가 어떠케삼십원은 돌려줄수가 잇습니까。주인어른께 말슴을 들여보시지오。」

하엿다。

건호는 담이 꺼지도록 한숨을 지우면서、

「설주사 돈 업스신줄을 낸들 모르나요? 다 압지오。그러치만」

하고 머뭇머뭇하다가、

「그러치안하도 지금 주인 장로人댁에를 대게오는 길이라오。가서 무슨 말슴이야 아니해보앗겟서요? 그래도 안 된다는걸—행이지 오늘은 대단히성이나서서—언논 놈이란 그리

올하요?、네 계집、자식 죽고 살고 내가 무슨 아랑 곳이나고 해야 올하요? 그래 김장로는 만년 부자로만 사는 사람인가요? 자긔는 안해도 업고 자식도 업나요?」

하고 점점 더욱 흥분해가며、

「아이구 제것 업는 놈은 다 이러케 설움을 바다야 올혼 세상인가요? 제것업는 놈은 다 죽어야 올혼가요?」

하고는 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흥。예수를 믿는다고。장로라공。예수믿는 사람이 그래? 아이구」

하고 절망적인 한숨을 쉬다。

이 모양을 보고 운주는 금고에 잇는 수백원의 지전과 은전을 생각하지아니할수업섯다。그리고 당장 들고나가기만하면 돈이 될 금부치 은부치를 아니 볼수가업섯다。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할수잇는것이 아니엇다。

건호는 과연 눈물잇는 정원은 아니엇다。그러 미련이 잇는 정원도 아니엇다。그러치마는 어둡고에잇는 돈 중에는 건호의 죽어가는 안해의 피人방울이라 갓난이가족을 버이먹엇을때에 악먹흘미원으로는 써저야을방울이 잇을것만은 확실한것 가탓다。

운주는 가만히 눈을감앗다。

매독

ネオ、スピロヂン

京城南大門通

大同製藥社

高貴基本美肌劑

效果大躍進 獨特逸許 스킨호르몬性劑 를應用한때문에

マスター 마스타 引上

美化力의向上과原價의躍騰

原料의關所

西洋理學博士의 研究室아라하는關所에서 嚴重한科學檢査를마치지안코 合格되지못하는것이 여러분의마스타ー香粧品 맨드는原料와芳香에對한 規定입니다、特히마스타ー의바늬싱의商品은항상 最高標準의原材料를 應用함으로써、自然、只今까지의價格은참으로써ー비스 價라하여도過言이안입니다。

效用力强化의要望

그런데、近來愛用家의 크림의効用에對한 希望은 至今까지에거츠름 防止、整肌에만끈치지안코 ▲살바탕의根本的生氣잇는 美即살결의更少에까지 進展되엿습니다、

西洋理學博士苦心

그리하야 數年에亘한結果、驚異的美肌作用을가진 〃라세린〃 이라하는 獨逸專賣特許의 高貴한榮養素……스킨호르몬 性劑를마스타ー의크림 兩種에 巧妙하게應用하는것을 發見하야昨年末부터 實行하고잇습니다。

美容界와키네마

그리고스타ー等의 美에 敏感한분들게美의 센세ー손을이르킨것은 勿論어며 한家庭에서라도한번 使用하신분은、크림은 斷然마스타ー가第一이여! 그러케絶讃의大好評을 밧고잇습니다

原價費의引上

그리하야好評을밧는 一面製造元의採算은 未曾有의困難을 밧고잇습니다。그러치만 價格때문에、이러케굉장한 美化力을가진 스킨호르몬 性劑의應用은 決코、中止안되며、말하기는딱하지만、이런美化力의躍進에따라、原價騰貴의멧分別記와가티가장 少額만을愛用家諸位에 負擔식히려하는 바이며、이効用强化의 크림二品을一層더愛用하시기를바라는 바입니다、더욱히 尙美堂은 愛用者들의 참다운生生한 美를爲하야 一層더努力를 다하려하는바입니다。

改定値段

マスター クリーム (バニシング) (中瓶) 五錢上げ
マスター クリーム (バニシング) (小瓶) 參錢上げ
マスター クリーム (コールド) (大瓶) 參錢上げ
マスター クリーム (コールド) (小瓶) 貳錢上げ
新發賣 マスター (バニシング) クリーム (大)

비타민D와스킨호르몬性劑의 **綜合美化力**

살결의脂肪과때·白粉티를말쑥하게 除去함에는最適의粘稠度에 成功한 마스타ー의콜ー드는 乾化도가장完全하며、그뿐아니라日光에맛다이면 곳美肌効果滿點…▲벼꺼룸을 防止하는 비타민D로變化되는特殊成分과皮膚細胞에美의營養과 活力을補給하야老廢物을排泄하는作用이 强한 獨逸特許의高貴한라제란이라하는스킨·호르몬性劑를훌륭하게코로이드狀態에 巧妙하게配合하여合으로이두가지 綜合美化力으로 살바탕에生氣잇는 美를創造하게됩니다

マスタークリーム (バニシング)

東銀首腦部大異動

取締役會長就任을閔奎植氏不肯
成樂憲氏의滿期로成元慶氏常務
市川常務는專務兼代表取締役

總會席上空氣重視

東一銀行서는 十四日臨時重役會의結果 頭取閔大植、取締役尹呼炳의兩氏가 辭任하기로되엇은 昨報한바어니와 專務、成樂憲氏는 今期가滿期되므로 이改選에잇서 그代에 旣報한 本店支配人인成元慶氏를取締役으로選任하야 常務로 專務는市川常務가 昇職하고 또 尹呼炳氏의代에는 同行本店支配人 閔圭植氏를 選任하며 그밧게 滿期의取締役 吳鶴泳、監査役 李升雨의兩氏는 重任케될듯하다 그러나 이번 頭取閔大植氏의 辭任後를 엇더케할것인지는 各方面의 注目을 끄을고잇는바 取締役會長으로는 閔奎植氏를 推戴하려하엿으나 氏는 이를 不肯하엿다 그러므로 이것이 三十日의 定期總會에서 어떠케 決定될는지 注目되는바 取締役會長制가 생기게되면 取締役會長에 閔奎植氏가 就任하고 代表取締役에 市川氏가 되리라고 한다 (寫眞은 新任될 常務 成元慶氏)

新陣容檢討

頭取制廢止徑路

複雜한事情糾合結果

東銀은 創設以來 定款에 頭取制度로 오늘까지 改正이 업섯는데 이번 頭取閔大植氏는 辭任하고 頭取의 代身으로 取締役會長制를 두기로 되엇다 [illegible]

總會議案內容

一、營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及利益金處分案承認의件
一、第六十期利益金處分案決議의件
一、取締役閔大植、尹呼炳辭任에對한改選의件
一、定款一部改正
一、出張所新設의件、代表取締役選任의件

(一) 東銀의 整理案이 成立되면서부터 頭取閔大植氏는 頭取는 勿論 平取締役까지도 내여놋코 辭意를 表明하여 왓스나 重役의 反對로 이를 撤回하는 등 이問題를 中心으로하고 波瀾을 거듭하여왓다 그러다가 今年二月에 이르러 同氏는 거의 全然 銀行에도 나오지 안케되어 新銀行當局과 理財課에서도 [illegible]

"取締役會長"

大體職能이무엇인가

(二) 그러면 새로히 取締役會長制를 둔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함인가 그러면 이 會長은 大體의 職能이 잇는가 이것은 다음의 各銀行定款이 밝히 말하여주는바와 가티 銀行의 取締役會와 株主總會의 議長으로되야 그會議進行上便宜를 圖하는 일밧게 [illegible]

結局의歸着點?

市川專務의中心으로

東銀의 總會에서 頭取制를 廢止하고 取締役會長制로 고치게 되리라함은 以上과 같은바 [illegible]

南大門市場商人

去就兩難彷徨

中央都賣市場問題具體化로

各自利害關係注目

中央都賣市場問題로 有志들은 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는 滿期總會席上에서 商事會社設立件을滿場一致可決한後 創立工作을하야 오래時日이걸녓스나 南大門商人들의 實力으로는 큰會社創立이至難하야 元胤洙氏의 主力을期待하얏스나 氏는 表面에나서기를 피하고 아니하다가 齋藤久太郎氏와 握手한後 正式發起人會에까지 進行되고 其間京城食料品株式會社株式申込證據金을 바더는데 資本金百萬圓(二萬株)中 證據金을낸것이 約半數인 萬株未滿이며 十五日現在 名簿에 百株以上申込者를적어보면 如左하다

▲五千株 齋藤久太郎 元胤洙 ▲一千株 內田近雄 李佐鉉 ▲四百株 鄭斗和 三百株 孫完榮 金光準 ▲二百五十株 金錫浩 ▲二百株 朴奎德 ▲百株 金千龍 李英俊 金正善 田學淳 成鳳仁

以上에 依하야보면 南大門市場의 純全한 商人中에는 大株主元氏는 그前商人이오 지금은 關係가 만치만 따로치면 極少數라 할수잇고 南大門市場商人의 株主는 그株數에 잇서 問題아되는 少數일뿐아니라 商人自體로서는 新會社設立을 決議한 商人自體의 會社로 만들어 中央都賣市場設立에 對한 商權擁護를 目的으로 하얏던것이데 그뒤形便을 보니 自力으로만은 할수업고 商人以外의 他分子가 大株主로되여 어는商人들의 機關이라할수업게되고 大株主의 一人인 齋藤氏는 아즉도 申込證據金을 내지안혼것도 疑問을갓고잇는것

2、中央都賣市場은 最近에至하야 權威者大野氏가와서 蓬萊町新設市場을으로 大體그位置가 決定된 모양갓고 南大門、東大門兩市場의 存在를 無視할수업다는 말도잇슴으로 中央都賣市場成立後 現市場商人에게 어떠한 優待權이잇슬지도 모르는情勢로서 特히 南大門市商人이 그會社와 關係를 맷게될지 그數에잇서 그實에잇서明確한判斷을 내리기어려운것

3、食料品會社가 創立된後 果然 어느程度로 現南大門市場商人이 그會社와 關係를 맷게될지 그數에잇서 그實에잇서 明確한判斷을 내리기어려운것 等에依하야 食料品會社株主되기를 躊躇하야 內容에 이便利한 形勢를 보는者도잇고 그去就가 未定으로 彷徨中에잇다 한다。

海産物會社計畫

食料品會社와別個로

1、商人聯合會總會에서 新會社設立을決議한 商人自體의 會社로 만들어 京城食料品株式會社 發起人會에서 決定된定款은 그營業課目을 果實、蔬菜、鹽干魚、穀物에 限하엿섯는데 그後海産物商人中 脫退者가 생기고 또는京城海産物組合(南、東兩市場海産物商組合)에서 食料品會社와는 別個로 五十萬圓의 海産物會社를 新設하자는 議論까지잇슴을보고 食料品會社發起人會에서는 다시定款을고치어 生果、野菜、海産物、乾果、鳥獸、穀物賣買委託販賣及仲介業으로 그營業課目의 範圍를 擴大하얏다는데 새로이 計畫中인 海産物會社에 對하야서도 食料品會社에가는것이 조흘지 海産物會社를 따로만드는것이 조흘지도 는 이것저것 고려하는데 中央都賣市場이 어떠케되어가는지 나온지 보는것이 有力海産物商들 태도도 아즉그態度를 決定치못하고 彷徨中이라한다

羅津稅關設置

完成後로決定

朝鮮貿易의 現狀을보고 稅關行政의 合理的整備는 當者懸案으로되야 이번에 稅關長會議에도 諮問한結果 大正十三年의 移入稅撤廢에 際하야 廢止된 北鮮의 稅關의 復活을 보기로決定하엿다 設置個所에 對하야는 大體羅津港의 本格的完成을 기다려 同港에 設置될것이며 設置는 右關係上 一兩年後의 昭和十三年度로될豫定이라고한다

支店別 今年 昨年 前年同期의 八割五分八厘보다 八分六厘가 增加인데 各支店別移秧比例는 다음과 갓다

支店別	今年	昨年
釜山	九割六七	九割七〇
大邱	九、六一	八、五九
木浦	九、九二	七、七八
裡里	九、七一	七、四五
大田	九、三九	七、三四
京城	八、一七	九、七三
元山	八、八〇	八、九一
沙里院	九、四三	一〇、〇〇
平壤	九、七九	一〇、〇〇
新義州	九、四四	八、五八

그리고 關東支店管內의 移秧狀況도 매우良好하야 七百二十五町步全部의 移秧이 끗나 百%의 移秧比例를 示하엿다

東拓管內

移秧良好

九割四分四厘

七月十日現在 支社各支店管內의 移秧狀況은 移秧豫定面積 二萬六千六百二町步中 二萬四千五百六十七町의 移秧이 끗나고 그移秧은 前年同期의 比例는 九割四分四厘로

白米統制와

大綱案成立

白米工業振興期成會

全朝鮮白米工業振興期成會에서는 十四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第一回委員會를열고 出席者는 加藤委員長外二十四名、總督府에서 石塚農產物檢查所長 成田技師等臨席 丸仁協會提案을 中心으로 討議한結果 白米統制의 大綱을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一、白米工業組合을 設立할일
二、組合員의 白米生産比率을 設定할일
三、組合의目的은 共同購入、共同販賣로할일
四、『마ー크』의統制를할일
그리고 會則의起草委員으로 京仁精米業者八名 丸仁協會島越理事 檀山證驗理事計十名으로 組合의 定款其準에 着手키로되엇다

對滿關稅制度

總督府에서協議

對滿貿易伸展에 關하야 이번의 稅關長會議에서도 特히 重點을 두고 硏究되야 對滿互惠關稅設定等을 協議하엿는데 稅關長會議終了의 十五日에는 續議하야

朝鮮生絲

直接輸出

製絲業者가協定

過般小田萬藏氏가 入京하야 提議한 日本中央蠶絲會의 提案인 朝鮮生絲의 海外宣傳費負擔(輸出生絲一俵에對한 五圓、二百五十萬圓輸出)問題는 朝鮮産生絲의 神戶、橫濱經由輸出을 條件으로한때문에 宣傳費間接의負擔으로 될터인데 이에 對하야製絲業者로 特別한支障이 업스면 希望에 應하겟다고 回答하엿다 그런데 그뒤 製絲業者間에 實際의 負擔關係에 對하야 硏究한結果 運賃保險料 其他關係費用의 金利等을 加算하면 一俵에 卄圓以上의 負擔으로되고 輸出生絲二萬俵에 四十萬圓의 負擔이되므로 重大問題라고하야 過般來 有力製絲業者間에 協議中이더니 神戶、橫濱經由의 輸出을 안하고 釜山에서 直接滿出키로 協定하야 그대로가 注目되다고한다

農林省所持正租

玄米調製後拂下?

不遠適當한數量을

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에서는 目下所有籾米(籾九萬石)의 玄米調製를 仁川 鎭南浦埠頭에서 하는中이며 仁川에서는 이미 正租三萬石의 玄米調製를 마치고 不遠玄米(四等格同等의것)로 適當量을 拂下할모양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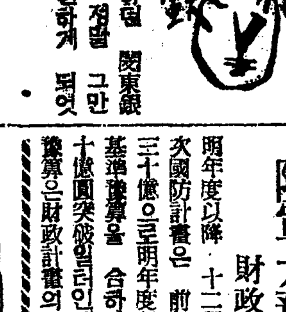
輸出品取締法

施行에伴하는勅令

十五日公布即日實施

【東京電話同盟】重要輸出品取締法...

米日爲替少漏 【京東十四日發同盟】十四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야 三仙安 買三十九弗三十九仙으로 三十九弗三十七仙으로 一仙安



나가다 나가다 하던 閔東銀頭取는 어번에는 정말 그만두게 된것이라고 떤하게 되엇소

○ 漢銀에 어어 東銀도 取締役會長制로 이것이 朝鮮人銀行의 스타일?

○ 南大門市場 商人들은 中央市場員體化로 갈팡 질팡 한다고

○ 有利한便 고르려고 악개쓰다가 이것 저것 다 놋치지나 안흘가

法施行에件하는 稅關官制 其他

稅關官制中改正의件、高等官官等俸給令中改正의件、奏任文官特別任用令中改正의件

商況 【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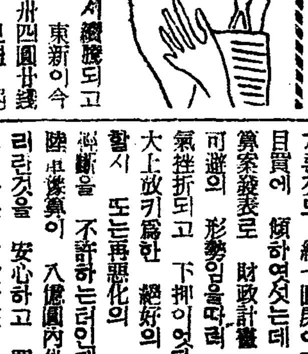
株式

低落後에

更高

前場低落 高價買一巡인데 다가 蔣氏對日宣言、陸軍의大豫算案으로警戒的嫌氣가생기어 諸株一齊反落步調이엇다 即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二十錢低인百五十七圓四十錢 日産一圓低인七十四圓三十錢 鐘新七十錢低인百五十八圓八十錢 大新二十錢에 各大引되고 新二十二圓五十錢에 떠러졋다가 八十錢大引 日産新二十五圓三十錢 日魯七十一圓丁 日鑛百九十錢이잇섯다

▲朝新 三四(寄) 三五 ▲東新 (引)



(株)……二圓押도엿거나 續騰되고 數日間高價保合이던 東新이今前場은 東京短期百卅四圓卅錢으로 下押▲强氣로서 보면 絶好의 押目이라할것 ▲戒嚴令撤廢在近、增稅、統制、國策繼入 등 制期的低金利、軍需大인포레等으로보면 押目買轉換論을 拒否할수업을것이라 ▲果然安心買의 域에 達하얏는지 좀더 內外情勢를 透視하고 秋冷之季에 一市勢를 期함이 若何?

(米)……南朝鮮엔 또 降雨가잇섯다 至公無私하다는 天翁은 너머나 無心하군 中部朝鮮에는 民怨이 觸天 ▲今朝市勢는 一段低落을 告하엿스나 深入할 能力은 업을것갓다 ▲何如間大勢는 土用天候의 如何에 依하야 左右될것이므로 場面의 興味는 去益津津할모양▲그런데 當地限職은 兩方의 勢力이 相敵한만큼 當限時代에 入하지 안코는 勝負를 決치못할 모양 ▲年期의 前途는 으로보아서…… 側으로서 今後 變分이 難問、昨調整할지 軍大觀될으로 相 파 相 이 이것은 果然어떠케 치안코는 消化할수 잇슬것이다 旨 渡米萬集도 問題이지마는 受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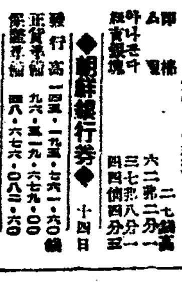
陸軍大豫算과

財政大轉換?

明年度以降 十二個年計畫인 第二次國防計畫은 前年六個年間에 約三十億으로 明年度부터 平均五億圓突破할 터인데 이 陸軍의 大豫算을 合하야 豫算總額年十億을 基準함 이 陸軍의 大豫算은 財政計畫의 一大轉換을 行

押目?惡化?

一般買方의 實拔이 不絶하얏스며 糖株는 八十錢高로 異彩이엇스며 日糖은 人氣不良化하얏스나 砂糖은 今朝重工業會社에 對한 配當制限의 意向이 政府에 잇다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大同産業 三五 (三四) ▲大同電力 ▲東新 ▲帝國 ▲仁川米豆 ▲京城電氣 ▲朝鮮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新規公債發行은 陸軍大豫算 案이 提出되어 好感하야 一般 보合調이 前日比 [illegible]

北濱情報

【大阪電話】公債 今年 大藏省이 好況이 安內에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八〇 ▲二回四分 二二年 一〇一、七〇 ▲二回四分利 一〇一、八〇 ▲甲五分利 一〇一、六五 △二八

今日財界 (十五日)

◆米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〇四九	七低
大阪期米 先限	三〇五〇	七低
三等米 一石	三二五	三五低
正租(仁川)二等	九錢五厘	三厘低
一斤價 三等	九錢三厘	三厘低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三圓二十錢	十三圓五錢
銀	九錢〇厘	十錢〇厘

◆株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ゴムFAQ	[illegible]	[illegible]

後場更高

後場은 다시 買進되어 東新百五十五圓二十錢、日産七十七圓九十錢 鐘新百五十九圓六十錢、大新七十四圓五十錢 日産新二十五圓十錢 朝新七十七圓七十錢 日魯七十一圓丁에 各大引

期米 續落後에

下漲

前場續落 昨後場阪地三十三圓六十六錢止와 共히 三十一圓五十六錢에 寄合止할 當時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寄에 二十三圓五十六錢인 十丁反落을 보하고 三十一圓四十九錢인 七丁低로 寄合後 阪地五十二錢으로反을 始한後 下漲狀態를 뵈하야 結局四十八錢에 止場합을 伴하야 四十三錢까지 下押하엿다가 四十八錢에 止場을 하엿다

後場下漲 後場은 三十一圓五十錢에 二丁高로 始場後四十八、九錢間 下漲이다가 結局 四十九錢에 止場하다

東阪은晴天?

南部雨、中部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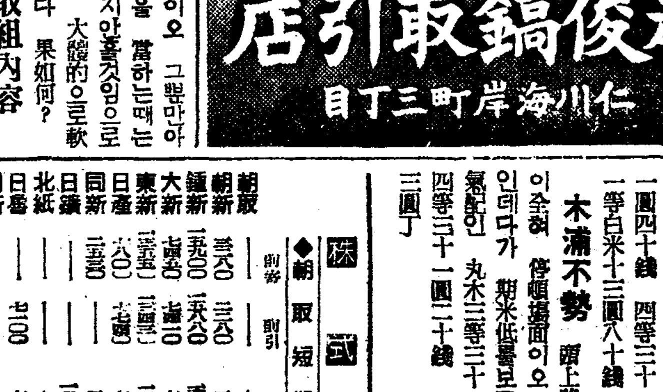
頃日來의 天候는 東阪兩地의 降雨와 朝鮮의 旱魃로 買氣熾烈하더니 昨日부터 東阪兩地의 天候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限
지 三〇〇	○ 一〇〇	[illegible]	[illegible]	지 一〇〇	○ 一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萬石이 나올모양이오 그뿐만아니라 需給의 窮屈을 當하는때는 政府의 拂下도 업지 안흘것임으로 結局米價의 前途는 大體的으로 軟弱을 免치못할것갓다 果如何?



米價前途一考

大體軟弱難免

米界에서 가장 注目을 集中케하는 土用의 天候가 果如何할지는 물으나 目前의 現象으로는 中部朝鮮의 旱天만은 一般이 旣히 憂慮하는바로서 其他地方은 大體順調로 七月一日 現在植付狀況이 九割三分七厘로 오히려 昨年同期보다 一分增을 示하엿슨즉 今後好雨만 繼續한다 하면 豊作을 可期할수도 잇스며 日本內地 天候도 一時低迷의 嫌이 업지 아니엿스나 昨今은 天氣가 依然되어 依然 樂觀을 呈하는 狀態이다 그러고 在米의 事情으로보다 할지라도 七月一日現在 殘存數字로보아서 來米穀年度의 理想持越高가 九百萬石을 算하게되즉 此에서 政府所有米五百五十萬石을 差引한다할지라도 民間米의 持越이 三百五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天候良好로 買人氣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軟調 期米軟落으로 人氣萎靡하야 軟化되어 氣配十五錢低인 丸仁三等三十一圓二十五錢 四等三十圓九十五錢 一等白米三十三圓五十錢

仁川反落 期米低落을 보고 市況十五錢의 反落을 告하얏다 丸仁三等三十一圓二十五錢 四等三十圓九十五錢

釜山軟化 定期軟調로 影響하야 賣不買의 態度가 幾分軟化되고 市勢는 十錢引緩이엇다 角丁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三十錢

大邱不振 當用買不振에다가 期米의 軟弱으로 取引이 極端으로 不振이오 氣配十錢低한 角丁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群山下放 大口實物이 잇섯스나 實行不合과 定期軟弱으로 實氣挫折되어 下放하얏다 九丁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木浦不勢 頭上降雨로 取引이 조허 停頓場面이오 無風狀態인데다가 期米低를 보고 十錢低氣配인 丸木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朝取短期

	前場 寄付	前引	高値	低値	後場 寄付	後引	高値	低値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鮮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朝取期米 十五日

[illegible]

群山期米 / 木浦期米 / 大邱期米 / 釜山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 大阪正米標準價 / 東京期米 / 大阪期米取組 /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金融 十五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米國 十五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十五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鎭南浦沖價 ◆新義州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商品 十五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지카고期米

[illegible]